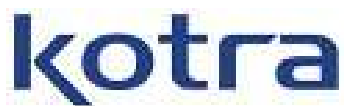


오스트리아

정보수정일자: 2009. 12. 31

작성처: 빈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1
- 정치사회동향 /2
- 한국과의 주요이슈 /5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8
- 주요 산업 동향 /14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5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26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9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31
 - 대한수입규제동향 /32
 - 관세제도 /33
 - 주요인증제도 /34
 - 지적재산권 /38
 - 통관운송 /39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42
- 외국기업 투자동향 /46
- 우리기업 투자동향 /48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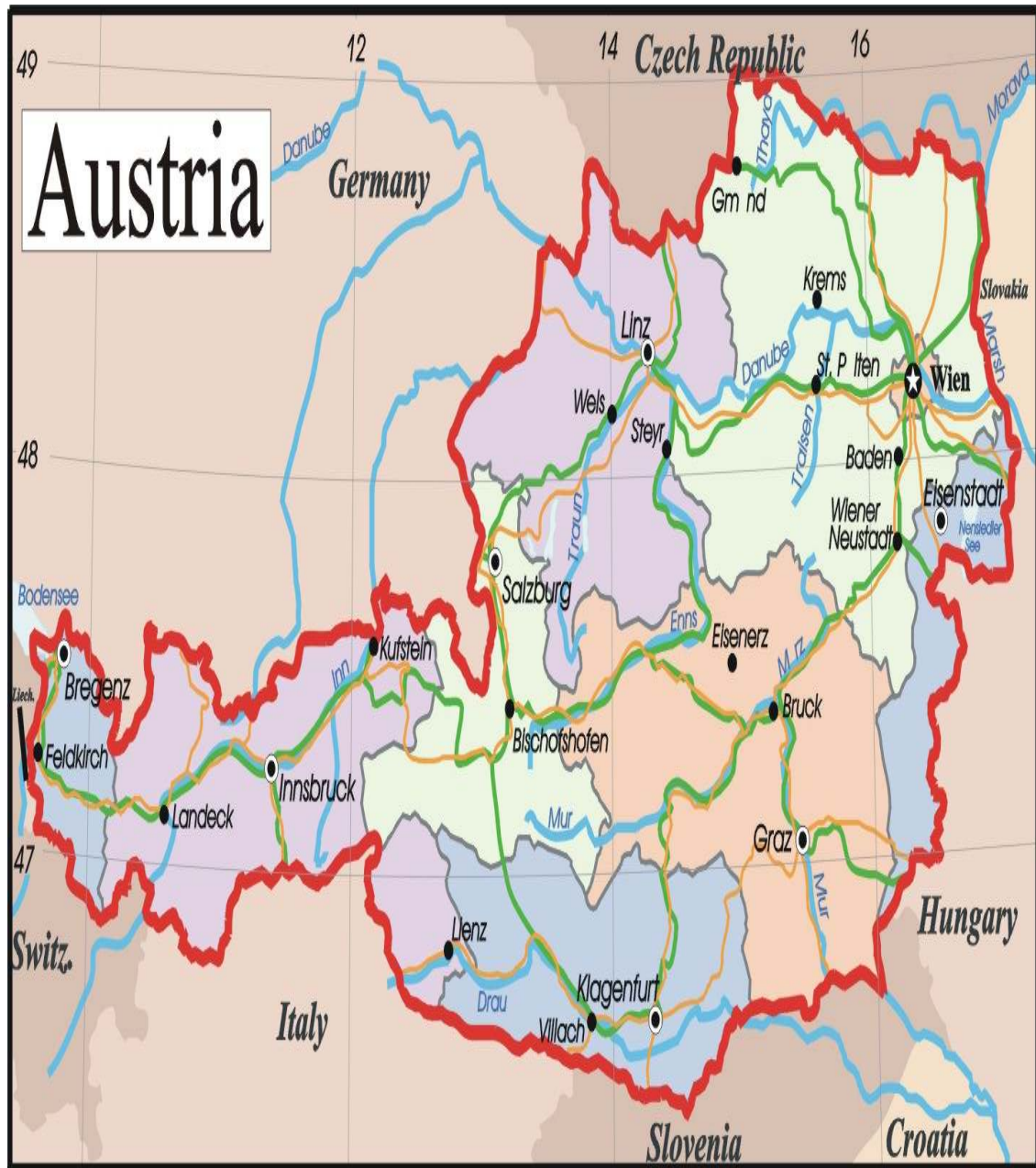
- 주요 투자법 내용 /49
- 진출형태별 절차 /57
- 투자입지여건 /65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68
- 조세제도 /71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74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76
- 물가정보 /81
- 바이어발굴 /82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86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90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92
- 이주정착 가이드 /93
- 출장가이드 /101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125
- 유관기관 웹사이트 /126



1992 MAGELLAN GeographixSM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명	오스트리아(Austria, 獨文 Oesterreich)
위치	중부유럽 하부
면적	83,871km ² (남한 면적보다 다소 작음)
기후	대륙성 기후
수도	빈(獨文 Wien, 英文 Vienna)
인구	834만(인구 밀도= km ² 당 99명)
주요 도시	빈(165만 명), 그라츠(25만 명), 린츠(19만 명), 잘츠부르크(15만 명), 인스부르크(12만 명)
인구 증가율	연간 약 0.44%(인구 노령화로 고민)
인구 구성	게르만계 88.7%, 소수민족 2%, 상주 외국인 9.3%
상주 외국인	구 유고슬라비아인 35%, 터키인 12%, 독일인 14%, 기타 39%
종교 구성	가톨릭 73.6%, 개신교 5.5%, 이슬람 4.2%, 무종교 12.0%, 기타 4.7%
언어	독일어
건국일	최초 건국 연도는 996년, 국경일 10월 26일은 1938년 독일에 강제 합병된 후 2차 세계대전을 거쳐 1950년 승전 연합국의 승인을 얻어 독립을 선언한 날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국가 원수	대통령 Dr. Heinz Fischer(국가 원수: 취임일: 2004. 7. 8., 임기 6년) 총리 Werner Faymann(실권자: 취임일: 2008. 12. 2., 임기 4년)

나. 경제 지표(2008년도, 경상 가격 기준)

GDP	2,822억 유로
실질 경제 성장률	1.8%
1인당 GDP	33,820 유로
GDP 구성	서비스업 67.2%(공공부문 5.5%), 제조업 20.3%, 건설업 7.1%, 에너지/상수도 3.0%, 농림광업 2.4%
경제의 수출 의존도	약 38%
실업률	3.8%
소비자 물가 상승률	3.2%
화폐 단위	유로(유럽화폐동맹 참가국)
환율	1달러=0.6810유로(2009년 9월 22일 기준)
순외채	685억 유로
외환 보유고	70억 유로
산업 구조	제조업 19.2%, 유통업 13.8%, 금융업 5.9%, 건설업 7.2%, 교통통신 7.1%
교역규모	수출: 1,173억 유로, 수입: 1,191억 유로
교역품	수출: 자동차/자동차 부품, 의약품, 물 수입: 자동차/자동차 부품, 석유, 의약품, 전자 제품

다. 한-오스트리아 관계(2009년 9월 기준)

한-오스트리아 관계	○ 조선과 오스트리아의 수교 및 무역협정(1892년) - 1965년: 재수교 - 1971년 9월: 무역협정 - 1979년: 사증면제협정(3월), 항공협정(5월), 섬유협정(6월) - 1985년 10월: 이종과세방지협정 - 1991년 3월: 투자보장협정 - 1996년 3월: 항공협정 개정 - 2007년 9월: 과학기술협력협정 - 현재 사회보장협정 추진 중
교역 규모	○ 2007년: 7억 7,000만 달러(對澳수출), 8억 7,000만 달러(對澳수입) ○ 2008년: 6억 6,000만 달러(對澳수출), 9억 8,000만 달러(對澳수입) ○ 2009년 7월: 3억 2,100만 달러(對澳수출), 4억 6,100만 달러(對澳수입)
교역품	○ 對澳수출: 승용차, 평판 디스플레이, 휴대용 전화기 ○ 對澳수입: 집적회로 반도체, 원동기, 돼지고기, 비스코스 섬유
투자 교류 누계	○ 우리나라 진출: 30건 9,138만 달러 ○ 우리나라 유치: 71건 9,740만 달러
교민	약 500명, 체류자 약 1,700명

자료 : 오스트리아 통계청, Eurostat, Monatsberichte, OeNB, IWF, WKÖ, Die Presse,
주 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 한국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2. 정치 사회 동향

가. 조세 개혁

2009년 조기 실시를 주장한 사회당(SPÖ)과 원래 예정대로 2010년 실시를 주장한 국민당(ÖVP) 등 대연정 파트너들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그 시행 시기가 관심의 초점이었던 오스트리아 2차 조세 개혁이, 최근의 경제 위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2009년 조기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개인 소득세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 변경 내용

(단위: 유로, %)

변경 전(~2008.12.31일)		변경 후(2009.1.1일~)	
연소득	세율	연소득	세율
0~10,000	0	0~11,000	0
10,001~25,000	38.33	11,001~25,000	36.5
25,001~51,000	43.59	25,001~60,000	43.2
51,001 이상	50.0	60,001 이상	50.0

자료: Format(오스트리아 경제전문 주간지)

이러한 소득세율 인하와 더불어 자녀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소득 공제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 지출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래의 표에서 보여지듯 세전 월수입 1,200~2,000유로의 “중산층”이 금번 소득세율 인하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금 절감 효과

(단위: 유로, %)

세전 월소득	월 세금 절감 효과	절감률
1,200	33.33	2.8 %
1,600	38.92	2.4 %
2,000	44.92	2.2 %
2,400	50.92	2.1 %
2,800	54.00	1.9 %
3,200	55.42	1.7 %
3,600	56.66	1.6 %
4,000	58.08	1.5 %
5,000	63.83	1.3 %
6,000	112.92	1.9 %

자료: Format(오스트리아 경제전문 주간지)

나. 기타 세제 관련 변동 사항

금번 조세 개혁에는 상기 소득세율 인하 이외에 몇 가지 주요한 세제 관련 변동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2009년 1월 1일부터 기존 20%에서 10%로 인하되어 적용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부가가치세율 체계

세율	구분
20%	기본세율(일반 재화 및 서비스)
10%	식품, 농수산물, 주거용 건물 임대, 승객 운송
0%	수출품 및 수출입과 관련한 일부 서비스
부가세 면세 사업자	은행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주거용 건물 임대 제외), 병원, 의사, 치과 의사

자료: 오스트리아 재무부

이 밖에 기업의 이동 가능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가속 상각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동 조치에 따르면, 2009, 2010년 기간 동안에 구입한 자동차, 가구, 컴퓨터, 기계 장비(이동 가능한 것) 등 이동 가능한 기업의 유형 고정자산에 대해 회계상 취득원가의 최대 25%까지 가속 상각을 허용하고 있다.

동 회계처리 방법을 이용할 경우, 기업은 정액법에 의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초기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가 4년인 컴퓨터의 경우 동 회계처리 방법이 기존의 방법과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나, 업무용 차량(내용연수 7년), 사무용 가구 및 기계(내용연수 10년) 등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 투자 손실로 몸살 앓는 오스트리아 지방 자치 단체들

미국발 금융 위기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의 지방 자치 단체들 중 상당수가 금융 상품 투자에 따른 손실로 인해 큰 어려움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총 2,357개 지방 자치 단체 중 5%에 해당하는 100여 개의 지방 자치 단체의 투자 자산 손실 규모가 총 3000만 ~ 5000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고수익을 목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한 상품도 단순한 주식 투자에서부터 펀드와 연계한 외화 대출, 이자율 스왑, 환율 스왑, 환율 옵션 거래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9월 기준 가장 큰 규모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는 Hofamt Priel(펀드와 연계한 외화대출), Hartberg (부동산관련업체 주식 투자), Perchtoldsdorf(부동산 펀드) 등 세곳으로 조사되었는데, 각각 250만 유로, 200만 유로, 150만 유로의 투자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방 자치 단체들의 공격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손실이 표면화되자 개별 州 정부들은 발빠르게 이에 대한 방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부르겐란트주의 경우 2008년 11월 이후 지방 자치 단체들의 이러한 금융 상품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니더외스터라이히주의 경우에는 관련 투자 행위를 금지시키지는 않으나, 투자 결정시 반드시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 중에 있다.

라. 오스트리아 국가 청렴도 개선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 기구인 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국가청렴도는 8.1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결과였던 15위에 비해 세 단계 상승한 수치로, 2008년 도입된 부패방지법 등 오스트리아 정부의 부패 방지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 청렴도 순위

순위		국가명	청렴도(10점 만점)
2008년	2007년		
1	1	덴마크	9.3
1	1	뉴질랜드	9.3
1	4	스웨덴	9.3
4	4	싱가포르	9.2
5	1	핀란드	9.0
5	7	스위스	9.0
7	7	네덜란드	8.9
7	6	아일랜드	8.9
9	9	캐나다	8.7
9	11	호주	8.7
12	15	오스트리아	8.1
14	16	독일	7.9
18	20	미국	7.3
23	19	프랑스	6.9
70	69	루마니아	3.8
72	72	중국	3.6
147	143	러시아	2.1
180	179	소말리아	1.0

자료 :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금융 시스템은 그 투명성과 관련하여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특히 2007년과 2008년 연속으로 발생했던 대형 금융 기관 Bawag과 MEL(Meinl European Land) 스캔дал은 오스트리아 금융 부문과 정치권과의 검은 관계 및 이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었다.

마. Magna社の Opel 인수

오스트리아의 유일한 완성차 조립업체로서 세계적인 자동차 관련업체 중의 하나인 Magna社가 GM의 유럽 자회사인 Opel의 인수에 성공함으로써, 유럽의 자동차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금번 인수는 그 동안 자체 브랜드 없이 고객의 주문을 받아 완성차를 조립 공급해 온 Magna社가 마침내 자체 브랜드를 가지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 자동차 업계의 불투명한 향후 시장 전망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Magna社の 주 사업 영역인 완성차 조립 부문에서, 앞으로 고객들이 실질적인 경쟁업체가 된 Magna社에 이전만큼 주문 물량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파이낸싱 및 정부 지원 등 인수 및 그 이후의 진행과 관련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자료: 빈 KBC 보유 언론 보도 자료 종합)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무역 관계

한국과 오스트리아 양국 간의 교역량은 2000년대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오다가 2005년 교역 규모 16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2006년부터 정체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교역 규모가 16억 달러 초반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체세에는 꾸준한 수입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수출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년 두 자리 수 이상 수출 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 들어서도 그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다가, 2009년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對 오스트리아 무역통계 총괄표

(단위: 천 불, %)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6	886,632	-8.6	737,717	14.4	148,915
2007	770,672	-13.1	873,309	18.4	-102,637
2008	661,499	-14.2	979,042	12.1	-317,543
2009년 7월*	321,293	-19.1	460,793	-19.1	-139,500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MTI 4단위 기준
자료: KOTIS(www.kita.net) (2009년 9월 11일)

대 오스트리아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승용차, 핸드폰 등 그 동안 주력 수출 품목으로 활약해 왔던 제품들의 부진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제품 오스트리아 시장의 전체적인 정체(2008년 기준 오스트리아 신차 시장 0.7% 감소, 핸드폰 시장 2~3% 감소) 등의 구조적인 요인과 맞물려 동 추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대 오스트리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천 불)

순위	품목명	2008		2009(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61,499	-14.2	321,293	-19.1
1	평판디스플레이	143,299	-35.1	58,241	-11.3
2	승용차	108,401	-45.0	44,018	-42.0
3	무선전화기	84,716	-9.9	43,535	-4.4
4	집적회로반도체	21,596	86.0	31,737	190.4
5	무선통신기기부품	8,159	69.7	25,958	453.1
6	광학기기부품	31,996	32,222.9	22,079	41.2
7	칼라TV	9,891	27.8	11,191	246.8
8	타이어	20,144	-24.4	9,809	-18.0
9	축전지	17,541	9.9	6,976	-53.2
10	타이어코드	13,264	25.2	5,777	-36.1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MTI 4단위 기준
 자료: KOTIS(www.kita.net) (2009년 9월 11일)

대 오스트리아 수입 시장의 경우 비스코스 섬유 및 기계류, 육류 등이 수입 규모의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비스코스 섬유, 삼겹살 등의 수입 규모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오스트리아 업체와 한국 업체간의 특허권 분쟁 소송으로 인해 2007년부터 그 수입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 오스트리아 주요 수입 품목

(단위: 천 불)

순위	품목명	2008		2009(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979,042	12.1	460,793	-15.3
1	비스코스섬유	58,915	14.0	39,614	19.5
2	가축육류	63,151	20.1	29,720	-16.5
3	집적회로반도체	67,580	12.4	28,537	-35.8
4	금속절삭가공기계	12,735	1,725.5	27,380	405.2
5	주조설비	48,312	133.7	23,401	105.7
6	철도차량	-	-	17,435	-
7	도금강판	7,632	-29.8	16,831	1,098.8
8	의약품	25,676	6.6	16,122	15.1
9	유리공예품	35,689	-13.3	14,821	-38.5
10	승용차	40,210	-35.2	11,400	-55.3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MTI 4단위 기준
 자료: KOTIS(www.kita.net) (2009년 9월 11일)

나. 정치 관계

일상적인 무역 거래를 제외하고 최근 양국간에 특별한 정치적 이슈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 현지 언론에 한국 관련 기사는 그리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아니며,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 양국간의 무역 관계에 기초한 특별 기획 기사 정도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5월에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국제적 관심의 증가로 북한과 관련한 기사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 및 언급도 예년에 비해 증가한 상태이다.

2007년 4월 Heinz Fischer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기업인들이 주축이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 것이 가장 최근에 양국 간에 발생한 주요 인사의 방한 동정이며, 그 외에 2007년 8월에는 Werner Amon 한-오스트리아 의원 친선협회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한국 주요 인사 오스트리아 방문 내역

방문 시기	주요 인사
2002. 3.	이만섭 국회의장
2002. 5.	최성훈 외교부 장관
2002. 11.	박관용 국회의장
2004. 10.	이해찬 국무총리
2004. 4., 2005. 1., 2005. 11.	전윤철 감사원장
2005. 4.	정운찬 서울대 총장
2006. 6.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2006. 9.	김우식 과학기술부 부총리
2009. 1.	박진 외통위원장
2009. 5.	김형오 국회의장

오스트리아 주요 인사 한국 방문 내역

방문 시기	주요 인사
2000. 10.	Schüssel 총리(ASEM 정상회의)
2001. 5.	Ferrero-Waldner 외무장관
2001. 10.	Fiedler 감사원장(INTOSAI 총회)
2004. 5.	Grasser 재무장관(ADB 연차 총회)
2005. 5.	Winkler 빈 대학 총장
2005. 8., 2006. 5.	Amon 한-오 친선협회장
2004. 4., 2005. 1., 2005. 11., 2007. 8.	전윤철 감사원장
2007. 4.	Heinz Fischer 오스트리아 대통령
2007. 12.	Prammer 하원의장

자료: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다. 한-오스트리아 친선 단체 현황

1) 한-오 친선 협회(Österreich-Koreanische Gesellschaft)

- 설립일자: 1972 년 12 월 13 일
- 회원: 335 명
- 임원
 - Heinrich Neisser 전 하원 제 2 의장(회장)
 - Dr. Günther Winkler(명예회장)
 - Harald Wögerbauer 국민당 소속 전문위원(사무총장)
- 주요활동: 한-오스트리아 양국 간 협력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한국 문화 활동 소개, 연례 호이리겐 아벤 행사 개최, 총회 개최, 한-오 오케스트라 개최 지원 등

2) 한-오스트리아 의원 친선 협회

- 설립일자: 1978년 3월(한국), 1976년 11월(오스트리아)
- 2002년 11월 총선 이후 오스트리아는 Werner Amon 의원(국민당)을 회장으로 임명한 이래, 2003년 7월 총 15명의 의원을 신규 회원으로 지명

3) 한-오스트리아 경제협력 위원회

- 설립일자: 1978년 10월
- 1990년 마지막 회의 이후 2005년 10월 15년 만에 활동이 재개되었다.

4) 한-오스트리아 협회

- 설립일자: 1990년 7월 7일
- 회장: 조상현(한국음악교육협회 회장)
- 회원: 약 100명(오스트리아 유학음악가 중심)

5) 명예 영사

- Salzburg(Dr. Aichinger), Graz(Prof. List), Klagenfurt(Dr. Burger-Scheidlin), Linz(Dr. Neumann) 등 4개 도시에 유력 오스트리아 인사들을 명예영사로 임명하고 있다.

(자료: Wifo 발행 “Monatsberichte”, 주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 한국무역협회, 오스트리아 통계청, 주요 일간지 자료 종합)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연도별 거시경제지표

경제 수치

지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명목 GDP (경상 EUR억)	2,328	2,445	2,573	2,708	2,822
1인당 GDP (경상EUR)	28,480	29,690	31,070	32,570	33,820
실질성장률(GDP기준) %	2.3	2.0	3.3	3.4	1.8
물가상승률 %	2.1	2.3	1.5	2.2	3.2
실업률 %	4.8	5.2	4.7	4.4	3.8
외채현황(억 불)	388	436	505	657	685
수 출(EUR억)	898	947	1,037	1,142	1,173
수 입(EUR억)	911	965	1,042	1,138	1,191
연평균환율(1US\$=Euro)	0.8045	0.8032	0.7962	0.7294	0.6798

자료: 오스트리아 통계청,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 발행 “Monatsberichte” 2009년 7월호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1) 요약

**오스트리아 경제 추정 및 예상 수치**

구분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억EUR)	수출증감(%)	수입증감(%)
2009년	-3.4	+5.3	+0.5	- 20	-15.1	-11.2
2010년	+0.5	+5.8	+1.2	- 5	+0.7	+0.4

자료: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 발행 “Monatsberichte” 2009년 7월호

오스트리아 경제 추정 및 전망치

(단위: %)

연도	평균소비	공업생산	설비투자	실질가처분 소득	민간저축률
2009년	+0.2	-10.0	-5.9	+0.9	12.0 %
2010년	+0.5	0	-1.0	+0.1	11.7 %

자료: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 발행 “Monatsberichte” 2009년 7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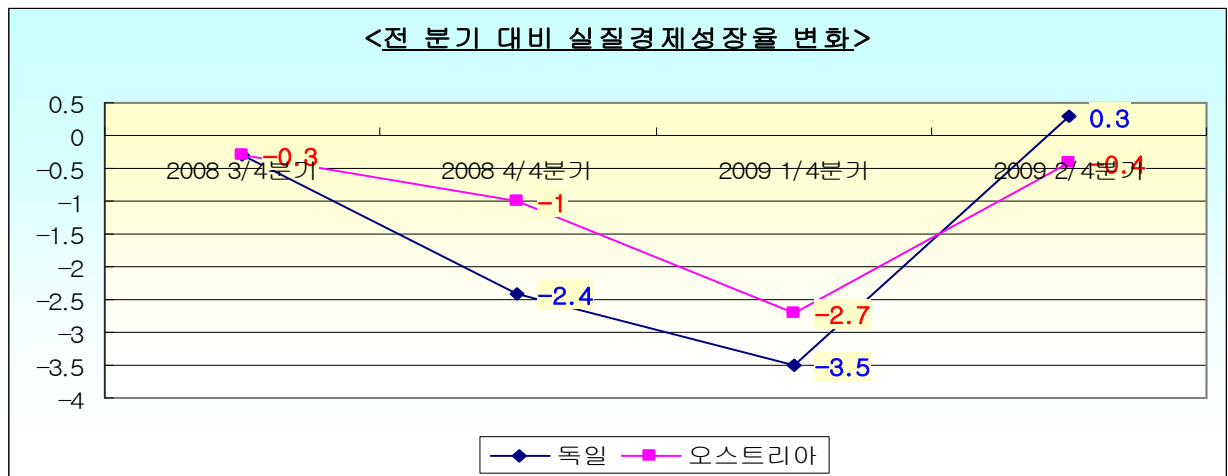
2) 개요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5 ~ 2.0%대의 저성장세를 지속하였던 오스트리아 경제는 2006년, 2007년 연속으로 3% 대의 실질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그 동안의 정체 기조에서 벗어나 완전한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고공 행진 및 이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 압력 및 2008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2008년에는 이러한 상승세가 한 풀 꺾인 1.8%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2009년에는 이러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서는 처음으로 마이너스성장(-3.4%)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이 되어서야 조금 회복(+0.5%)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발표된 경제지표에 따르면, 인접국 독일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오스트리아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4분기 독일의 실질경제성장률이 前분기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플러스 성장을 전환으로 독일 경제가 이제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경제도 2/4분기를 고비로 경기 하락세가 완전히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2/4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은 前분기 대비 0.4% 하락한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2008년 4/4분기(-1.0%), 2009년 1/4분기(-2.7%)에 비해 뚜렷한 회복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Eurostat

3) 분야별 세부 내용

2008년 상반기 오스트리아 경제는 생산과 수요 모든 측면에서 전체 EU 국가들 평균보다 훨씬ダイナ믹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미국을 시발점으로 한 글로벌 경기 침체, 달러화 대비 유로화 환율 변동 등으로 말미암아 오스트리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던 수출의 증가 추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향후 경제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미국발 금융 위기에 따른 결과라는 측면 이외에도 주기적인 경기 순환 사이클에 따른 자연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달러화 대비 유로화 환율 변동,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의 감소 등이 맞물려 있으며, 경기 사이클상의 회복 국면은 빨라야 2009년 말 또는 2010년 초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7년 4.7%라는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설비 투자 부문도 2008년에는 그 증가율이 1.8%에 머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에는 그 증가율이 마이너스(-5.9%)에 이를 정도로 그 둔화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건설 부문의 투자보다 기업들의 설비 및 기계 부문에의 투자 감소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 소비지출은 2000년대 들어 1~2%대의 낮은 증가율을 지속함으로써 내수 경기 회복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는데, 이러한 추세는 2009년에도 계속될 전망(+0.2%)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세의 둔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등으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0.9%)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업률의 증가(2009년 : +5.3%, 2010년 : +5.8%) 등 고용 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이러한 소득 증가분이 직접적인 소비 지출의 증가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내 소비자 물가는 2008년 6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이래,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추세는 2009년에도 이어질 것(+0.5%)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 부양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재정 지출의 증가로 인해 재정 적자폭은 2008년 총 GDP의 0.3%를 기록하였고, 2009년에는 3.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4) 수출입 전망

오스트리아 무역통계 총괄표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6	103,742	9.5	104,201	8.0	-459
2007	114,680	10.5	114,255	9.6	425
2008	117,330	2.3	119,128	4.3	-1,798
2009년 6월*	45,849	-24.5	47,740	-21.2	-1,891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Statistik Austria (2009년 9월 11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오스트리아의 수출 증가 추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미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수요 감소, 달러화 대비 유로화 환율 변동 등 대외 수출 여건의 악화로 인해 2008년 오스트리아 수출 증가율은 2007년의 1/5 수준인 2.3% 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심화되어 2000년대 들어서는 처음으로 수출 증가율이 큰 폭의 마이너스(-15.1%)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수출 감소세는 2008년 9월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 대외무역부(AWO)가 오스트리아의 수출 기업 3만 4,000개를 대상으로 행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2008년 9월 이후 수출 성약건수 및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적인 수출 산업인 자동차 산업 분야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동차 산업은 오스트리아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산업 중의 하나이다.

오스트리아의 3대 수출 대상국인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이외에 최근 신흥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의 경기 침체 및 이에 따른 수출의 감소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2/4분기 실적을 토대로 할 때 인접국 독일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오스트리아 수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9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오스트리아의 수출 실적은 총 46백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24.5% 크게 감소한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 등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는 오스트리아 수출 시장의 회복을 앞당김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내수 시장과 더불어 오스트리아 경제 회복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오스트리아 정부의 실물 경기 부양책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은 글로벌경제침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금융시장지원 패키지와 함께 2008년 하반기에 두 차례, 실물경제 지원조치를 발표하였다.

□ 1 차 실물 경제 지원 조치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실물 부문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2008년 10월 22일 각료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물 경제 지원 조치를 발표하였는데, 동 조치는 2009년, 2010년 2년 동안 매년 평균 1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예산(1억 500만 유로), 대출(4억 유로), 지급보증(5억 유로)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 동 지원 조치에는, AWS(Austria Wirtschaftsservice)를 통한 지급보증, 유럽 투자은행(EIB), ERP 펀드, 독일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등을 통한 장기저리 대출, 철도/통신 등 사회 인프라 확충 지원금 등 이외에 정부 지원 대상 주택마련저축 연간 한도 확대(연 1천 유로 → 1천 2백 유로)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실물경제 지원 조치 요약(2009년)

(단위 : 백만유로)

분야	종류 및 대상	정부예산	대출	지급보증
투자촉진/중소기업지원	성장프로젝트	40		
	중소기업지원(EIB)		100	
	장기저리대출(ERP 펀드)		200	
	AWS 지급보증 확대			400
국제화 프로젝트		25		
EIB 대출(R&D 프로젝트)			100	
환경 분야	KfW 대출(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증진 프로젝트)		100	
주택마련저축 정부지원 확대		20		
인프라 확충	ÖBB(국영철도회사)	10		
	통신	10		
계		105	500	400

자료 : 오스트리아 경제노동부(BMWA)

□ 2 차 실물 경제 지원 조치

2008년 12월 23일 오스트리아 정부는 2차 실물 경제 지원 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이번 조치는 사회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형 SOC 사업 등 사회 인프라 구축에 8억 7500만 유로가 투자될 계획이고, 주택 및 건물의 단열 및 난방설비 개선에 1억 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기회확대에 1억 5천만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 기업의 R&D활동지원에 1억 유로, 기업의 이동가능한유형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세제 개혁과 관련하여 5억 7천만 유로가 배정되었다.

다. 정보조사 자료원

1) 서적/신문/잡지

- 오스트리아 중앙통계청 발간 통계연감 2009
-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자료, FDI Book
- 오스트리아 일간지: The Standard, Die Presse, Wirtschaftblatt
- 오스트리아 전문 주간 잡지: Profil, Format
- 오스트리아 전문 월간 잡지: E&W, Auto & Wirtschaft, Trend, Gewinn

2) 정부 부처 홈페이지

- 총리실 <http://www.bka.gv.at>
- 외무부 <http://www.bmaa.gv.at>
- 경제노동부 <http://www.bmwa.gv.at>
- 보건사회복지부 <http://www.bmsg.gv.at>
- 재무부 <http://www.bmf.gv.at>
- 내무부 <http://www.bmi.gv.at>
- 교통기술부 <http://www.bmvit.gv.at>
- 법무부 <http://www.bmj.gv.at>
- 국방부 <http://www.bmlv.gv.at>
- 농림환경수력부 <http://www.lebensministerium.at>
- 교육과학문화부 <http://www.bmbwk.gv.at>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 <http://wko.at>
- 비엔나 지방상공회의소 <http://wko.at/wien>
- 오스트리아 노총 <http://www.oegb.or.at>
- 오스트리아 관광공사 <http://www.austria-tourism.at>
- 오스트리아 비즈니스 에이전시(ABA) <http://www.aba.gv.at>

3) 기타 통계자료

- 오스트리아 중앙통계청 <http://www.statistik.at>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http://www.oenb.at>
- 기업명부 데이터 뱅크 <http://www.compnet.at>
- 전시회 및 박람회 <http://www.messe.at>
- 환경기술 정보 사이트 <http://www.umwelttechnik.at>
- Wifo 경제연구소 <http://www.wifo.at>
- EU 무역 통계 사이트 Eurostat

(자료: 오스트리아 통계청,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 발행 “Monatsberichte” 2009년 7월호,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ABA, 빈 KBC 보유자료종합(2009년 9월))

2. 주요 산업 동향

가. 산업 구조의 특징

오스트리아의 산업별 GDP 비율을 살펴보면, 도소매, 금융보험, 부동산 등 서비스업이 67.2%, 에너지, 건설 및 제조업 등의 2차 산업이 30.9%, 농·임업 등 1차 산업이 1.9%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체 시장 규모가 작고 인건비 수준이 높은 이유 등으로 인해 소비재 가전 등 경공업 분야의 비중은 매우 작지만, 철강,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은 매우 강하다.

주요 산업별 성장률 및 GDP 내 비중

(단위: Euro억, %)

구분	2006		2007		2008		GDP내 비중(2008년)
	규모	증감(%)	규모	증감(%)	규모	증감(%)	
농임업	38.5	+9.2	43.5	+13.0	47.8	+9.9	1.9
광업	10.8	+17.1	11.1	+2.8	12.9	+16.2	0.5
제조업	468.2	+8.4	494.0	+5.5	517.0	+4.7	20.3
에너지/상수도	63.6	+14.8	70.8	+11.3	77.3	+9.2	3.0
건설업	160.8	+7.8	173.5	+7.9	182.1	+5.0	7.1
도소매유통업	289.5	+3.7	302.6	+4.5	317.9	+5.1	12.4
숙박업	106.5	+4.8	109.2	+2.5	117.2	+7.3	4.6
교통/통신업	146.9	+1.5	155.2	+5.9	162.4	+4.6	6.3
금융보험업	126.1	+11.8	131.6	+4.4	128.9	-2.1	5.0
부동산업	436.2	+3.2	461.0	+5.7	477.3	+3.5	18.7
공공 부문	134.6	+4.2	137.4	+2.1	140.3	+2.1	5.5
기타 서비스업	347.3	+4.2	362.0	+4.2	375.6	+3.8	14.7
계	2,329.0	+5.6	2,452.0	+5.3	2,556.7	+4.3	100.0

주: 경상 가격 기준으로 부가세, 정부 보조금 등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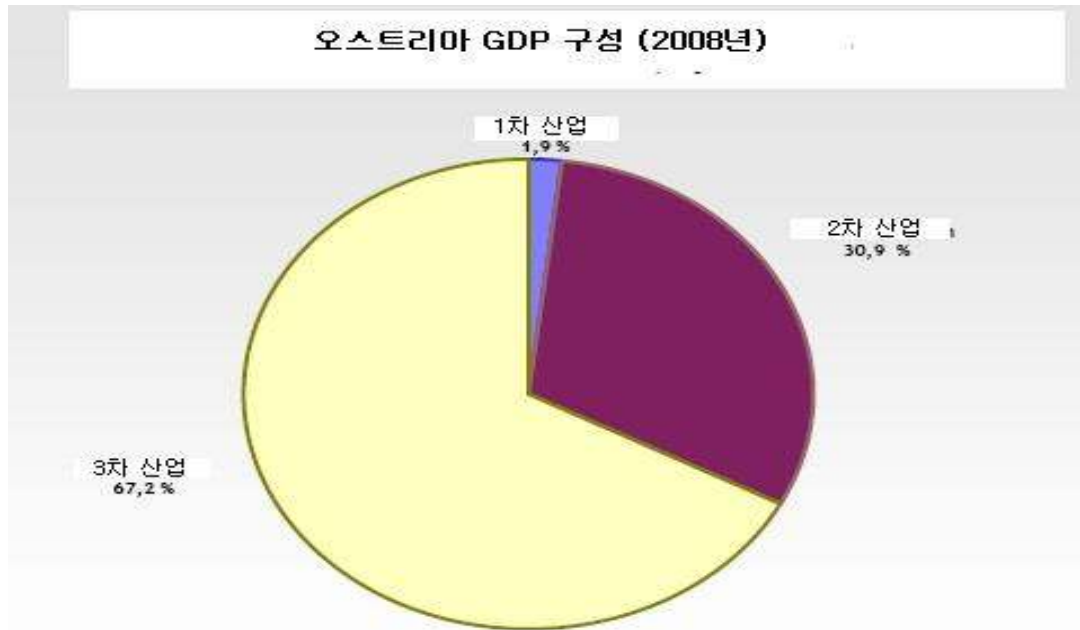
자료: 오스트리아 통계청, WKÖ

산업 분야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차산업	1.9	2.1	2.0	2.1	1.7	1.7	1.9	1.9
- 농·임업	1.9	2.1	2.0	2.1	1.7	1.7	1.9	1.9
2차산업	29.1	29.2	28.7	28.7	29.7	30.7	31.2	30.9
- 광업	0.3	0.3	0.3	0.3	0.4	0.5	0.5	0.5
- 제조업	18.7	19.4	19.5	19.3	19.4	19.9	20.2	20.3
- 에너지 및 상수도	2.3	2.7	2.0	2.0	2.3	2.6	2.6	3.0
- 건설업	7.8	6.8	6.9	6.9	7.6	7.7	7.9	7.1
3차산업	69.0	68.7	69.3	63.3	68.6	67.8	66.9	67.2
- 도소매 유통	11.9	11.9	11.9	11.5	12.8	12.6	12.3	12.4
- 숙박업	3.7	3.4	4.0	4.1	4.6	4.6	4.5	4.6
- 교통/통신	6.6	6.9	6.6	6.8	7.0	6.5	6.1	6.3
- 금융/보험업	5.9	6.4	6.2	6.1	5.4	5.5	5.5	5.0
- 부동산	14.6	14.4	15.9	16.2	18.0	17.9	18.3	18.7
- 기타 서비스업	12.8	13.1	12.9	13.3	15.0	15.0	14.7	14.7
- 기타(공공 부문)	13.5	12.6	11.8	5.4	5.8	5.7	5.6	5.5

자료: 오스트리아 통계청, WKÖ



자료 : 오스트리아 통계청, Wifo

1) 역사적 배경

나치 독일의 오스트리아 강점 당시 상당수의 유태계 기업이 몰수되어 친 나치 기업인에게 증여되거나 국유화되었는데 나치 독일 패망 후 친 나치 기업인들도 철수하여 대전 직후 오스트리아에는 약 5,000여 개의 주인 없는 기업이 있었다고 한다.

대전 직후 구성된 사회당/국민당 임시 정부는 소련이 전쟁 배상금 명목으로 나치 독일계 기업 시설을 몰수할 것임을 간파하고 이에대한 대응책으로 나치 독일계 대기업을 전격적으로 국유화하였다. 이러한 국유화정책에 따라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 분야의 대기업을 현재에도 국영 기업이거나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가 많다. 90년대 초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국영 기업의 민영화 정책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2) 중소기업

기계공업 및 첨단 산업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오스트리아 산업 구조는 국영 기업이 기간 산업 분야를 선도하면서 원료 및 반제품을 생산하여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형태로서 국가가 경제적 하부 구조를 기반으로 민영 기업을 간접 지원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오스트리아 국가 체제의 중핵인 사회 동반자 제도와 연관되어 있다.

3) 대기업과 국영 기업

국영 기업은 이제까지 고용 정책 측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비대한 경영 구조와 방만한 경영에 따른 실책의 누적으로 만성적인 적자 운영이 정치 문제화 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국영 기업의 대대적인 재편성과 민영화가 진행 중이다. 2009년 9월말 기준 오스트리아의 국영기업은 "오스트리아산업 관리주식회사"(OeIAG)를 모기업으로하는 Holding 형태의 국영 기업 그룹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계열사들의 민영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4) 선호되는 기업의 법적 형태

국영 및 민영 대기업은 주식 회사로 조직되어 있으며 중소 기업은 대부분 유한 회사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주식회사 설립이 까다로운 점과 전통적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 기인한다. 한국과는 달리 합명 회사 및 합자 회사는 법인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5) 산업의 특징

소비재 산업보다는 투자재 산업이 전통적으로 발달해 왔다. 이러한 결과로 전체 수입의 약 50%가 소비재이다(한국은 약 10~15%). 특히 기계 공업과 설비 산업, 환경 산업 등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이외에 광학기기, 유리산업 등이 유명하다.

오스트리아 대표 기업 “Red Bull”

유럽을 넘어 에너지링크업계 세계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2008년 기준 전세계에 37억개(매출액기준 32억 유로)의 캔을 판매하였다. 에너지링크 부문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유럽시장 이외에도, 1998년에 처음으로 진출한 미주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정착해 124억 유로의 브랜드 가치(2008년 기준, EBI 발표)를 지닌 유럽 브랜드 랭킹 12위의 오스트리아 최고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생산 공정과 물류는 모두 아웃소싱하고, 목표고객층에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독특한 경영전략이 주효했다고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마케팅 부문에만 연간 15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에너지 드링크라는 제품의 특성상 각종 스포츠 행사에의 스폰서링 이외에도 다수의 스포츠 클럽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현재 500개 이상의 스포츠 행사에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으며, 축구팀, 아이스하키 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1차 산업

1차 산업의 국내 총생산 기여도는 1950년대에는 15%에까지 이르렀으나, 1960년대 고도 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대에는 3% 이하로 하락하였다. 1995년 1월 1일부 EU 가입에 따른 EU산 저가 농산물의 오스트리아 시장 진출로 향후 농가 수 및 농임업의 GDP 비중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농임업이 GDP에서 차지한 비율은 불과 1.9%에 불과하며, 오스트리아는 내륙 국가로 어업 분야가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1) 농림 및 축산업

오스트리아는 내륙 국가임으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다. 국토 면적의 약 17%가 경작지이며, 25% 정도를 목초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임업과 목축업이 발달하였으며 제지업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

2) 임업/제지업

산림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46%로 386만 헥타르에 이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세계 6위의 침엽수 목재 수출국으로서 대부분(85%)이 EU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산림 보호는 지방 정부, 임업자협회 및 수렵단체 간에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진다. 지방정부는 임업자 협의회와 수렵단체의 조언을 얻어 산림보호관련 지방법률 및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세계 6위의 종이/판지 수출국으로서 세계 종이시장의 약 4%를 점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농축산물 마케팅 회사(AMA: Agramarket Marketing Austria)

1993년 설립된 농림부 산하 정부 투자 기관으로, 국내 시장에서 EU권 국가들의 저가 농산물 침투 저지는 물론 EU권에 대한 오스트리아 농축산물 수출 정책 추진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AMA의 주 업무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오스트리아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선전이며 둘째는 오스트리아 농축산물 품질 보증 마크인 AMA 마크(AMA Zeichen) 제도를 도입하여 오스트리아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AMA 마크 이외에 무공해 농산물 마크(Bio-Kontrollzeichen) 제도도 실시하고 있는데 무공해 농산물 생산농가로 등록된 농가에는 수시로 검사관이 파견되어 AMA가 제정한 무공해 농산물 재배 과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Mayr-Melnhof Karton AG

판지, 판지박스(Box)생산에서 세계 정상을 달리고 있는 오스트리아 회사이다. 同社は 18세기 후반, 현 대표 감사인 고에스 사우라우(Goess-Saurau)의 4대조 외조부가 설립한 회사로서 오스트리아 본사에 약 5000명(2008년 기준)의 종업원을 거느리면서 매년 약 10억 유로의 매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1999년 1월 이탈리아 최대의 판지 제조 회사 레노 디 메디치(Reno di Medici)를 합병하면서 매출 및 생산량 면에서 세계적인 판지 업체로 부상하였다.

다. 2차 산업

광업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GDP 기여도가 약 5%를 기록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 감소세를 보여 1986년에 0.7%, 1990년도에 0.6%, 2008년도에 0.50%로 집계되었다. 제조업의 비중도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8년 기준 국내 총생산에 대한 기여도가 20.3% 수준이다. 건설업 및 에너지 수급 산업의 GDP기여도는 각각 7.1%와 3.0%를 유지하고 있다.

1) 제조업 부문 개황

제조업은 전후 오스트리아 경제 복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1960년대 및 1970년대 고도 성장시기에 경제적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제조업 부문 고용인원은 1990년대에 들어 감소 추세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008년 기준 전체 고용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은 오스트리아 전역에 걸쳐 인구 밀집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빈과 인근의 Wiener Neustadt, Leoben과 Graz지역, Linz지역, 그리고 서부의 Innsbruck, Kufstein지역과 Vorarlberg주 등에 산업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2) 중화학 공업

동부 지역에는 주로 기계 공업, 화학 공업 및 전기 전자 제품이 발달되어 있으며, 서부 지역은 주로 석유 및 유리 공업이 발달해 왔다.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 등 중화학 공업 분야에는 국영 대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영 철강회사인 Voest-Alpine는 현재 세계 제철 공정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산소전로공법의 창시자이며 과거 포항 제철이 도입한 첨단의 전기로 공법인 Corex공법도 동 회사 작품이다. 자체 자동차 브랜드는 전륜구동 자동차 소규모 생산업체인 슈타이어-다임러-폭츠(Steyer-Daimler-Puch)밖에 없으나, 실제로는 벤츠(Benz), BMW, 크라이슬러 등 세계 유수 회사에 엔진, 구동 시스템 등을 비롯한 주요 부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다.

3) 광업

텅스텐, 철광, 갈탄 등이 채굴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암염과 석회, 마그네사이트 등이 생산되고 있다. 주요 채굴지는 오스트리아를 동서로 길게 관통하고 있는 알프스 산맥 지역이다. 동구권 개방 이후, CIS를 비롯한 동구 국가들과의 가격 경쟁 열세로 철광의 경우 국내 수요를 위해서만 채광할 뿐이며, 많은 광산들이 휴광 상태이다.

시멘트 산업도 발달하였는데 특수 시멘트의 일종인 내화 시멘트 생산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다.

오스트리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특수 시멘트인 내화 시멘트 및 내화 벽돌 등 내화 제품들이다. 내화 시멘트의 경우 세계 시장의 약 16%를 점유하여 점유율 1위에 있다. 주목할 만한 회사는 세계 내화 제품 시장에서 선두 주자인 오스트리아 파이취-라덱스-디들러(Veitsch-Radex Didier)이다. 동사는 세계 최대 내화 제품 생산 업체로 세계 시장의 9%를 석권하고 있다.

4) 일반 기계 산업

□ 현황

- 기계 공업 및 첨단 산업 분야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장악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기계 산업 분야 업체의 숫자는 2008년 말 기준으로 약 1,600개이며 피고용인의 숫자는 70,000명이었다. 총 매출액은 100억 유로를 기록하였는데,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70억 유로를 수출하였다.
- 오스트리아 일반 기계 및 기계 설비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EU권 국가들(동유럽 국가들 포함)로서 약 75%를 차지하였으며, 미국이 9%, 아시아권 국가들이 8% 그리고 EFTA 역내 국가들이 6%를 차지하였다.

□ 특성

- 오스트리아가 확고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기계 공업을 비롯한 Mid-Tech 분야는 현재는 Mid-Tech 분야와 High-Tech를 접목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예로서 특수 용접 분야의 전문회사가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를 시도하거나 자동차 전용 구동장치의 컴퓨터 제어 기술 개발 등이 있다. 예를 들어 IGM사의 경우, 자동차 생산용 용접 및 절단 로봇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

기술 협력 유망 분야

- 상술한 IGM의 경우 이미 한국에 진출해 있으며 성형 사출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지닌 ENGEL도 한국에 현지 공장을 건설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기계 분야 다방면에 첨단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향후 기계 분야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회사들과 협력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세계 기중기 시장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는 팔핑어(Palfinger)도 협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동 사는 1932년 건립된 회사로서 2006년 말 기준, 독일 3개, 슬로베니아 및 캐나다에 각각 1개씩의 현지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및 프랑스 회사의 일부 주식도 소유하고 있다.

5) 석유화학 산업

□ 원유/천연가스 산업

- 오스트리아에는 서유럽 국가 중에는 드물게 산유국이다. 물론 매장량이 그리 큰 것도 아니며 자체 소비량의 약 12% 정도를 충당할 뿐이지만 여기서 터득한 시추 기술을 이용해 중동 산유 국가 및 아시아 지역에 진출해 있다. 화학 산업은 전통적으로 발달해 있는데 독일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2009년 9월 현재까지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된 원유의 총 매장량은 3억1천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7년(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통계 연도)까지 1억7천 6백만 톤 정도를 채굴하였다. 현재의 시추 방법으로 매년 약 1백만 톤을 채굴하여 연간 국내 원유 수요의 약 12%를 자체 조달하고 있다. 나머지 수요는 주로 중동 국가에서 수입한 원유로 충당된다. 한편 오스트리아에서 생산되는 천연 가스는 매년 약 18억 평방미터로 전체 국내수요의 20% 정도를 자체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러시아산으로서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공급된다.

오스트리아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실적 추이

	1980	1990	2000	2004	2006	2007
원유(천 톤)	1,475	1,149	1,056	982	856	854
천연가스(백만m3)	1,903	1,288	1,805	2,011	1,765	1,835

자료: 오스트리아 통계청

□ 화학/고무/플라스틱산업 현황 및 특성

- 화학산업의 경우, 2008년 말 기준으로 약 350개의 업체가 존재하며 총 피고용 인원 숫자는 28,000 여 명이었다. 당해 연도 총 매출액은 약 70억 유로였는데 이 중 약 64%에 해당하는 45억 유로가 수출되었다. 화학제품 수입액은 50억 유로였는데 주로 독일, 스위스 제품이었다.

Novophalt

아스팔트는 시공이 간단하고 단가가 싼 반면 온도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좋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학창시절부터 연구해온 릭하르트 펠징어(Richard Felsinger)는 대학 졸업 후 조부 때부터 운영해온 도로포장 전문 건설 회사의 연구진에 참여하여 아스팔트 고착제를 활용한 아스팔트의 온도 적응성 강화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였고, 1970년대 말 드디어 특수고착제 개발 및 혼합에 성공하고 이 제품을 노보팔트 (Novophalt)라고 명명하였다. 노보팔트의 기술의 장점을 종합해 보면 온도 변화에 대한 아스팔트의 적응능력 향상 그리고 접착성 및 장력강화이며, 이러한 장점은 결과적으로 도로의 수명연장 및 보수율 극소화로 연결되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도로보수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을 예방하고 도로보수비를 절감시켜 도로포장비용의 효용가치를 높여 준다.

6) 철강/금속산업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으로 철강/금속산업이 발달해온 국가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용광로 중 70% 이상이 오스트리아의 뢰스트알피네(Voest Alpine)가 개발한 산소 전로 공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수강 및 특수강 구조물 제조에도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 제철/금속제조업
 -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약 180개 제철/금속생산업체가 존재하며 총 32,0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다. 총 매출액은 72억 유로이며 이 중 약 60%가 수출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독일을 필두로 한 EU권 국가이다. 수입품은 주로 저가의 동유럽 제품인데 2008년 기준으로 35억 유로가 수입된 것으로 집계 되었다.
- 금속 가공업
 - 2008년 말 기준으로 약 3,300개의 업체가 존재하며 피고용인의 숫자는 65,000명이다. 총 매출액은 65억 유로로 집계되었는데 이중 약 45%가 수출되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제철/금속 제품과 마찬가지로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권 국가이다. 금속 가공 제품의 총수입액은 25억유로로 집계되었는데 주로 독일, 프랑스에서 수입되었다.

기술 협력 유망 업체

- 뵐러/우도홀름(Böhler- Uddeholm): 다른 회사들이 시장이 작다는 이유로 등한시 해 온 공구용 강철, 절단선, 합금강판, 압연된 터빈셔블(Turbinshovel) 등 틈새 금속제품 생산과 개발에 주력해온 전형적인 틈새 시장 공략 회사이다.
- 뢰스트알피네(Voest-Alpine): 포항제철이 설립될 당시 최초로 제철 기술을 이전해 준 회사로 산소전로공법을 개발한 이후 최첨단 제철 기술을 개발해내고 있는 세계적인 제철 기술 개발 회사이다. 근년에는 전기로 공법 중 최첨단인 코렉스(Corex) 공법을 포항제철에 이전해 주었다.

7) 자동차 산업

오스트리아 자동차 산업 중 중요한 부문은 완성차의 생산/어셈블링(Assembling) 분야 보다는 부품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오스트리아는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유 하면서 엔진을 비롯한 중요 부품을 독일계 자동차 회사에 상당량 수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생산 대수는 2008년 말을 기준으로 20여 만 대로 미미한 편이며, 전체 근로자의 약 1%에 해당하는 약 36,000여 명이 250여 개의 관련 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생산액은 총 65억 유로 규모이며 대부분이 수출되고 있다.

2008년의 오스트리아 승용차 생산 수량은 약 20만 대였다. 총 생산 대수의 97%가 수출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오스트리아산 승용차 중 국내용으로 판매된 승용차는 6,000대에 불과하다.

상용차의 경우, 2008년도에 15,000대가 생산되었는데, 이 물량은 전년과 비슷한 것이다. 대부분 화물 트럭이었으며 버스는 65대(조립 생산)에 불과하다. 총 상용차 생산 대수의 약 55%가 적재량 12톤에서 20톤의 중대형 화물 트럭이었다.

클러스터(Cluster)

오스트리아의 독특한 자동차 부품 연관 기업 집단으로 산업 정책 전문가인 클레멘트(Clement) 박사에 따르면 연관 기업 집단(Cluster) 형성이란 특정 산업 부문에 연관된 중소기업끼리 자원 조달, R&D 부문, 그리고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공조 체제를 형성하여 풀세트(Full Set) 방식의 생산 구조를 창출해 냄으로써 개별적 중소기업이 침투하기 어려운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집단 형성의 이점은 중소기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실제적으로는 대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는 크기를 지니는데 있으며, 이밖에 하청업체들이 연계되어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대기업에서 개별적인 하청 업체들처럼 간단히 하청선을 바꾸기 어렵다는 데 있다.

오스트리아 자동차 부문 연관 기업 집단의 선도 기업인 오스트리아의 슈타이어마르크(Steiermark)주에 위치하는 AVL사와 SDP사이다. 엔진 생산에 경험이 있는 SDP사는 AVL사와 합작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 자동차 엔진의 연구개발을 시도하면서 연관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 기업들을 끌어들여 공조 체제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 지원 아래 여타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와도 연계를 시작하였다.

오스트리아 정부의 자동차 산업 구제안

2009년 1월 8일 오스트리아 정부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산업 지원 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 단축 근무 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 단축 근무 인력의 임금 보전금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상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 ~ 18개월로 확대.
- 직업교육기회 확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잉여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관련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가시킴으로써, 실업방지 및 보다 전문화된 인력양성목적. 연 35백만유로 배정.
- 정부보증 및 지원금 확대: 오스트리아 국영진흥 은행인 오스트리아 경제서비스(AWS)를 통한 기업의 투자 및 운영자금에 대한 정부보증 및 지원금 규모 확대(29억 유로 → 52억 유로)

- R&D 지원: 자동차 부문 R&D 지원에 추가로 33백만 유로의 예산 배정.
- 폐차 지원금: 13년이상 된 차량의 소유자가 신규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당 1500 유로의 폐차 지원금 지급.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선착순 3만 대까지 지원 예정.
- Task Force 팀 구성: 정재계 전문 인사로 이루어진 TF 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협의 및 협력을 통해 현 정책의 추진 상황을 꾸준히 검토하고 신규 조치의 필요성 등을 논의.

전기 자동차 시장

오스트리아 전력업 협회(Verbund), Siemens Österreich, Magna, KTM, AVL List, AIT(Austrian Institute of Technology) 등 자동차 관련 6개 기관은 2009년 7월 22일 전기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통합 플랫폼인 “Austrian Mobile Power(www.austrian-mobile-power.at)”를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기로 발표하였다. 同 플랫폼의 목표는 2020년까지 최소 10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오스트리아에 보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개별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분야의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최대 50억 유로의 투자가 예상되는 동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순차적 단계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 ① 2010년부터 선별된 대도시 및 주변 지역들을 대상으로 100대의 전기 자동차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 ② 2012년부터 시범 운영 자동차 수를 1000대로 늘리는 동시에, 이러한 차량의 시범 주행 및 운영과 병행하여 필요한 인프라 구축(차량 전기 충전소 및 관련 정산 시스템 구축 등)도 동시에 진행함.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운행 차량 확보를 위해 초기에는 주력 보급 대상을 기업의 영업용 차량 및 택시 등 일반 수요자가 아닌 “영업용 수요”에 집중한다.
- ③ 2013년부터 양산된 전기 자동차를 판매 또는 리스 형식을 통해 일반 수요자들에게도 공급함. 이와 동시에 몇 개의 모델 지역을 선정하여 차량 1만 대를 소위 “Roll-Out”하는 등의 적극적 시장 확대 노력을 기울여 2020년까지 최소 10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오스트리아 내에 보급한다.

총 예상 투자 금액이 5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가운데 전기 자동차의 양산 라인 구축에 40억 유로, 전기 충전소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2억 유로, 전기 자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추가 전력 생산에 4억 유로, 전기 자동차와 관련한 R&D 및 기술 개발에 5000만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Verbund가 同 플랫폼의 총괄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가운데, 개별 플랫폼 참가업체들은 자신들의 노하우 및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특히 관련 제품의 개발 및 제작 경험이 있는 Magna(e-Mila), KTM(E-Bike) 등의 노하우 및 기술 개발 경험이 同 플랫폼의 성공적 수행에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① Verbund : 플랫폼의 잠재적 새 파트너 발굴, 모델 지역 선정 및 시범 프로젝트를 위한 관련 인프라 및 파이낸싱 등 제반 관리 활동. 전기 차량용 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추가 전력원의 확충 및 이를 친환경 재생 에너지(특히 수력 발전)로 조달하기 위한 제반 활동
- ② Siemens Österreich : 전기 모터, 배터리 충전소 및 관련 정산 시스템 개발
- ③ Magna : 전기 자동차 차량 특히 고객 친화적인 디자인 및 설계
- ④ KTM : 전기 오토바이 분야 이외에 특히 차체 경량화 부문에 집중
- ⑤ AVL List : 차량 배터리의 최적화,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구동 장치 개발
- ⑥ AIT : 전기 자동차 부문의 다양한 R&D 활동 및 컨설팅 서비스

라. 3차 산업

3차 산업은 2008년 기준 오스트리아 총 GDP의 67.2%(공공 부문 포함)를 차지하였다. 오스트리아 재계에서는 3차 산업 중 특히 금융 및 환경 분야를 미래 산업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금융 기관들의 현지 투자를 통한 동구권 진출이 활발하다.

1) 금융업

□ 현황

- 대형 은행 61사가 총 800개 지점을 운영 하고 있다. 또한 각 주 별로 지당은행(Landeshypo thekenbank)이 있으며, 대부분 각 지방자치 단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신용 금고 (Sparkasse) 도 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 농업 부문의 조합 은행으로 Raiffeisenkasse가 있으며, 중소기업 부문의 조합 은행으로는 Volksbank 등이 있다. 중소 기업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신용 금고들은 70개사에 이르며 이들은 약 1,40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 이 밖에 채신청의 Oesterreichische Postsparkasse는 국영 은행으로서, 오스트리아 전역에 퍼져 있는 약 2,300개소의 우체국이 은행 창구의 역할을 한다.
- 보험 부문에서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있는 사회보험 회사가 있으며, 이들 사회보험 회사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을 취급한다. 사(私)보험 회사로는 2008년 말 기준, 50개의 오스트리아 보험회사와 12개의 외국 보험회사 지사가 있다.

□ 특성

- 오스트리아 정부 및 연방상공회의소에서는 금융산업을 환경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의 하나로 지정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동유럽권에 대한 진출이 활발하다. 동유럽권에 대한 진출은 개방 이전부터 소규모로 진행되다가 개방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동유럽에 진출해 있는 오스트리아 은행은 오스트리아 은행(Bank Austria, 민영)의 자회사인 CA은행 산하 CA International, 농협계 은행인 RZB 그리고 오스트리아 제일은행(Erste Bank) 등 3개 은행이다.
- 2008년 말 기준으로, 동 3개 은행은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에 총 550여 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약 1만 5,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2) 환경산업

□ 현황

- 오스트리아 환경 산업은 금융 산업 부문과 함께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분류될 만큼 그 중요성 및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과거 통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오스트리아 환경 산업 분야는 연평균 5~10%대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여 오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 전체 제조업 부문의 평균 성장률이 3~5%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 산업의 성장 속도 및 잠재력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인 Roland Berger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그린/재생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오스트리아 환경 산업은 총 65억 유로(생산액 기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30% 정도가 오스트리아 국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EU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을 정도로 오스트리아 환경 산업은 전형적인 수출 산업이다.
- 同 자료에 따르면,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정부 및 학재계의 다양한 노력 등이 맞물려 오스트리아 환경 산업은 2020년까지 165억 유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2008년 말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환경 산업 및 지역별 수출 추이

(단위 : 억 유로, %)

구분		2008년	2020년*	증감(%)
오스트리아		18	39	+ 117
수출	EU 15개국	21	59	+ 181
	新 EU 국가들	4	9	+ 125
	미국	4	12	+ 200
	아시아	10	26	+ 160
	BRICs	2	7	+ 250
	기타	6	13	+ 117
계		65	165	+ 154

주: 2020년은 전망치

자료: Roland Berger

- 오스트리아 환경 산업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폐기물 처리, 폐수 처리 등의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2000년대 들어 태양열 난방, 태양광 발전, 열 펌프, 수력 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발전 등 친환경 재생 에너지(녹색 에너지)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 녹색 에너지 부문

- 오스트리아 재생 에너지 부문 중 풍력, 태양광, 목재 등을 이용한 친환경 발전 부문(수력 제외)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 오스트리아 에너지 시장 감독 기관인 E-Control에 의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연간 6000~7000 GWh의 전력이 친환경 발전을 통해 생산 공급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7.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오스트리아 친환경 발전 분야는 소형 수력 발전, 풍력 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등 세 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친환경 전력 생산량의 90% 이상이 이들로부터 얻어지고 있다. 2~3년 전부터 태양열 및 쓰레기 소각(Fernwärme)을 이용한 방식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나, 이들은 전력 생산보다는 난방 및 온수 공급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 태양광 발전 분야는 관계 법령 등의 미비 등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태양열 난방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발전이 더딘 것으로 평가받아 왔는데, 최근 “Haus der Zukunft Plus” 등 정부의 적극적인 관련 R&D 지원 정책에 힘입어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1차로 1천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된 同 프로그램은 “Plus-Energie-Haus” 관련 기술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의 개인용 태양광 발전이 해당 주택 또는 건물의 전력 수요 충족에 머물렀던 데 반해 Plus-Energie-Haus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인근 주택 및 건물들에게까지 공급하는 “소규모 지역 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삼고 있다.

- 이 밖에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정부가 2008년 말 두 차례에 걸쳐 발효한 실물 경제 지원 조치에도 재생 에너지 및 환경 산업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 분야의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증진 프로젝트 지원에 연간 1억 유로, 주택 및 건물의 난방 및 단열 설비 개선에 1억 유로 등이 책정되어 있는 등 오스트리아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 관련 산업 진흥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 기술 협력 방안

- 세계적 수준인 오스트리아의 환경 기술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기술 이전이 수월한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직접 기술 구입도 가능하다.
- 오스트리아에서 환경 관련 연구 기관으로서 가장 큰 것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근교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중앙연구소 자이버스도어프(Austrian Research Centre Seibersdorf)이다. 동 연구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환경 관련 기술에 대한 데이터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연방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환경 기술 관련 제품과 그 생산자를 찾을 수 있다.
- 자이버스도어프의 환경기술데이터뱅크: www.umwelttechnik.at

(자료: 오스트리아 통계청, WKÖ, Wifo, 관련협회 홈페이지 및 빈 KBC 보유 자료 종합)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오스트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단독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EU 집행위가 EU의 27개 회원국으로부터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지역무역협정 협상권을 위임 받아 제 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내용은 EU 27개국 모두에 적용된다.

가. EU의 FTA 정책

EU는 전통적으로 FTA 협상에서 ‘지역 대 지역’ 협상을 선호해왔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개별국과의 양자간 협정보다는 지역통합체와의 ‘지역 대 지역 협정’ 체결에 더 중점을 두어왔다. 또한 상호주의에 의거한 FTA 보다는 일방적인 호혜적 특혜협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하여 EU의 FTA 정책 방향이 크게 변경되어 ‘지역 대 지역 협정’ 이외에 개별국과의 FTA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FTA 체결 동기도 정치적 동기와 함께 상업적 동기도 고려하면서 상호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전까지는 EU가 인근 국가의 정치, 경제적 안정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EU의 안보를 모색하는 ‘정치적, 외교적동기’에 의거하여 인근국과의 FTA를 추진해왔으나 1999년부터는 이와 함께 신흥성장 시장을 대상으로 원래 의미, 즉 상업적 의미의 FTA도 병행 추진함을 의미한다.

나. EU의 FTA의 주요 특징

EU는 안보, 외교, 미국 견제 등의 다양한 동기들이 복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형태도 FTA, 경제협력 협정, 안정화 협정, 무역개발 협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자국 FTA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과 달리 단일한 롤모델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체결한 FTA 별로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다만 WTO(세계무역기구)로부터 지역 무역 협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가능한 한 FTA에서 양측상품 무역의 90% 이상의 관세 철폐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과의 협상에서는 이를 고수하고 있지는 않다.

EU는 지난 2006년 10월 ‘신통상 정책’을 선언하면서 FTA 우선 추진대상국으로 한국, 인도, ASEAN, 러시아, MERCOSUR, GCC를 선정한 바 있으며, 한국과는 2007년 5월 6일 한-EU FTA 협상이 공식 출범이 선언된 이후 8차례에 걸친 협상을 거쳐 2009년 7월 13일 한-EU FTA 협상이 종결되었다. 한국과 EU 사이의 FTA는 2009년 10월 중순께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서명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2010년 1/4분기 중 정식 서명될 예정이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2009년 6월까지의 실적을 종합해 볼 때, 그 동안 홀로 오스트리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 해왔던 수출 시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그 성장 동력이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보이다가 2009년 들어서는 감소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임에 따라 그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과 아울러 내수 시장의 빠른 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무역 수지 흑자 전환에 성공했던 오스트리아 수출입 시장은 2008년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 부분의 증가세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오스트리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 기준 오스트리아의 총 수출액은 458억 유로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5% 감소한 수치로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스트리아 무역통계 총괄표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6	103,742	9.5	104,201	8.0	-459
2007	114,680	10.5	114,255	9.6	425
2008	117,330	2.3	119,128	4.3	-1,798
2009년 6월*	45,849	-24.5	47,740	-21.2	-1,891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Statistik Austria (2009년 9월 11일)

주요 수출 대상국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국가	연 도			점유율(%)			증가율(%)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08/07
	총계	103,742	114,680	117,330	100	100	100	2.3
1	독일	31,951	34,676	35,255	29.34	29.04	28.65	1.7
2	이탈리아	9,192	9,589	9,432	8.44	8.03	7.67	-1.6
3	미국	6,227	5,743	5,165	5.72	4.81	4.20	-10.1
4	체코	3,379	4,019	4,773	3.10	3.37	3.88	18.7
5	스위스	4,567	4,580	4,548	4.19	3.84	3.70	-0.7
6	헝가리	3,641	3,933	4,425	3.34	3.30	3.60	12.5
7	프랑스	3,912	4,086	4,311	3.59	3.42	3.50	5.5
8	영국	3,979	4,046	3,715	3.65	3.39	3.02	-8.2
9	폴란드	2,426	2,833	3,381	2.23	2.37	2.75	19.4
10	러시아	2,466	2,830	3,349	2.26	2.37	2.72	18.3

자료: Eurostat (2009년 9월 11일)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국가	연 도			점유율(%)			증가율(%)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08/07
	총계	104,201	114,255	119,128	100	100	100	4.3
1	독일	48,957	53,423	54,634	44.80	44.91	43.80	2.3
2	이탈리아	7,454	8,265	8,628	6.82	6.95	6.92	4.4
3	스위스	4,551	5,248	6,165	4.16	4.41	4.94	17.5
4	네덜란드	4,365	4,912	4,963	4.00	4.13	3.98	1.1
5	체코	3,289	3,630	4,243	3.01	3.05	3.40	16.9
6	프랑스	3,446	3,660	3,734	3.15	3.08	2.99	2.0
7	헝가리	2,674	2,818	3,220	2.45	2.37	2.58	14.3
8	중국	2,475	2,315	3,119	2.27	1.95	2.50	34.7
9	벨기에	2,545	2,567	2,554	2.33	2.16	2.05	-0.5
10	슬로바키아	1,691	2,188	2,479	1.55	1.84	1.99	13.3

자료: Eurostat (2009년 9월 11일)

□ 수출

- 오스트리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다. 비록 오스트리아 자체의 자동차 생산 업체는 없으나, BMW, Chrysler 등의 주문을 받아 완성차를 조립 생산하는 Magna Steyr의 존재 및 잘 정비된 자동차 클러스터의 영향으로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은 실질적으로 오스트리아 수출을 이끌어 가는 분야로 자리 매김 하였다.
- 오스트리아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이웃 나라 독일로 30%가 넘는 수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나타난 변화는 서유럽 국가들로의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동유럽 국가들로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는 오스트리아의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이 성공한 결과이다.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유로,%)

순위	품목	연 도			증가율(%)
		2006	2007	2008	08/07
	총계	103,742	114,680	117,330	2.3
1	승용차	7,021	6,333	4,634	-26.8
2	차량부속품	3,043	3,306	3,292	-0.4
3	의약품	2,756	2,757	2,871	4.1
4	물(탄산수, 광천수 포함)	1,737	1,766	1,640	-7.2
5	화물자동차	1,272	1,547	1,631	5.4
6	가솔린 엔진	1,441	1,767	1,595	-9.7
7	전화기 및 음성송수신기	333	255	1,580	519.9
8	피, 면역혈청	977	1,286	1,546	20.2
9	석유/역청유(원유 제외)	831	1,088	1,518	39.6
10	디젤/세미 디젤 엔진	1,376	1,637	1,379	-15.8

자료: Eurostat (2009년 9월 11일)

□ 수입

- 승용차 및 차량 부속품, 석유 및 에너지 자원 등이 주요 수입 품목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컴퓨터, 핸드폰 등 IT 관련 제품 및 의약품의 수입도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독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가운데, 서유럽 선진 국들로부터의 수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동유럽 국가들 및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유로,%)

순위	품목	연 도			증가율(%)
		2006	2007	2008	08/07
	총계	104,201	114,255	119,128	4.3
1	승용차	5,430	5,914	5,924	0.2
2	석유/역청유(원유 제외)	4,239	3,963	4,781	20.7
3	석유/역청유(원유에 한함)	2,987	3,053	4,095	34.1
4	차량부속품	4,217	3,879	3,412	-12.0
5	의약품	2,074	2,294	2,452	6.9
6	석유가스/기타탄화수소	2,442	1,719	2,297	33.7
7	전화기 및 음성송수신기	376	1,101	1,760	59.8
8	컴퓨터	1,715	1,463	1,701	16.2
9	엔진부속품	1,422	1,682	1,552	-7.7
10	금	147	494	1,413	186.0

자료: Eurostat (2009년 9월 11일)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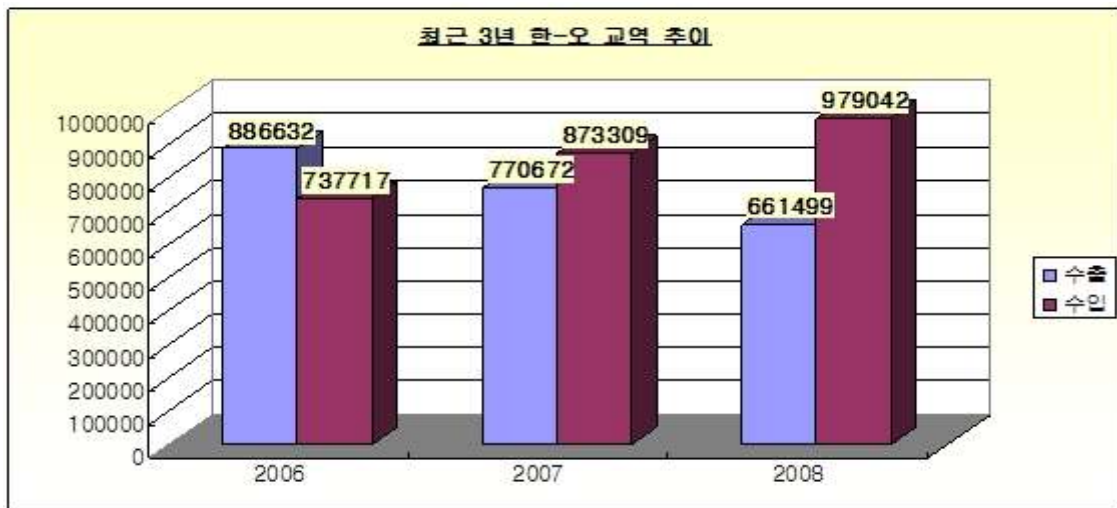
한국과 오스트리아 양국 간의 교역량은 2000년대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오다가 2005년 교역 규모 16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2006년부터 정체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체세에는 수출의 부진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6년 이후 최근 3년 연속 수출 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 들어서도 그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9년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對 오스트리아 무역통계 총괄표

(단위: 천 불, %)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6	886,632	-8.6	737,717	14.4	148,915
2007	770,672	-13.1	873,309	18.4	-102,637
2008	661,499	-14.2	979,042	12.1	-317,543
2009년 7월*	321,293	-19.1	460,793	-19.1	-139,500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MTI 4단위 기준
자료: KOTIS(www.kita.net) (2009년 9월 11일)



1) 주요 수출 품목

2006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대 오스트리아 수출 감소, 수입 증가” 추세가 유로화에 대한 원화의 평가 절하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강화가 수출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는 점에서 최근의 수출 부진은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대 오스트리아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승용차, 핸드폰 등 그 동안 주력 수출 품목으로 활약해 왔던 제품들의 부진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제품 오스트리아 시장의 전체적인 정체(2008년 기준 오스트리아 신차 시장 0.7% 감소, 핸드폰 시장 2~3% 감소) 등의 구조적인 요인과 맞물려 동 추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대 오스트리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천 불)

순위	품목명	2008		2009(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61,499	-14.2	321,293	-19.1
1	평판디스플레이	143,299	-35.1	58,241	-11.3
2	승용차	108,401	-45.0	44,018	-42.0
3	무선전화기	84,716	-9.9	43,535	-4.4
4	집적회로반도체	21,596	86.0	31,737	190.4
5	무선통신기기부품	8,159	69.7	25,958	453.1
6	광학기기부품	31,996	32,222.9	22,079	41.2
7	칼라TV	9,891	27.8	11,191	246.8
8	타이어	20,144	-24.4	9,809	-18.0
9	축전지	17,541	9.9	6,976	-53.2
10	타이어코드	13,264	25.2	5,777	-36.1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MTI 4단위 기준

자료: KOTIS(www.kita.net) (2009년 9월 11일)

2) 주요 수입 품목

대 오스트리아 수입 시장의 경우 비스코스 섬유 및 기계류, 육류 등이 수입 규모의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비스코스 섬유, 삼겹살 등의 수입 규모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오스트리아 업체와 한국 업체간의 특허권 분쟁 소송으로 인해 2007년부터 그 수입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 들어 이례적으로 도금강판의 수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대 오스트리아 주요 수입 품목

(단위: 천 불)

순위	품목명	2008		2009(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979,042	12.1	460,793	-15.3
1	비스코스섬유	58,915	14.0	39,614	19.5
2	가축육류	63,151	20.1	29,720	-16.5
3	집적회로반도체	67,580	12.4	28,537	-35.8
4	금속절삭가공기계	12,735	1,725.5	27,380	405.2
5	주조설비	48,312	133.7	23,401	105.7
6	철도차량	-	-	17,435	-
7	도금강판	7,632	-29.8	16,831	1,098.8
8	의약품	25,676	6.6	16,122	15.1
9	유리공예품	35,689	-13.3	14,821	-38.5
10	승용차	40,210	-35.2	11,400	-55.3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MTI 4단위 기준

자료: KOTIS(www.kita.net) (2009년 9월 11일)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규제조치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 를 통해 취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의 27개국 모두가 동일하게 취해지고 있다.

□ 반덤핑 관세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 규제 조치이다.

EU 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사실의 존재: 해당 수출국(제 3 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전반적 이익 :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접수일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 관세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 즉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상계 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수출 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지급 사실 존재
-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 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 연합의 전반적 이익: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 세이프가드 조치

비록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외적으로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가 일어나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 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일일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나. 수입 쿼터 제도

현재 EU는 공산품에 대해 수입 쿼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 기타 교역관련 규정

수산물이나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위생 및 인체 건강 보호를 이유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조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품목 역시 EU 관보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군사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기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역시 제한하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09년 9월 20일 기준, EU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제품은 다음과 같은 5개 품목이다.

구분	조치 유형	대상 품목
규제 중	반덤핑 관세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PET칩, 양문형 냉장고, 실리콘(우회 덤핑 관세), 철강제 관연결구류

5. 관세제도

가. 개요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 부과금 (Import Levy)을 부여한다.

한편, EU는 일년에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 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나. 통관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 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오스트리아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되고 있다.

3) 관세 부과 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가액 산정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통관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일반 제품에 20%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4)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도국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76개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GSP 제도는 세가지(표준 GSP, 최빈국에 대한 무세 혜택, GSP+)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준 GSP 제도는 176개 수혜대상국을 대상으로 약 6,400개 품목에 대해 제공되는 일반 GSP 제도이며, GSP+ 제도는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노동권 보호를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이며, 최빈국에 대한 GSP 제도는 역시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50개 최빈국에 대해 무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행 EU의 GSP 제도는 2009년부터 2011년간 3년 동안 적용되고 있다.

6. 주요인증제도

가. CE 마킹 제도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73/23/E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92/42/EEC
가전 냉장·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96/57/EC(에너지효율지침)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98/37/EC
선박(Marine Equipment)	96/98/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Toys)	88/378/EEC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96/48/EC, 2001/16/EC

자료: www.ce-marking.org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 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 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09년 9월말 기준 19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8개 제품군에 대해 기준 제·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많은 품목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 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제정된 품목도 계속해서 기준수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기준 기재정 품목: 다목적 세제 및 위생 시설 세척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씻기용 세제, 세탁용 세제, 비누와 샴푸, 식기 세척기, 전구, PC, 휴대용 컴퓨터, 냉장고, TV, 진공 청소기, 세탁기, 복사용지, 토양개선제, 신발, 관광사이트서비스, 관광시설 서비스, 형광등
- 기준 제·개정 추진 품목: 히트펌프, 인쇄물, 목재 가구, 티슈, 매트리스, 바닥 깔개, 실내 페인트 및 안료, 섬유 제품 등

다.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편 GEEA의 에너지라벨 제도 역시 적용되고 있다.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란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GEEA의 에너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 19개 품목으로 GEEA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Switzerland :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 Denmark : The Danish Energy Authority (DEA)
 - Netherlands :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nterNOVEM)
 -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 (dena) /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 (GED)
- 준회원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TEM)
 -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 (E.V.A.)
 -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Ademe)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 개요

에너지소비 효율에 따라 A~G까지Energy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

□ 대상 품목

라벨 표시: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10품목)

최저 효율: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 안정기 등(5품목)

■ 시행 기관

EU위원회(EU Commission)

■ 근거 법령

에너지라벨링 지침(Council directive/92/75/EEC, 1992)

► GEEA



□ 개요

스위스, 독일 등 유럽 9개국이 운영하는 대기 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 제품 보급 프로그램이며 Energy라벨 사용

□ 대상 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19품목)

►Energy 2000



■ 개요

대기 전력 절감형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적 프로그램
GEEA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같은 Energy 라벨 사용

□ 대상 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등(15품목)

■ 시행 기관

스위스 에너지부(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7. 지적재산권

가. 개요

오스트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EU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 있는 제3의 기관인 유럽특허청이 그것이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각 회원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동시에 여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통일된 제도의 경우에도 자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를 병행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나. 특허권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각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 제도이며, 둘째로는 유럽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허락받는 방법이다. 유럽특허청을 통해 취득하는 유럽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인이 지정하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특허제도는 27개 EU 회원국 전역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제도와 별도로 현재 공동체 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체 특허제도는 하나의 출원을 통해 등록받은 특허로 EU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특허의 무효 또는 침해에 대한 재판도 공동체 특허법원이 전담하는 개념이다.

다. 상표권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EU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각 개별국가의 상표보호 담당관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소위 국별 상표권이다. 다음으로는 유럽공동체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유럽공동체 상표이다.

공동체 상표제도는 회원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제도와 공존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표장은 문자, 도형 등은 물론이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인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동작상표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 상표에 대해서는 EU 회원국내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등록 후 10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상표 출원은 공동체 상표청, 회원국의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을 통해 출원이 가능하며 EU 회원국 언어로 출원하되, 공동체 상표청 공식언어인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지정해야 한다.

라. 디자인

EU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공동체 디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청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동체 디자인은 물품 자체의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재질 및 장식의 특징 등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등록 디자인이 출원일로부터 5년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된다.

마. 저작권

EU는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의 저작권을 작가의 사후, 또는 저작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 일반대중이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음해부터 7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 및 시청각 작품도 감독 등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도록 규정하였다. 음반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음반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자에 대한 재판매권도 보호되어 판매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격에 대한 재판매권 부과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 재판매권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7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역시 저작자 사후 또는 최초 공개된 이후 70년간 보호된다.

8. 통관/운송

가. 통관

1) 개황

수출입 통관 절차는 대부분 운송 회사와 세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로는 Invoice, Packing List, B/L, 원산지 증명 등이 있으며 제품에 따라 수출입 허가서가 필요하다(2009년 9월 기준, 특별한 변동 사항 없음).

오스트리아는 내륙 국가로서 자국 내에 바다에 인접한 항구가 없는 바, 선박을 이용한 화물은 보통 독일의 함부르크 항,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 슬로베니아의 코퍼 항 등을 통해 수출입 절차가 진행된다.

2) 수입

1995년 1월 1일 유럽연합 가입과 함께 유럽연합 규칙이 오스트리아법에 우선한다. 오스트리아의 수입 관련 절차 및 규제 사항은 Aussenhandelsgesetz(1984/184) 법규, 그리고 경제부 장관령 (1987/630)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 법규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획득되지 않은 대부분의 물품은 수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들 제품들은 Freiwaren이라고 부르는데 위에 언급한 대외 경제 관계부 규칙 별표 제3에 'F'자로 약칭되어 있다. 예를 들면 코코아, 바나나, 원재료, 어류 등이 그것이다.

한편 HS 코드 25-97류, 즉 대부분의 제조 물품은 특별한 요구 없이 세관의 통관 과정에서 수입 허가를 받게 되는데 이같이 수입 허가가 필요한 제품은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농산물(HS 코드 1-24류): 이들 농산물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수입 승인서를 신청, 교부 받는데 담당 관청은 연방 농업부이다.

- 다국간 섬유 협정(MFA)에 의거한 섬유 및 의류 제품: 이들 제품은 셔츠, 블라우스, 니트웨어 외 의류 등 주로 쿼터 규제가 행해지고 있는 품목으로서 연방 경제 관계부를 통해 수입 승인서를 사전에 교부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 일본에 대한 잔존 수량 제한 품목, 대만에 대한 특정 제한 대상 품목 등 특정 국가에 대한 특정 품목의 수입 제한을 목적으로 수입이 규제되는 품목(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 승인은 연방 정부 경제 관련부에서 쿼터를 기준으로 쿼터 보유 업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한다).
- 갈탄 및 의약품

한편 363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소량에 대해서는 상기 수입 승인 요건이 면제된다.

3) 수입 통관 절차

□ 수입 통관 시 구비 서류

- 선하 증권(B/L, Bill of Landing)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 증명서(Packing List)
-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 통관 절차

- 1단계: 수하인(Consignee)이 수입 통관 대행업체에 세관 등록 번호(Custom Office Register) 와 함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송부한다.
- 2단계: 통관 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가 주로 수행)는 선적 서류(Shipping Document) 와 수하인(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HS 코드,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 후 수입 승인 번호(ATA No.)를 발급받는다.
- 3단계: 보세 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 반입. 물품이 도착한 후 통관 절차를 거쳐 운송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으로 2~5일 정도 소요된다.

4) 수출

오스트리아의 수출 관리 제도는 대외 무역법에 근거하며 대부분의 수출품은 수출 허가서가 필요 없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상공부, 농림부)의 수출 라이선스가 요구된다.

수출 허가가 필요한 제품으로는 수출 할당량이 있는 제품 이외에 국내 경제상 수급 조절이 필요한 품목과 같은 특정 농산물 그리고 무기류, 생화학 물질, 민간 및 군용으로 모두 가능한 제품 등과 같은 특수 품목이며,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8년 1월부터 대외 무역법에 새로이 별첨 List C를 신설하여 동 리스트상에 기재된 하이테크 제품을 수출할 경우 상공부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5) 수출 통관

☐ 수입 통관 시 구비 서류

- 수출 면장(Ausfuhrhandelbestätigung)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 수출 상품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 수출 대상 제품

☐ 절차

상기 구비 서류를 가지고 통관 시스템(Dakosy 등)에 등록 절차를 거친 후 ZAPP(B-number) 번호를 발급받은 후 운송 수단을 통해 운송한다.

나. 운송

1) 국제 공항

- 빈 국제공항(Vienna International Airport)
 - Flughafen Wien AG
 - Vienna International Airport
 - Handling Services
 - P. O. Box 1
 - A-1300 Vienna Airport, Austria
 - 전화: (43 1) 7007-22038
 - 팩스: (43 1) 7007-25733
- 잘츠부르크 국제공항(Salzburg International Airport)
 - 사장단: (43) 8580-100 / 8580-110
 - 간부단: (43) 8580-451 / 8580-458
 - 안내: (43) 8580-7911 / 8580-7909
 - Salzburg Airport Services: 승객이동 (43) 8580-251 / 8580-260

2) 국제 항구

- 오스트리아는 내륙국가로서 바다에 인접한 항구는 없으며 Wien과 Linz에 다뉴브 강의 항구가 있다(Rhein-Main-Donau운하를 통하여 독일과 연결됨).

3) 컨테이너 비용

물류 가격은 운송사별, 화물의 종류별로 상이한 바 표준화된 특정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참고 자료 목적으로 아래의 대략적인 가격을 예시해 놓은 바 개별 운송 회사로부터 받는 실제 견적 가격은 아래의 예시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독일 함부르크 항을 거쳐 비엔나에 도착하는 20 피트 컨테이너 기준 운송료: 2,000~2,500달러 (2009년 9월 기준)

4) 한국-오스트리아 구간 운송 소요 시간

한국-함부르크 항 또는 로테르담 항 구간 해상 운송 소요 시간은 옵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저렴한 운송의 경우 32일, 보통 운송은 28일, 고속 운송은 24일이 소요된다. 그 밖에 통관 및 오스트리아로의 육상 운송을 위해 추가로 5~7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자료: 오스트리아 재무부, 연방상공회의소, 물류회사 인터뷰 내용 종합)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기본 정책

오스트리아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 국가로 관광 수입에 의해 일부 보전되기는 하나 경상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고용 증대 기여 산업, 수출 산업, 수입 대체 및 첨단 기술 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외자 기업에 대한 특별한 혜택

투자의 과실 송금 및 기타 외국 기업이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모든 면에서 국내 기업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나 외자 기업만의 특별한 혜택은 없다.

다. 외국 기업 진출 개황

2009년 9월 기준 오스트리아에는 SIEMENS, Daimler-Chrysler, VW, BMW 등 독일 기업을 비롯하여 Philips, Sony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외국의 대 오스트리아 투자는 독일이 가장 활발하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EU 가입 이후 자본력이 막강한 독일 업체들에 의한 오스트리아 기업체의 인수, 합병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예로 독일 Loewe사에 오스트리아 대형 슈퍼 체인 Billa의 인수를 들 수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EU가입 확정 이후 EU가입이 국민 투표에서 거부된 스위스로부터의 투자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유럽 및 미국 다국적 기업의 오스트리아 진출 계획이 속속 구체화 되고 있으며, 특히 미주 기업의 대 EU 전진 기지로서 대 오스트리아 투자가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권 개방 이후에도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대 동구권 전초 기지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있지 않으며 동구권 자체에서도 오스트리아의 EU 가입으로 오스트리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라. 투자 유치 주력 분야

오스트리아는 국내 및 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하이테크 산업 및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 신규 고용 확대가 가능한 분야의 투자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섬유, 철강, 종이 산업 등 과도한 시설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산업의 경우 신규 투자 유치 활동은 소극적이다.

오스트리아 내 특정 지역에 대해 외국 기업 유치를 선호하는 정책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개발이 후퇴된 지역, 동구권과 인접한 국경 지역, 철강 산업의 생산 축소에 따른 영향 지역, 도산 기업 속출 지역 등에 투자할 경우 지방 정부 차원에서 우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마. 투자 유관 단체

한편 투자 입지에 대한 심사 등과 관련, 지방 자치 단체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어 지방 정부로부터 지원도 가능하므로 외국인 투자 업체로서는 지방 자치 단체와의 접촉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오스트리아 정부 내에서 외국인 투자와 가장 관계가 깊은 부처는 경제부이며, 경제부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전반적 지침의 제정 등 기본 정책의 수립을 관장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 경제부(Austrian Economic Ministry)
 - 주소: Stubenring 1,A-1010 Vienna, Austria
 - 전화: (43-1) 71 100-0
 - 홈페이지: www.bmwa.gv.at

바. 장단점

오스트리아가 유럽 안보 회의(CSCE) 개최지로서, 그리고 3개 유엔 기구 본부 소재지로서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은 결코 오스트리아가 영세 중립국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며, 이 사실은 오히려 오스트리아의 정치 및 사회의 안정성이 국제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높은 임금 부대 비용은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투자 통계 총괄표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해외 투자		대(對) 오스트리아 투자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5	8,962	38.6	8,672	238.2	-290
2006	10,897	21.6	6,324	-27.1	-4,573
2007	24,389	123.8	21,617	241.8	-2,772
2008	19,261	-21.0	9,251	-57.2	-10,010
2009. 1/4분기*	3,018	-55.9*	2,178	-18.9	-840*

주: 1. 2009년 9월 14일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임

2. 2009년 1/4분기 증가율은 전년 동기와의 비교임

자료: OeNB(2009년 9월 14일)

- 장점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
 - 인프라스트럭처의 완비
 - 서구 및 동구 시장과의 접근이 용이
 - 안정된 노사 관계와 높은 생산성
 - 중계 무역지로서의 강점: 오스트리아는 역사적으로 현 동구권 지역의 대부분을 지배해 왔던 배경, 그리고 냉전 시대에 동구권에 대해 서구의 창구 역할을 해 왔던 관계로 동구 및 서구 양대 지역에 대한 중계무역이 발달했다. 동구권 개방 이후 오스트리아의

중계 무역국으로서의 입지가 약화된다는 전망이 있었으나 동구권보다 월등한 사회 간접 자본으로 인해 중계 무역국으로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다.

- 단점
 - 높은 임금 수준과 임금 부대 비용

사. 정부의 투자 유치 정책

첨단 기술 및 고용 효과가 큰 산업, 지역 발전에의 기여 정도에 따라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 투자 인센티브는 현금 지원, 사원 교육비 지원, 대출 시의 책임 보증, 우대 금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현재 오스트리아의 가장 규모가 큰 투자 진흥 기금은 ERP Fund이다. 특별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없으며, 오스트리아 국내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가 외국인의 투자에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1) 투자 진흥 기관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도 오스트리아의 기업 보조 정책의 혜택을 오스트리아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데, 2009년 5월 기준 기업 보조 정책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10개 기관이 있고 외국인 투자 시 이용이 용이한 기관은 다음 7개 기관이다.

- 유럽 진흥 정책 기금(ERP/ -REG, -Inter): 지역 개발, 국제 협력, 무역 진흥
- 중소기업 보증 기금 유한회사(Burgess): 중소기업 진흥
- 투자 대여 주식회사(TOP): 기술 개발 보조, 무역 진흥, 국제 협력
- 상공 연구진 흥기 금(FFF): 기술 개발 및 혁신 보조
- 채무 보증 유한회사(FGG): 지역 개발, 기술 개발 및 혁신
- 환경 보호 진흥 정책 기금(UFG): 환경 보호
- 감사 은행 수출 진흥 기금(Oak): 무역 진흥, 국제 협력

수출 산업의 경우 강화된 정부의 수출 장려책을 활용할 수 있다.

2) EU 보조금

EU에서 낙후 지역으로 지정한 Burgenland주, 일부 Steiermark주 등에 투자할 경우 EU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동 지역에 투자할 계획서를 지방 정부와 협의를 거쳐 EU에 제출하면 총 사업에 지출되는 자금의 최대 50%까지 EU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 투자 유치 활동 기관

1) 개요

오스트리아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기관은 연방 차원과 지방 차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연방 차원의 기관이 거시적 홍보에 주력하는 대신 지방 차원의 기관은 실무선에서 일을 도맡아 처리한다. 특히 지방 차원의 기관은 대개 노사정 공동으로 운영에 참가하고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관련 문제와 유관한 직원이 문제 해결에 나섬으로써 신속한 문제 처리가 가능하다.

2) ABA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1982년부터 ABA(Austrian Business Agency)라는 연방 차원의 투자 유치 전문 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동 기관은 대 오스트리아 투자상 제반 문제에 대한 상담, 알선 및 대외 홍보를 전담하고 있다.

- 기관명: ABA(Austrian Business Agency)
 - 주소: Openrring 3, A-1010 Vienna, Austria
 - 전화: (43-1) 588-580
 - 팩스: (43-1) 586-8659
 - e-메일: office@aba.gv.at
 - 홈페이지: www.aba.gv.at
 - 2009년 5월 기준, 한국 내 담당인사는 오스트리아 상무참사 쾰베버氏
 - 성명: Mr. Werner Somweber
 -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1, 교보빌딩 1914호
 - 전화: 732-6649, 732-7330
 - 팩스: 732-4337
 - 홈페이지: www.austriantrade.org/korea
 - e-메일: werner.Somweber@austriantrade.org
- ABA는 미국 뉴욕 및 일본 도쿄에 office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사무소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뉴욕 사무소
 - 주소: 120 West 45th Street, 9th Floor, New York, 10036
 - 전화: (1-212) 398-1221
 - 팩스: (1-212) 398-1511
 - 도쿄 사무소
 - 주소: 3-13-3 Motoazabu, Minato-ku, Tokyo 106-8691
 - 전화: (81-3) 3796-1331
 - 팩스: (81-3) 3796-1332
- ABA의 구체적 역할
 - 타당성 조사 관련 자료 및 법률 정보 제공
 - 투자 대상 지역 건물이나 부동산 현황 파악 및 입주 제의
 - 금융, 조세 및 각종 인센티브 관련 전문 정보 제공
 - 오스트리아 회사 중 투자 협력 및 합작 계약 가능 업체 발굴 소개
 - 정부 기관 및 법률가, 은행 등과의 접촉 협상 대행 등

- 한편 ABA 는 현재까지 여러 가지 안내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STARTING BUSINESS IN AUSTRIA
- TAX ASPECTS OF AUSTRIA
- AUTOMOTIVE INDUSTRY IN AUSTRIA
- PLASTICS IN AUSTRIA
- ELECTRONIC INDUSTRY IN AUSTRIA
- MACHINE AND TOOL INDUSTRY IN AUSTRIA

자. 투자 허가

오스트리아는 거의 전 산업 분야(99.7%)에 걸쳐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어 있다.

- 금지 대상 종목은 환경 오염 산업, 국가 독점 사업 등 극히 일부분이다.
- TV 무선 방송은 2002 년부터 자유화 되었다.
-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국과 금지 대상을 통일할 예정이다.

(자료: 오스트리아 경제부, WKÖ, ABA 자료 종합)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기업 투자동향

지리적인 특성상 EU 국가들, 특히 독일로부터의 직접 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2007년 말(오스트리아 중앙 은행 발표 입수 가능 국가별/업종별 최신 통계) 기준으로 부동산/IT/R&D(48.02%), 금융(23.40%), 유통(14.09%) 등 서비스 부문에의 투자가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85.5%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1/4분기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同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총 21억 7800만 유로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9% 감소한 실적이다. ABA(Austrian Business Agency)의 대표인 Rene Siegl씨에 따르면, 1/4분기 동안의 외국인 투자 감소 추세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금액이나 기업수 면에서 오스트리아의 최대 투자국인 독일 경제의 침체 및 이에 따른 독일 기업들의 투자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실제 투자 규모의 감소 추세와는 별개로 2009년 9월 기준 ABA에는 600여 건의 외국인 투자 관련 문의 및 상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ABA 설립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바 향후 투자국들의 경기 회복에 맞춰 對 오스트리아 외국인 투자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EU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빠르면 2009년 말부터 외국인 투자 규모가 회복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별 외국인 투자 통계는 2009년 9월 기준, 별도로 입수 가능한 것이 없다.

국가별 대(對)오스트리아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국가	순 투자액			누적잔존투자액* (2007년 말 기준)
	2006	2007	2008	
독일	3,932	-9,160	2,778	27,177
이태리	910	10,708	3,814	23,294
미국	-1,570	2,812	-1,555	9,839
스위스	-467	1,336	-1,005	6,869
네덜란드	732	5,854	2,319	6,606
일본	57	-88	43	4,669
영국	472	3,182	3,070	3,240
러시아	35	331	-140	2,984
프랑스	52	294	284	2,923
스웨덴	92	-24	-41	1,864

주: 2009년 9월 14일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임

자료: OeNB (2009년 9월 14일)

2007년 말 기준, 업종별 외국인 대(對)오스트리아 직접투자 현황(잔존투자액 기준)

(단위: 백만 유로,%)

업종	투자액	점유율(%)
농림어업	22	0.02
광업/에너지산업	270	0.25
식품제조업	1,182	1.09
섬유/의류/피혁	246	0.23
목재/목제가공	67	0.06
제지/인쇄	1,393	1.29
화학/고무/플라스틱	3,088	2.86
비금속 광물	762	0.71
금속	889	0.82
기계산업	1,282	1.19
전기/전자/광학 기계	521	0.48
자동차산업	418	0.39
기타제조업(재활용)	45	0.04
전기/가스/수도	1,493	1.38
건설업	75	0.07
유통업	15,232	14.09
호텔/레스토랑	220	0.20
교통/통신/창고업	3,594	3.33
금융업	25,292	23.40
부동산/IT/R&D	51,903	48.02
공공서비스	90	0.08
총 누계	108,085	100.0

주: 2009년 9월 14일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임

자료: OeNB (2009년 9월 14일)

나. 주요 외국 투자 기업 리스트

- 자동차 산업: BMW, DaimlerChrysler, General Motors, Saab, MAN
- IT/전자 산업: Alcatel, Digital, Hewlett Packard, Siemens, Sony, IBM
- 생명공학: Boehringer Ingelheim, Baxter, Novartis

(자료: OeNB, ABA(Austrian Business Agency))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대 오스트리아 투자 현황

투자 현황 총괄

(금액: 천 불)

법인 수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실제투자 금액
30	49	102,535	91,37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2009년 9월 14일)

업종별 투자 현황

(금액: 천 불)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기타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	11,572	19	77,386	9	1,228	13	1,190	49	91,37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실제 투자 금액 기준 (2009년 9월 14일)

Chevoret Austria GmbH에 대한 투자가 총 67백만 달러로 전체의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메디슨의 현지 초음파 의료기기 제조업체(Kretztechnik) 인수 투자를 제외하고는 기타 요식업, 물류 기업, 현지 판매 법인 등의 소액 투자가 대부분이다.

1996년 5월 (주)메디슨이 총 1,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오스트리아 업체인 Kretztechnik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최초이자 유일한 제조업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01년 (주)메디슨이 보유 지분을 전량 GE Medical Systems에 매각하면서 현재 생산 설비 관련 투자는 전무한 상황이다.

나. 대 오스트리아 투자 주요 한국 기업 리스트

업종	회사명	신고 금액 (천 달러)	투자 금액 (천 달러)
제조업	Kretztechnik AG	14,709	8,900
	Son Kwang Woong Geschenkartikel	300	82
	Jungwoo Development PTY. Ltd.	221	222
	Solar. SI Solarenergic GmbH	18	18
도소매업	Chevrolet Austria GmbH	67,038	66,366
	Damoa	136	136
	LG Electronics Austria GmbH	99	-
	GMS Plantech GmbH	44	44
	H. Kang GmbH	33	33
	Trieb	17	17
	GMP Austria Handels GmbH	9	9
	BCL Losic Import-Export GmbH	23	23

업종	회사명	신고 금액 (천 달러)	투자 금액 (천 달러)
운수창고업	FNS Forwarding and Logistics GmbH	307	307
	Euronet Cargo Logistics GmbH	541	472
	Hyundai Merchant Marine(Austria) GmbH	237	237
숙박음식점업	Japanisches Restaurant Sapporo GmbH	351	-
	Arirang	168	130
	Seo Mae Sil GmbH	121	121
	Café-Restaurant Picnic GmbH	93	73
	Kim Hyang Man	77	77
	L.F.S. Restaurant Riebs GmbH	194	194
	L.F.S. Restaurantbetriebs GmbH	184	184
	DUK HO LEE KEG	99	99
	AJU Intl.Investment and Advisory GmbH	47	47

자료: 오스트리아 국립은행(OeNB), 대한민국 지식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 유치 정책 개황

- 오스트리아는 국내 및 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하이테크 산업 및 자본 집약적 산업의 신규 고용 확대가 가능한 분야의 투자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 생산성 향상과 수입 대체, 수출 증진이 가능한 산업도 주요 투자 유치 대상 산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 섬유, 철강, 종이산업 등 과도한 시설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산업의 경우, 신규 투자 유치 활동은 소극적이다.

나. 투자 유치 관련 법규

- 특별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은 없으며, 오스트리아 국내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가 외국인의 투자에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 수출 산업의 경우 강화된 정부의 수출 장려책을 활용할 수 있다.

다. 투자 우대 제도

- 첨단 기술 및 고용 효과가 큰 산업, 지역 발전에의 기여 정도에 따라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
- 투자 인센티브는 현금 지원, 사원 교육비 지원, 대출 시의 책임 보증, 우대 금융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현재 오스트리아의 가장 규모가 큰 투자 진흥 기금은 ERP Fund 이다.

- 오스트리아 내 특정 지역에 대해 외국 기업 유치를 선호하는 정책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개발이 후퇴된 지역, 동구권과 인접한 국경 지역, 철강 산업의 생산 축소에 따른 영향 지역, 도산 기업 속출 지역 등에 투자할 경우 지방 정부 차원에서 우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라. 투자 진흥 기관

-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도 오스트리아의 기업 보조 정책의 혜택을 오스트리아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데 2009 년 9 월 기준 기업 보조 정책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10 개 기관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시 이용이 용이한 기관은 다음 7 개 기관이다.
 - 유럽진흥정책기금(ERP/ -REG, -Inter): 지역 개발, 국제 협력, 무역 진흥
 - 중소기업 보증 기금 유한회사(Buerges): 중소기업 진흥
 - 투자 대여 주식회사(TOP): 기술개발 보조, 무역진흥, 국제협력
 - 상공연구진흥기금(FFF): 기술개발 및 혁신 보조
 - 채무보증 유한회사(FGG): 지역개발, 기술개발 및 혁신
 - 환경보호진흥정책기금(UFG): 환경보호
 - 감사은행 수출진흥기금(OeKB): 무역진흥, 국제협력
- EU 에서 낙후 지역으로 지정한 Burgenland 주, 일부 Steiermark 주 등에 투자할 경우 EU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 동 지역에 투자할 계획서를 지방정부와 협의를 거쳐 EU 에 제출하면 총 사업에 지출되는 자금의 최대 50%까지 EU 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마. 몰수 및 보상

- 오스트리아에서는 사유 재산 보호가 철저하게 지켜지므로 갑작스러운 국유화 조치는 상상할 수 없다.

바. 주요 투자 유치 관련 제도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2005년 세제 개편 때 도입된 “Group Taxation” 제도와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유한회사(GmbH) 설립 최소 자본금 인하” 방안이다.

1) Group Taxation

□ 목적

- 2005 년 세제 개편 때 신규로 도입된 조세 제도로, 어느 한 기업이 오스트리아에 지역 본부를 가지고 있고 그 계열사(주로 생산 기지들)들이 인근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소재해 있을 경우, 계열사에서 발생한 손실을 오스트리아 지역 본부의 손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세제상으로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 인건비 등의 이유로 생산 기지의 유치는 포기하는 대신 마케팅 및 지역 본부 등의 유치에 집중하겠다는 오스트리아 정부의 정확한 현실 인식 및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인데, 실제로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이러한 세제상의 이점을 활용하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오스트리아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현재까지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 내용

- Group Taxation 제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종류의 구성원을 필요로 하는데, “본사(Mother company)”와 “계열사(Daughter company)”가 그들로 본사는 반드시 오스트리아 소재 기업이어야 하며 오스트리아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나 여부는 상관없다. 이 밖에 Group Taxation 제도를 적용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본사는 5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본사와 계열사가 반드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종을 영위할 필요는 없다. 즉, 업종의 유사성 또는 동질성 여부는 그룹 지정의 고려 요소가 아니다.
 - 계열사는 오스트리아 기업 또는 외국 기업이어도 무방하다.
 - 본사와 계열사 간에 Group Taxation 을 위한 약정 체결 및 오스트리아 세무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최소 약정 기간은 3년)하여야 한다.
 - 계열사가 오스트리아 소재 기업인 경우 그 지분율이 100%가 아닌 경우에도 계열사의 이익 또는 손실은 100% 본사 회계에 반영된다.
 - 반면에 계열사가 외국에 소재한 경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만 그 손실 부분만이 본사의 법인세 산정 시 고려된다. 이 경우에도 손실을 일부분 인식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전액을 인식하여야 한다.
 - 외국 소재 계열사가 당기 순이익을 실현하는 순간, 그 이전에 손실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여주었던 부분만큼 다시 과세 대상 이익으로 간주되어 오스트리아 소재 본사의 과세 대상 소득을 증가시키게 된다.
 - Joint Venture 활성화를 위해 두 개 이상 복수 본사(한 기업에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투자했을 경우)의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복수 본사 소유 지분의 합계가 50%를 초과하여야 하며, 주본사의 경우 지분율 40% 이상,副本사의 경우 최소 지분율 15%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A 사(40%), B 사(15%), C 사(10%)가 D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A 사 및 B 사는 지분율 합계 55%로 Group Taxation 상의 복수 본사가 될 수 있지만, C 사는 최소 지분율 15%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바 Group Taxation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 신규 설립이 아닌 기존 업체의 인수를 통한 계열사 편입의 경우,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15년 동안 상각이 가능한데 이 경우 영업권의 금액은 총 인수 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2) 유한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 인하

- 오스트리아의 가장 흔한 법인 형태인 유한회사(GmbH)를 설립할 때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현재 3만 5000 유로로 주변국들에 비해 높은 바, 신규 법인 설립 및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

국가별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

국가 명	법인 설립 최소 자본금(유로)
오스트리아	35,000
독일	25,000
폴란드	12,460
헝가리	12,170
스웨덴	10,650
이탈리아	10,000
슬로베니아	8,780
체코	6,700
슬로바키아	5,230
영국	2
프랑스, 아일랜드	1

자료: 오스트리아 법무부(Justizministerium)

-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오스트리아 법무부는 유한회사 설립 최소 자본금을 현재의 3만 5000 유로에서 1만 유로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1) 주변국과의 차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치에의 부정적 영향, 2) IT 서비스 및 중계 부문에서는 실제로 많은 초기 자본금이 필요치 않다는 현실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마련되고 있는 동 법안에는, 설립 자본금 축소에 따른 투자자 보호 조치 및 법인 설립 비용 감소 등을 위한 몇 가지 내용들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회사 부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이사 참여 금지
 - 회사 설립 후 일정 기간 설립 자본금 유지 의무 부여
 - 회사 설립 관련 서류의 공증 절차 없이, 규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회사 설립 등록 절차 완료

사. 오스트리아 투자 인센티브 요약

- 오스트리아는 對 오스트리아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나 인센티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회사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 투자에 따른 정부 보조금 및 인센티브 등에서 오스트리아 기업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다.
-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이용 가능한 투자와 관련한 정부 보조금 및 인센티브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지역별 인센티브
 - 중소기업
 - R&D 투자(기술 개발)
 - 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관련 투자

1)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 개요
 - 대상
 - 경쟁력 제고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구조 개선 분야
 - 지역 경제의 성장 및 고용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 지역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
- 오스트리아 내 또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근 국가(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의 지역간 경제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 종류
 - 저리 융자(ERP Fund, 다양한 지방 자치 단체의 Funding Programs)
 - 정부 보조금(Austria Wirtschaftsservice, EFRE)
 - 지급 보증(Austria Wirtschaftsservice, 지방 자치 단체의 개별 지급 보증 프로그램)

투자 인센티브 이용 가능 지역 및 한도(~2013년)

주(州)	지역 명	인센티브 한도(투자금액의 %)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부르겐란트*	Oberpullendorf	50	40	30
	Eisenstadt, Neusiedl a.S., Mattersburg, Rust	50	40	30
	Güssing, Jennersdorf, Oberwart	50	40	30
니더외스터라이히	Waidhofen a.d.Ybbs, Amstetten, Scheibbs	35	25	15
	Wr. Neustadt, Baden, Lilienfeld, Neunkirchen	35	25	15
	Krems a.d.Donau, Horn, Gmünd, Krems, Waidhofen a.d.Thaya, Zwettl	40	30	20
	Gänserndorf, Hollabrunn, Mistelbach	40	30	20
	Tulln	35	25	15
	Bruck a.d.Leitha	35	25	15
케른텐	Klagenfurt, Villach	35	25	15
	Hermagor, Spittal a.d.Drau, Feldkirchen	35	25	15
	St. Veit a.d.Glan, Völkermarkt, Wolfsberg	35	25	15
오버외스터라이히	Braunau am Inn, Ried im Innkreis, Schärding	35	25	15
	Freistadt, Perg, Rohrbach, Urfahr-Umgebung **	36/35	26/25	16/15
잘쯔부르크	Tamsweg	35	25	15
슈타이어막	Liezen	35	25	15
	Bruck a.d.Mur, Leoben, Mürzzuschlag	35	25	15
	Feldbach, Fürstenfeld, Hartberg, Radkersburg, Weiz	35	25	15
	Deutschlandsberg, Leibnitz, Voitsberg	35	25	15
	Judenburg, Knittelfeld, Murau	35	25	15
티롤	Lienz	35	25	15

주 1: 2010년 말까지 동 비율 적용

주 2: 2010년 말까지 36/26/16% 비율 적용

자료: ABA

○ ERP Regional Program

- 적용 대상
 -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설립 또는 이전
 - R&D 연구 결과에 기반한 제품/공정 혁신, 신기술의 구입 또는 도입

- 현대화 또는 기업 확장 관련 투자
- 인센티브 형태: 저리의 ERP 융자/ERDF 보조금
- 인센티브 규모: 프로젝트당 년 10 만~750 만 유로
- 상환 기간: 거치 기간 3 년 포함 총 6 년
- 이자율 조건: <http://www.awsg.at/portal/media/2102.pdf>
- 거치 기간: 연 1% 고정 금리
- 본 상환 기간: 연 1.5% 고정 금리
- 6 년을 초과하는 기간: 연 2.75% 변동 금리

2) 중소기업(SME) 투자 인센티브

- 개요
 - 대상
 - 중소기업의 품질 개선 분야 투자
 -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 도입 관련 투자
 - 종류
 - 저리 융자(ERP Fund, 다양한 지방 자치 단체의 Funding Programs)
 - 정부 보조금(Austria Wirtschaftsservice, ERDF)
 - 지급 보증(Austria Wirtschaftsservice, 지방 자치 단체의 개별 지급 보증 프로그램)
 - 지원 한도
 - 소기업: 투자 금액의 15%
 - 중기업: 투자 금액의 7.5%
- ERP-SME Program
 - 적용 대상: ERP Regional Program 과 동일(단, 중소기업이어야 함)
 - 인센티브 형태: ERP 융자
 - 인센티브 규모: 프로젝트당 년 10 만~750 만 유로
 - 상환 기간: 거치 기간 2 년 포함 총 6~10 년
 - 이자율 조건: ERP Regional Program 과 동일
- SME “Business Dynamics” Incentive Program
 - 적용 대상
 - 새로운 또는 혁신적인 또는 최고 품질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
 - 신기술의 도입
 - 지역 경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핵심 제품의 공급을 유지 또는 강화
 - 투자 규모: 2 만 5,000~250 만 유로
 - 형태: 보조금(Premiums), 지급 보증(Guarantees)
 - 보조금: 기본(총 투자액의 5%)/보너스(총 투자액의 10%) 두 가지 형태 업체당 연간 한도 75 만 유로
 - 지급 보증: AWS(Austria Wirtschaftsservice)가 수행
 - 투자 자금 대출(대출 한도 250 만 유로, 총 대출 금액의 80%, 대출 기간 최고 10 년(특수한 경우 20 년))
 - 운전 자금 대출(대출 한도 100 만 유로, 총 대출 금액의 80%, 대출 기간 최고 5 년)
 - 지급보증규모 7 만 5000 유로까지는 AWS 가 별도의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 지급 보증 수수료: 투자 자금 대출 지급 보증-연 0.6~3%, 운전 자금 대출 지급 보증-연 2~4%

- SME Guarantees
 - 적용 대상
 - 유형 또는 무형 자산 투자
 - 기업 인수 또는 승계(MBO/MBI 포함)
 - 운전 자금
 - 2 만 5,000 유로 이하 투자의 경우 보다 좋은 조건의 “Microcredit”을 이용할 수 있다.
 - 형태: 지급 보증(Guarantees) – AWS(Austria Wirtschaftsservice)가 수행
 - 투자 자금 대출(대출 한도 250 만 유로, 총 대출 금액의 80%, 대출 기간 최고 10 년(특수한 경우 20 년))
 - 운전 자금 대출(대출 한도 100 만 유로, 총 대출 금액의 80%, 대출 기간 최고 5 년)
- SME Stabilization
 - 적용 대상: 관광/여행업 및 레저 산업 중소기업은 제외
 - 유형 또는 무형 자산 투자
 - 운전 자금
 - 최소 투자 규모 10 만 유로 이상
 - 형태: 지급 보증(Guarantees) – AWS(Austria Wirtschaftsservice)가 수행
 - 대출 한도 100 만 유로, 총대출 금액의 80%, 대출 기간 최고 10 년(특수한 경우 20 년)
- AWS Double Equity Guarantee Fund
 - 적용 대상: 관광/여행업 및 레저 산업 중소기업은 제외
 - 유형 또는 무형 자산 투자
 - 운전 자금
 - 자격 요건:
 - Equity Capital 중 기업주 또는 개인 투자자의 지분이 AWS 이상이어야 한다.
 - 최초 설립 후 5 년 이내의 업체이어야 함
 - 형태: 지급 보증(Guarantees) – AWS(Austria Wirtschaftsservice)가 수행
 - 대출 한도 187 만 5,000 유로, 총 대출 금액의 80%, 총 대출 금액은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한 Equity Capital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상환 기간 최고 10 년, 다양한 형태의 거치 기간 설정 가능

3) R&D 투자(기술 개발) 관련 인센티브

- 개요
 - 대상: 상품화 가능(관련 Risk 포함)한 기술 혁신 관련 R&D 투자
 - 종류:
 - 저리 융자(Austrian Research Promotion Agency; FFG, ERP Fund)
 - 정부 보조금(Austrian Research Promotion Agency; FFG, 개별 지방 자치 단체)
 - 지급 보증(Austrian Research Promotion Agency; FFG)
 - 지원 한도
 - 산업용 R&D: 투자 금액의 50%
 - 실험용 투자(Pre-market Research): 투자 금액의 25%
- ERP Technology Program
 - 적용 대상
 - 새로운/혁신적으로 개선된 제품/생산공정/서비스 등과 관련한 R&D 프로젝트
 - Prototype/Pilot/시범 제품 또는 설비 개발과 관련한 프로젝트

- 인센티브 형태: 저리의 ERP 융자
- 인센티브 규모: 프로젝트당 년 10 만~750 만 유로
- 상환 기간: 거치 기간 3 년 포함 총 6 년(미래형 산업 부문의 경우 거치 기간 5 년 포함 총 12 년까지 연장 가능)
- AWS Seed Financing
 - 적용 대상: 종합 신생 기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 인센티브 형태
 - 초기 창업에 필요한 자금
 - 창업 관련 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 무상 지원
 - 인센티브 규모: 최대 100 만 유로(지분 참여 또는 이익 배분 등의 형태)
- FFG Basic Incentive Program
 - 적용 대상: 기업, 연구소, 개인 발명가 등의 경제성 있는 연구 프로젝트
 - 인센티브 형태: 보조금, 저리 융자, 지급 보증 등의 혼합된 다양한 형태
 - 인센티브 규모: 프로젝트에 소요된 비용의 최대 50%

4) 환경 보호와 관련한 투자

- 개요
 - 대상
 - 공기 정화
 - 폐수 및 하수 처리
 - 재생 에너지
 - 에너지 효율 증진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 종류: 연방 정부 보조금
 - 지원 한도
 - 기존의 환경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의 환경 보호(중소기업만 해당됨): 투자 금액의 15%
 - 규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환경 보호 관련 투자: 투자 금액의 30%
 -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기술 투자: 투자 금액의 40%
- 환경 관련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또는 투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지역에 소재할 경우 관련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5) 주요 관련 기관

- Austria Wirtschaftsservice GmbH: www.awsg.at
- ERP-Fonds: www.erp-fonds.at
- FFG(Österreichische Forschungsförderungs GmbH): www.ffg.at
- Österreichische Kontrollbank AG: www.oekb.at
- WWFF(Wiener Wirtschaftsförderungsfonds): www.wwff.gv.at
- WiBAG(Wirtschaftsservice Burgenland): www.wibag.at
- SFG(Steirische Wirtschaftsförderung): www.sfg.co.at
- KWF(Kärntner Wirtschaftsförderung Fonds): www.kwf.at

(자료: 오스트리아 법무부, 오스트리아 재무부, ABA 발행 “Investment Incentives in Austria”, WKÖ 자료 종합)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 진출 형태

오스트리아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특별한 혜택은 없으며, 일반 오스트리아 기업과 똑같이 취급 받는다. 특정한 생산 및 연구 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는 일반 오스트리아 기업과 마찬가지로 유럽 연합 보조금 수령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오스트리아 진출 외국 기업의 약 80% 이상이 유한회사(GmbH) 형태를 취한다. 설립에 소요 되는 총 비용은 자본금의 약 10~15% 수준이다.

지점(Branch Office)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현지 회사 설립 추진 단계에서 이용하고 이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 형태 일람표

구분	법인(GmbH)	지점	연락사무소
영리 활동	가능	가능	불가능
등기	가능	가능	불가능
자본금	35,000 유로	불요	불요
대표이사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이사	이사회는 특수한 경우에만 필요, 통상적으로는 3명 이상	불요	불요
감사	이사회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 법인은 외부 감사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함	불요	불요
법인세 과세 범위	전 세계 소득	국내 원천 소득	-
회계처리(조세율)	25%	25%	-
본국 송금 시 과세(과실 송금 여부)	1%	1%	-
소송(분쟁 해결)	원칙적으로 본국 법인에 영향 없음	본국 법인에 영향을 미침	원칙적으로 본국 법인에 영향 없음
설립 소요 기간	2주 ~ 4주	약 2개월	1일
설립 소요 비용	자본금의 1%에 대한 과세 부과, 설립 서류비 295유로, 설립 자문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채용되는 변호사 선임 비용	법인(GmbH) 설립 비용보다 많이 소요 됨	-
등록 기관	관할 법원 등기소	관할 법원 등기소	관할 법원 등기소

자료: ABA 발행 “Investing in Austria”

1) 법인

오스트리아에 진출하는 외국회사의 경우 대부분 유한회사(GmbH) 형태로 법인을 설립한다.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가 선호되는 이유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갖는 법적 지위와 대우가 거의 동등하지만, 주식회사 설립이 유한회사 설립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설립 후, 곧바로 주식 시장에 상장할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한회사 형태가 선호되는 것이다.

□ 회사 설립 절차

① 통역 선정

아래에 추천된 오스트리아 법무 법인이나 변호사들의 경우 영어에 능통하므로 오스트리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회사 담당자가 영어나 독일어에 능숙하다면 별도의 통역이 필요하지 않다.

한국 측 담당자가 영어에 능숙하지 않거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통역을 필요로 한다면 빈 KBC를 통해 통역 선정이 가능하다.

② 변호사 선정

상술한 오스트리아 여러 기관들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현지 회사 설립의 실무는 전문 변호사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오스트리아의 관례이다. 오스트리아 현지인들도 회사를 설립하려면 변호사를 고용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법적 하자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으며, 한편 여러 가지 복잡한 관련 사무 일체를 변호사가 도맡아 처리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업무를 위한 세무사, 공증인 등도 소개받을 수 있다.

유한회사의 발기 사원은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전문 변호사들이 일단 발기인으로 등록하고 회사 설립 후 퇴사하는 경우도 많다

③ 대표적 변호사 및 법무 법인

아래 변호사 및 법무 법인은 한국과 관련이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다. ABA(Austrian Business Agency)를 통해 일단 무료 상담 1번은 받을 수 있으며, 원한다면 ABA나 변호사 협회로부터 다른 변호사를 추천 받을 수도 있다.

- Strohal & Kretschmer
 - 주소: Opernring 10, A-1010 Wien
 - 전화: (43 1) 5131911
 - 팩스: (43 1) 5131911 - 24
 - e-메일: advocates@advocates.cc
 - 홈페이지: www.advocates.cc
 - 추천 사유: 대표 Dr. Theodor Strohal 은 한류팬으로서, 한국에서 3 년간 생활하며 화염종 불도를 배운 바 있어서 한국에 관심이 많다. 동 합동 법률 사무소는 경제 분야 전문이며, 독일 뮌헨과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다.
- DSC, Rechtsanwalt Partnerschaft.
 - 주소: Währinger Strasse 2-4, A-1090 Wien
 - 전화: (43 1) 3194520
 - 팩스: (43 1) 3198322

- e-메일: dscvienna@aon.at
 - 홈페이지: www.dscvienna.at
 - 추천 사유: 중대형 법무법인으로서, 한국 S 전자의 오스트리아 자회사 설립에 관여한 바 있다.
- WOLF THEISS & PARTNER
 - 주소: Schuberttring 8, A-1010 Wien
 - 전화: (43 1) 515 10 / 팩스: (431) 515 10-25
 - e-메일: choenig@wtp.at
 - 홈페이지: www.wtp.at
 - 추천 사유: 대형 법무 법인으로서, 동유럽 지역에 여러 지사를 두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큰 회사이다. 아시아 지역 회사들과 경험도 있다고 하며, 한국 회사와 접촉을 바라고 있다.
- Braunnegg, Hoffmann & Partner, Rechtsanwälte
 - 주소: Gonzagagasse 9, A-1010 Wien
 - 전화: (43 1) 53 110-0 / 팩스: (43 1) 53 110-10
 - e-메일: office@bhp-law.at
 - 홈페이지: www.bhp-law.at
 - 추천 사유: 빈 변호사 협회가 추천한 회사이다.
- 빈 변호사 협회(Rechtsanwaltskammer Wien)
 - 주소: Ertlgasse 2/Ecke Rotenturnstrasse 13, A-1010 Wien
 - 전화: (43 1) 533-27180 / FAX: (43 1) 533-271844

④ 회사 설립 절차

- 정관 체결 및 공증
- 이사 임명을 사원들이 결의하고 결의안 공증
- 법정 설립 자본금 은행 예치
- 회사 설립에 따른 자본 거래세 납부
- 관할 법원 등기소에 회사 등록
-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변호사 선정 후 약 1~2 달
- 외국인 투자 기업의 등록은 일반 오스트리아 기업과 전혀 다른 바가 없다.

⑤ 회사 설립 비용

- 최소 설립 자본금
 - 유한회사의 법정 최소 자본금은 35,000 유로 이다.
 - 그러나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일단 법정 최소 자본금의 50%인 17,500 유로를 은행에 예치한 증명이 있으면 된다.
 - 지분의 법정 최소 단위는 70 유로 이다.
- 각종 세금 및 요금
 - 자본 거래세: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의 1%
 - 부동산 취득세: 신고 가의 3.5%
 - 소유권 등기: 등기 액의 1%

- 기타 비용
 - 상기 나. 항에 명시된 소요자 금고를 포함하여 기타 공증료, 변호사 비용 등 회사 설립을 위해 소요되는 총 비용의 합계액은 일반적으로 당해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의 약 10 % ~ 15% 정도로 계산하면 된다.
 - 변호사를 선임할 때 예상되는 소요 비용의 수준을 문의해 볼 수 있다.

⑥ 기타 유의 사항

- 외국인 노동 허가의 취득: 일상적인 경영에 참가하는 외국인 이사는 노동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피고용인대표 감사제도: 일반적으로 300 명 이상이 고용되었거나 자본금이 Euro 7,267 을 초과하고 50 명 이상의 지분 소유주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감사의 1/3 은 피고용인들의 대표들이어야 한다.

2) 지점

오스트리아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현지법인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지점 설립을 반기지 않으며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지점을 설립할 경우, 본사 이익과 지점 이익을 정확히 구분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등 세제 업무가 복잡하며, 이익이 오스트리아 세제로 사정되기 때문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지점 형태의 설립을 꺼리고 있다.

3) 연락 사무소

현지법인 설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외국 기업들이 선호하는 형태는 공식적으로는 연락 사무소이다. 연락 사무소에서는 통상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본사와 연결시켜서 연락 사무소 자체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항공사들이 오스트리아에서 이러한 연락 사무소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연락 사무소라 하더라도 오스트리아 내에서의 업무 기록과 금전 관련 증빙 자료를 포함하는 완전한 회계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4) 공장 설립

□ 공장 설립 개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의 여러 형태 중 유한책임회사(GmbH)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유는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AG)보다 그 설립이 간편하며 규제 법규가 적다.
- 1 인 유한회사가 가능하므로 설립 직후 모회사가 100% 지분을 인수하면 실질적으로 현지 법인이면서도 해외 지사 형태를 띄게 된다.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설립 이전에 공장 부지를 구입하면 다시 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이중의 일이 발생하므로 회사 설립 후 공장 설립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이다.

□ 금융

외국인 투자자들이 설립한 법인은 현지 금융은 물론 오스트리아 연방 및 지방정부,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모든 종류의 기업 진흥 기금 이용에 있어서도 오스트리아 내국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는 수도 빈에만 50개 이상의 외국은행이 집중적으로 진출해 있을 정도로 국제 금융 중심지 역할을 수행 중이다.

과거 동서 무역을 위한 금융 및 무역 중개 기지로서 오랜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페이팅, 스왑거래 등 현대적인 국제 금융 기법들이 이들 금융 기관 등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다.

□ 공장 부지 현물 출자

공장 부지를 현물 출자할 경우 정부 공인 감정사로부터 가격 감정을 받아야 한다.

□ 공장 부지의 구입

오스트리아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한국과는 달리 합명 회사와 합자 회사는 법인이 아니다)은 외국인이 대주주, 혹은 완전 소유주일지라도 내국 회사 취급을 받음으로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 특별한 사전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장 부지의 임차

오스트리아 상법에 의해 설립되어 내국 회사 취급을 받는 경우는 물론 외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외국 회사도 공장 부지를 임차할 경우에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

□ 공장 건물의 건축

회사 설립 후 법인의 이름으로 건축 회사를 선정하여 건축하면 된다. 오스트리아 내국인 회사의 경우와 같다.

□ 관련 세무

회사 설립의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인센티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고문과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

□ 사전 허가 및 등록

투기 목적이 아닌 순수 투자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중앙은행(Austrian National Bank)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상환 자본과 대부금은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외국 및 국내 기업들은 지방 법원에 등록해야 한다.

나. 투자 방식

1) 투자 형태의 결정

외국인의 기업 지분 소유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으므로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투자 형태의 결정은 전적으로 시장 상황 및 경제성 그리고 시장 침투 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작 투자, 단독 투자 또는 현지 기업을 인수할 것인가 결정하면 된다. 기업의 법적 형태로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한회사가 바람직하다. 유한회사의 설립이 주식 회사보다 간단하며 주식회사로의 전환도 손쉽게 때문이다.

2) 예비 심사 및 사전 조사

외국인 투자 유치 기관인 ABA와 접촉하면 다량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ABA와 협상하여 우선 관련 산업 및 시장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투자 후보지를 선정한다. 지방 정부 또는 EU로부터 투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한 인센티브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투자 진행 기금의 사용 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일부 업종, 예를 들어 요식업, 호텔업의 경우는 영업 면허가 필요한데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내국인들로부터 차용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 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파트너 선정

합작 투자와 단독 투자 간의 법인 설립에 따른 절차상의 차이는 없으며 단지 합작 투자의 경우 파트너 선정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100% 단독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현지 사정에 밝은 파트너를 선정하는 일은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오스트리아에 현지 법인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해 있는 한국 대기업 S사 및 L사 모두 진출 초기에 현지 에이전트를 심분 활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적당한 파트너 선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일단 투자 후보지가 선정된 경우, 당해 지방의 투자 유치 기관 및 지방 정부와 접촉하여 파트너 물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 연방 상공회의소에 문의할 수도 있다.

오스트리아 기관들의 추천은 대개는 신뢰해도 좋으며, 의심이 갈 경우에는 각종 신용 조사 기관에 의뢰해 보면 된다.

- KSV (오스트리아의 가장 대표적 신용조사 기관)_
 - 주소: Wagenseilgasse 7, A-1120 Wien
 - 전화: (43 50) 1870-1000
 - 팩스: (43 50) 1870 99-1000
 - 홈페이지: www.ksv.at
 - e-메일: ksv@ksv.at
 - 신용조사가격: 1 건 당 57~90 유로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Bundeswirtschaftskammer)
 - 주소: Wiedner Hauptstrasse 63, A-1045 Wien
 - 전화: (43 5) 90 900
 - 홈페이지: <http://wko.at>

물론, 현지 회사 설립 후 시장 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정말 파트너가 필요한 것인지 천천히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4) 외국인 투자 기업의 등록

일반 오스트리아 기업과 같다.

5) 회사 설립 비용

자본 거래세(Kapitalverkehrssteuer)는 불입 자본금의 1%이다. 공증료는 주식 자본금에 따라 가중 계산된다. 36,336유로 이상 - 72,673유로 이하 = 603유로 - 1,003유로. 공칭 자본금이 72,674유로 이상인 경우, 공증료는 1,004~6,737유로(최고 한도료)이다. 등기 수수료는 명목 주식 자본금의 0.45~0.55% 사이이며, 부동산 취득세는 거래액의 3.5%이다. 이외에 소유권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 정도 된다.

6) 자본 및 이윤의 본국 송환

일반적으로 이윤의 해외 송환과(이익 배당금의 형태로서) 자본의 회수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이 없다.

7) 기타

오스트리아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로서는 현금 융자를 비롯, 보조금, 저리 혜택의 수출 신용 및 보증, 종업원 훈련 보조, R & D보조,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특별 지원 등이 있다. 과거 동서 무역을 위한 금융 및 무역 중개기로서 오랜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페이팅, 스왑 거래 등 현대적인 국제 금융 기법들이 이들 금융 기관 등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노동 조합은 일반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함. 노동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 기업들과 동일한 조건하에 놓인다.

현지 부품 구입 의무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자기업에 대해 수출의무 비율을 강제 하는 제도도 없다.

다. 투자 관련 서비스 기관

1) 빈 변호사 협회(Rechtsanwaltskammer Wien)

- 주소: Ertlgasse 2 / Ecke Rotenturmstrasse 13, A-1010 Wien
- 홈페이지: www.rakwien.at
- 전화: (43 1) 533-2718-0
- FAX: (43 1) 533-2718-44

2) 오스트리아 공증인 협회(Österreichische Notariatskammer)

- 주소: Landesgerichtsstraße 20, A-1010 Wien
- 홈페이지: <http://www.notar.at/de/portal/>
- 전화: (43 1) 424 4509-0
- FAX: (43 1) 406 3475

3) 공인회계사 및 신탁회사 협회(Kammer der Wirtschaftstreuhänder)

- 주소: Schönbrunner Straße 222-228/1/6, A-1120 Wien
- 홈페이지: www.kwt.or.at
- 전화: (43 1) 811 73-0
- FAX: (43 1) 811 73-100

라. 투자 관련 정부 기관

1) ABA(Austrian Business Agency)

- 주소: Openrring 3, A-1010, Wien, Austria
- 전화: (43 1) 588-580
- 팩스: (43 1) 586-8659
- e-메일: office@aba.gv.at
- 홈페이지: www.aba.gv.at
- 성격: 오스트리아 노사정이 공동으로 설립한 외국인 투자 유치 기관인 오스트리아 비즈니스 에이전시(ABA)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연방 차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홍보 사이트이다.

자세한 지역 정보는 각 주별로 존재하는 투자 유치 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데, 상기한 ABA와 접촉하면 입수 가능하다. 산업 분야별 정보 ABA를 통하거나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입수할 수 있다.

2) Federal Economic Chamber (연방상공회의소)

- 주소: Wiedner Hauptstraße 63, A-1045 Wien
- 전화: (43 5) 90 900
- 홈페이지: <http://portal.wko.at>
- 성격: 오스트리아 상공인 총 연합인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는 오스트리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사용자 연합 단체이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산별로 조직된 산하 단체와 연결 가능하며 산별 단체를 통해 무역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3) Federal Economic Chamber of Vienna (빈 지방 상공회의소)

- 주소: Stubenring 8-10, A-1010, Wien
- 전화: (43 1) 514 50
- 홈페이지: <http://wko.at/wien>
- 성격: 빈 지방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빈 지역의 상공인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참고

- 각 주(州)별 지방 상공회의소와 관련한 정보
 - <http://portal.wko.at/portal.wk?AngID=1&CtxID=16&DstID=686&subcontentparam=AngID%3d1>

5) Austrian National Bank (오스트리아 국립중앙은행)

- 주소: Otto-Wagner-Platz 3, A-1090 Wien
- 전화: (43 1) 404 20-0
- 팩스: (43 1) 404 20-2399
- 홈페이지: www.oenb.at
- 성격: EU 중앙 은행 출범 이후 통화량 조절 등의 기타 정책 결정과 관련한 기능은 많이 사라졌지만, 무역 및 투자 관련 각종 통계가 집계되어 발표되는 곳이다.

6) Bundesministerium fuer Wirtschaft und Arbeit (오스트리아 경제 노동부)

- 주소: Stubenring 1, A-1011, Wien, Austria
- 전화: (43 1) 71100-0
- 홈페이지: www.bmwa.gv.at
- 성격: 투자 단계에서만 아니라 종업원 고용 등 기업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부서이다.

(자료: 오스트리아 경제부, 재무부, 연방상공회의소, ABA, 빈 KBC 보유 자료 종합)

6. 투자입지여건

가. 오스트리아 내 산업 단지

1) 단지 명: Industriezentrum Noe-Sued

- 소 재 지: 니더외스터라이히주 남부
- 부지 면적: 약 280ha
- 공단 특성: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근교에 위치한 산업 단지로서 특화된 산업 분야는 없다.
- 입주 자격: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니더외스터라이히 투자 유치 기관이자 공단 소유자인 에코플러스(ECO Plus)측이 해당 프로젝트를 허가하면 입주 자격이 생긴다.
- 입주 비용: 에코플러스(ECO Plus)측과 해당 프로젝트를 상의하여 임대 또는 구입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임대인 경우, 공장 또는 사무실의 건축은 에코플러스 측에서 담당한다.
- 월 임대 가격 = 공장 용도 부지 평방미터 당 최하 약 4.20유로 = 사무실용 부지 평방미터 당 최하 약 8.80유로
- 토지 구입 가격 = 평방미터당 110~150유로
- 입주 가능 시기: 제한 없다.
- 교통 및 통신: 교통망은 오스트리아 남부고속도로와 연결되며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동유럽 지역으로의 고속도로와도 연결된다. 통신망 역시 잘 구비되어 있다.
- 인프라 스트럭처: 여타 선진국 수준
- 인력 조달 및 임금 수준: 100~200명 수준의 인력 조달은 언제나 가능하다.
- 기본급 임금 수준: 최하 월 1,500유로(주당 40시간 기준)
- 외국 기업 입주 현황: 2009년 9월 기준, 단지에 상주하고 있는 총 300여 개 기업 중 약 1/3이 외국인 투자 기업이다.
- 한국 기업 입주 현황: 2009년 9월 기준으로는 없다.
- 우대 조치: 특별히 외국인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는 없으나 Case by case로 니더외스터 라이히 주정부 또는 연방 정부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공단 연락처

- Industrierezentrum NOe-Sued
- 주소: Strasse 3, ECO Plus-Buerogebaede Postfach 70, A-2355 Wiener Neudorf, Austria
- 전화: (43-2236) 61626-0
- 팩스: (43-2236) 61626-40

3) 공단 입주 안내 및 홍보처

- 주소: ECO PLUS P.O.B. 1476 Lugek 1, A-1011 Wien, Austria
- 전화: (43-1) 513 7850-0
- 팩스: (43-1) 513 7850-44

나. 각 주(州)별 입지 조건 요약

물가 수준 및 실질 구매력은 100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실질 구매력은 음성 소득까지 포함한 “실질” 개념이다. 근로자 연평균 임금은 2007년 말 기준 세전 금액(2009년 9월 기준 입수가 가능한 최신 통계)이다.

1) 빈(Wien)

- 중심 도시: 빈
- 인구: 1,651,437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 29,724유로
- 특징: 오스트리아의 수도로 다수의 국제 기구 및 다국적 기업의 현지 법인이 위치해 있다. 숙련된 노동력을 구하기 쉽고, 제반인프라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이지만,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 및 인건비 수준이 높다.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스라바와의 “쌍둥이 도시(Twin City)”계획, 동구권 국가들에 근접한 지정학적 위치 등의 장점이 있는 지역이다.

2) 니더외스터라이히(Niederösterreich)

- 중심 도시: 상트 팔턴
- 인구: 1,581,422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 29,476유로
- 특징: 오버외스터라이히 주와 함께 기계 및 자동차 공업 관련 업체들이 많은 지역으로 오스트리아 유일의 자동차 조립 공장인 Magna Steyr사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수도 빈에서 가까운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입지하기에 좋은 지역 중 하나 이다.

3) 포탈베르크(Vorarlberg)

- 중심 도시: 브레겐즈
- 인구: 363,526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 26,831유로
- 특징: 스위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 특성상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산악 지역이라는 특성상 공업보다는 관광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이다.

4) 잘츠부르크(Salzburg)

- 중심 도시: 잘츠부르크
- 인구: 528,351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 26,110유로
- 특징: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인 잘츠부르크는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으나, 독일 뮌헨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계 공업 관련 업체들도 많은 지역이다.

5) 오버외스터라이히(Oberösterreich)

- 중심도시: 린츠
- 인구: 1,402,050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 27,627유로
- 특징: 오스트리아 제1의 공업 도시 린츠가 위치한 지역으로, 각종 기계 및 자동차 공업 관련 업체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세계적인 철강 기업 Voest Alpine사도 이지역에 있다.

6) 슈타이어막(Steiermark)

- 중심 도시: 그라프
- 인구: 1,202,087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 26,542유로
- 특징: 오스트리아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온천 및 휴양 시설들로 더욱 유명한 지역이다. 자동차 및 의료 장비 관련 업체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7) 티롤(Tirol)

- 중심 도시: 인스부르크
- 인구: 697,435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 24,771유로
- 특징: 산악 지역이라는 특성상 스키 등의 관광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2차 산업 등의 발달은 미미한 지역이다.

8) 케른텐(Kärnten)

- 중심 도시: 클라겐푸르트
- 인구: 560,300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 26,287유로
- 특징: 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관광지로서 더 유명한 지역이다. 제조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2004년 9월까지 한국의 기아 자동차가 클라겐푸르트에서 현지 법인을 운영했었다(현재는 수도 빈에 있음).

9) 부르겐란트(Burgenland)

- 중심 도시: 아이젠슈타트
- 인구: 279,317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 27,187유로

- 특징: 농업 등 1차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2차산업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각 주별 물가수준 및 실질 구매력 비교

주(州)	물가 수준	실질 구매력
빈	101.9	108.3
니더외스터라이히	98.0	101.5
포칼베르크	104.2	99.3
잘츠부르크	104.0	98.8
오버외스터라이히	98.2	97.9
슈타이어막	98.2	95.2
티롤	102.9	95.8
케른텐	97.2	94.9
부르겐란트	97.7	97.2

자료: KMU Forschung Austria

다. 입지 선정 시 유의점

2009년 9월 기준 오스트리아에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특혜나 인센티브 등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개별 주정부 차원의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인건비 비교 이외에 지역별로 필요한 고급 인력의 수급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는 바, 지역별 산업 특성 등을 감안한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된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운송 등의 관련 인프라 구축 여부도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다.

(자료: 오스트리아 통계청, KMU Forschung Austria, ABA 및 빈 KBC 보유 자료 종합(2009년 9월))

7. 노무관리

가. 고용

- 사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인터뷰 후 고용 계약서를 작성한다.
- 사용자는 고용 사실이 확정된 후 이를 해당 사회 보험 회사에 통고하여야 한다.
- 업체별로 견습 기간(최고 1 개월)을 거쳐 정식 사원이 된다. 견습 기간이라도 사회보험 회사에 통보가 필요하다.

나. 인력

- 오스트리아의 인력은 서유럽 내에서도 매우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생산성 향상 부문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 왔다.

다. 임금

- 오스트리아의 임금 수준은 EU 역내에서 상위권에 속하지만 안정된 노사 관계와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에 대처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 연평균 급여(2007 년 기준, 세전, 2009 년 9 월 입수 가능 최신 통계)는 27,458 유로이다.

- 법정 월 최저 임금
 - 생산직 근로자 : 818유로
 - 사무직 근로자 : 820유로

라. 임금 부대 비용

- 임금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야 한다. 부담액은 임금의 고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고용주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 및 임금에 대한 비율

의료보험료	3.70 %
실업보험료	3.00 %
사회 연금 보험	12.55 %
사고보험	1.40 %
주택건설 보조기금	0.50 %
기상피해 대책기금	0.70 %
체불임금 대책보험	0.55 %
초과 근무 보험	2.00 %
퇴직연금 펀드	1.53 %
계	25.93 %

자료: Wiener Gebietkrankenkasse, Beitragstabelle 2009/8

- 이외에도 자녀양육비 보조기금법에 의한 기금의 일정 비율을 부담한다.
- 오스트리아 제조업 부문의 평균적 임금 부대비용 구성 내역은 순 임금 대비 다음과 같다.
 - 결근에 따른 발생 비용 = 18.4%
 - 특수수당 = 23.0%
 - 퇴직금 = 6.8%
 - 법적 복지후생비 = 41.5%
 - 자율적 복지후생비 = 5.4%
 - 임금 관련 세금 = 4.2%
 - 직업 훈련비 = 1.0%
 - 기타 = 2.0%
 - 합계 = 102.3% (순임금 = 100)

마.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제도

- 사무직근로자법(Angestellten Gesetz, 약어 AngG, 제국법발포지 1921 년 292 호) 제 16 조에 의거 사무직 근로자는 특수 수당 형태의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동법은 상여금의 수준을 기본급의 최소 10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며 2009 년 9 월 기준 오스트리아 사무직 노조 연맹 및 공무원 노조에서 체결한 단체 협약에서는 1 년에 월 기본급 200% 이상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대법원 판례도 기본급 200%의 상여금을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바. 생산직 근로자 관련 상여금 법규

- 생산직 근로자들에 상여금을 규정한 노동 법규는 없으며, 오스트리아 노동법 제 12 조 1 항에 의거하여 오스트리아의 모든 생산직 근로자들은 오스트리아 노총 산하 산별 노조들이 체결한 단체 협약의 혜택을 받는다. 2009 년 9 월 기준 사용자와 산별 노조간에 체결되어 있는 단체 협약에서 생산직 근로자는 1 년에 월 기본급의 200% 이상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사. 상여금 지급 시기

- 상여금 지급 시기는 단체 협약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회사별로 차이가 많다. 공무원들과 사무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매 분기 마지막 달에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는다. 일부 회사는 휴가비와 크리스마스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여름과 겨울에 각각 100%씩 두 번 지급하기도 한다.

아. 외국인의 고용

- 외국인 고용에 대한 특별한 제약을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외국인들은 노동 허가를 취득하여야만 취업이 가능하다.
- 최근 내국인 실업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외국인에대한 노동 허가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여서 노동 허가 취득이 힘들며 이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1997 년부터는 일정한 노동허가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사무직이나 일반 생산직에 대한 쿼터는 없고, 간부급 사원이나 특수숙련공에 대해서만 일부쿼터가 있다.
- 모든 자격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쿼터가 이미 채워진 경우에는 노동허가 발급이 거부된다.

자. 연도별 평균 임금(세전 연소득 기준)

총괄

(단위: 유로)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24,772	25,100	25,704	26,500	27,458
남성	30,278	30,713	31,426	32,479	33,771
여성	18,247	18,501	19,005	19,572	20,218

주: 2009년 9월 11일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임

자료: 오스트리아 통계청, 오스트리아 노동부, 노동조합, 사회보험 협회, 빈KBC 보유 자료 종합)

생산직 근로자

(단위: 유로)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16,581	16,845	17,018	17,423	18,139
남성	19,931	20,246	20,409	20,934	21,838
여성	10,485	10,598	10,731	10,888	11,235

주: 2009년 9월 11일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임

자료: 오스트리아 통계청, 오스트리아 노동부, 노동조합, 사회보험 협회, 빈KBC 보유 자료 종합)

사무직 근로자

(단위: 유로)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28,885	29,892	30,792	31,906	33,022
남성	39,329	41,037	42,428	44,240	46,100
여성	20,360	20,331	20,861	21,521	22,164

주: 2009년 9월 11일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임

자료: 오스트리아 통계청, 오스트리아 노동부, 노동조합, 사회보험 협회, 빈KBC 보유 자료 종합)

공무원

(단위: 유로)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40,741	42,383	43,758	45,677	47,082
남성	43,552	44,961	46,370	48,487	49,875
여성	36,180	38,232	39,622	41,356	42,880

주: 2009년 9월 11일 기준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임

자료: 오스트리아 통계청, 오스트리아 노동부, 노동조합, 사회보험 협회, 빈KBC 보유 자료 종합)

8. 조세제도**가. 세제 개황**

- 자유 시장 원리에 입각하면서 사회적 시장(Social Market) 정신이 가미된 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 직접, 간접 조세부담(예산 총액에서의 동종세입의 비중)은 직접세 27.8%, 간접세 40.5%, 사회보장 부담 31.7%이다(2009년 9월 기준).
- 조세 부담률은 약 44%이며 이수치는 EU 권에서도 중상에 속하는 수준이다.

나. 연방세**1) 납세 대상**

- 거주자 납세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 납세 대상이 되고,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오스트리아 내에서의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다.
- 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 이득은 영업 이득으로 과세된다.
- 은행구좌, 유가증권, 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25% 원천 과세된다.

2) 제세 원칙

- 개인에 대한 소득은 종합 개인 소득세를 기준으로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 회사 소득에 대해서는 정액 세율(기업 소득세=한국의 법인세, 25%)가 과세된다.

3) 세율

- 부가가치세: 공산품 20%, 식료품 10%. 제 2 차 조세 개혁의 시행으로 의약품에 대한 부가 가치세율이 2009년 1월 1일부터 기존 20%에서 10%로 인하되어 적용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부가가치세율 체계

세율	구분
20%	기본세율(일반 재화 및 서비스)
10%	식품, 농수산물, 주거용 건물 임대, 승객 운송
0%	수출품 및 수출입과 관련한 일부 서비스
부가세 면세 사업자	은행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주거용 건물 임대 제외), 병원, 의사, 치과 의사

자료: 오스트리아 재무부

- 자본 투자세는 공칭 자본금의 2% 수준이다.
- 재산세는 1994 년 폐지되었다.

4) 법인 관련 세제

- 주식 배당금, 유한책임회사의 자본 참여에 따른 이익 배당에 대한 세율은 22%, payroll tax: 3%.
- 법인유지세(Koerperschaftssteuer): 모든 법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매년 1,090 유로가 부과된다. 1996 년 오스트리아 정부는 동세를 3,633 유로로 인상하였으나 1997 년 1 월 오스트리아 대법원에서 과다하다는 판결이 나와서 다시 1,090 유로로 인하하였다.
- 오스트리아의 회사법은 한국의 회사법과는 달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유지세가 부과되는 회사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뿐이다.

5) 개인 소득세

- 제 2 차 조세 개혁의 시행으로 인해 2009 년 1 월 1 일부터 새롭게 바뀐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연간 소득이 11,000 유로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면제된다.
- 연말 정산: 연말에 가족현황, 의료비 등의 지출을 감안한 소득세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에 따른 소득세 공제액을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 연간 소득에 따른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인 소득세율 변경 내용

(단위: 유로, %)

변경 전(~2008.12.31일)		변경 후(2009.1.1일~)	
연소득	세율	연소득	세율
0~10,000	0	0~11,000	0
10,001~25,000	38.33	11,001~25,000	36.5
25,001~51,000	43.59	25,001~60,000	43.2
51,001 이상	50.0	60,001 이상	50.0

자료 : 오스트리아 재무부

□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

2008년 8월 1일부로 오스트리아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폐지되었다. 2007년 7월 상속 또는 증여 재산 가액의 산정 방식이 위헌이라는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후 1년 안에 헌법에 합치하는 새로운 재산 가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는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당시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었던 오스트리아 사회당(상속/증여세 존속)과 국민당(상속/증여세 폐지)간에 관련 내용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채 동 유예 기간을 넘긴 바, 8월 1일부로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결과를 낳았다.

2008년 8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상속 또는 증여 행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관련 세액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소급 적용되고, 8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증여 행위는 재산의 이동을 파악할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오스트리아 국세청(Finanzamt)에 동 행위와 관련한 신고의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은 제외되고 현금 등 유가증권의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데, 부동산의 경우 상속 및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3.5%) 및 등록세(1.0%)의 신고 납부 의무가 존재하는 바, 추가로 신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상속/증여 행위 신고 기준

- 친족 간: 5만 유로 초과(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년 내 모든 금액 합산)
- 제3자: 1만 5,000 유로 초과(동일인으로부터 받은 5년 내 모든 금액 합산)
- 신고 기한: 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비록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긴 하지만, 이미 1994년에 폐지된 재산세와 더불어 금번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폐지는 주로 부유층이 그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다. 주세 및 지방세

- 지방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음료세로, 판매되는 모든 음료에 대해 10%가 부과되었는데 1999년 EU 법원에서 EU 법과 상치된다는 판결이 나와 폐지되었다.
- 부동산 취득세는 거래 신고액의 4.5%(취득세 3.5% + 등기료 1%)
- 각 주(州)별로 인지세 등의 개별 지방세들이 존재한다.
- 기업에 대한 세무감사는 평균 3~5년에 한 번 실시된다.

라. 관세

- 오스트리아는 1995년 1월 1일부로 EU 회원국이 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EU 국가와는 모든 교역이 무관세, 자유화되었다.
- 그간 동구의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이외에 터키, 이스라엘 등과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EU 가입으로 EU 기준으로 전환 (동 국가들은 EU와 경제 협정을 맺고 있다)되었다.

- 오스트리아의 EU 가입으로 EU의 무역정책이 모두 오스트리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간 오스트리아에서 거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반덤핑 관세 및 수입 쿼터제 등의 조치가 EU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자료: ABA, 오스트리아 재무부, 오스트리아 경제부, 오스트리아 법무부)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개요

1991년 말부터 외환 거래가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따라서 내국인의 외국 은행 구좌 운용, 국내 기업의 외국환 표시 채권 발행 등이 자유화되었다.

나. 외환 거래

외환 관리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연방중앙은행)에서 집행하나 경상 거래, 자본 거래 등이 모두 자유화되었다. 14,500유로 이상의 외환 거래의 경우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투자 자금에 대한 과실 송금에 제한이 없으며, 외자에 대한 특별 우대 조치는 없지만 국내 기업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며, 경제적 후진 지역이나 특별 산업 진흥이 필요한 부문에 지원되는 혜택을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현지 금융 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있어 법적으로 내국 기업과의 차이는 없으며, 기업신인도,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009년 7월 기준으로 대출 금리는 연 2.2~4.9% 수준인데 기준 금리인 Euro Libor의 지속적인 인하로 대출 금리 또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나,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금융 기관들이 신규 대출을 꺼려 하고 있는 바 개인이나 기업 고객 모두 과거에 비해 신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스트리아 금융 기관 대출 금리(신규 고객 기준)

(단위 : 연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7월
가계 대출	5.41	6.29	6.81	4.86
기업 대출(1백만 유로 이하)	4.11	5.11	5.47	2.71
기업 대출(1백만 유로 초과)	3.63	4.69	5.04	2.17

자료 : 오스트리아 중앙 은행(ÖNB)

오스트리아의 새로운 골치거리 “외화 가계 대출”

오스트리아 현지 통화인 유로화가 아닌 엔, 프랑(스위스) 등 외화로 일반 가계에 대출을 해 주는 상품인 “외화 가계 대출”이 2008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금융 위기 및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새로운 골치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2003년 이후 주택의 신축 및 증개축 붐을 타고 이러한 “외화 가계 대출” 금액은 200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 말 기준 건수 기준으로 총 36만 건, 금액 기준으로는 50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同 상품이 문제가 된 이유는 그 독특한 상품 구조에 원인이 있다. 외화 가계 대출은 통상 20~30년의 장기 대출 상품으로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 금액만 납부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필요한 주택 구입 자금을 25년 만기 스위스 프랑 대출의 형태로 받는 경우, 대출 당일 그 날짜 유로화 대 스위스 프랑화의 적용 환율을 기준으로 25년 뒤에 상환해야 할 스위스 프랑화 금액이 확정된다. 그리고, 그 스위스 프랑 원금에 적용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 금액(스위스 프랑)을 이자 납부일의 적용 환율로 계산하여 유로화로 환산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同 상품만의 독특한 요소가 하나 개입되는데, 바로 “적립식 펀드 또는 펀드에 연계된 적립식 보험 상품”이다. 대출을 받은 수요자는 만기 예상 환급 금액이 대출금 상환에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통상 연평균 수익률 4.5% 예상)된 이러한 적립식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함으로써 만기 대출 상환 자금을 마련하는 구조이다.

여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과 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이라는 두 가지의 위험 요소가 개입되게 된다. 2004년 이후 2008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두 가지의 위험 요소가 모두 대출을 받은 수요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2008년 하반기부터 모든 상황이 한 번에 역전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EU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2009년 9월 기준 유로화 대 스위스 프랑의 환율은 2008년 초 대비 10% 이상 하락한 1유로=1.52프랑을 기록하고 있으며, 글로벌 주식 시장의 붕괴에 따른 영향으로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0% 이하로 급락하고 있다.

2008년 9월 이후 거의 모든 금융 기관에서 신규 외화 가계 대출은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하여 스위스 프랑화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금융 기관들의 경우, 조달 비용의 상승분을 일방적으로 대출을 받은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유로화 대출로 전환시킴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강제적으로 수요자에게 떠넘기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다. 금융권의 대외 신인도 및 가용 외환 보유고

오스트리아의 금융권은 매우 견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들이 국제 신용 평가 기관에서 최고 점수인 AAA로 평가 받고 있다. 2008년 하반기 발생한 금융 위기 이후 오스트리아 금융 기관들의 동유럽에 대한 과다한 투자 및 이에 따른 부실 우려로 인해 오스트리아 금융 기관들의 건전성 및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동유럽 국가들의 국가 부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진정됨에 따라 오스트리아 금융 기관들의 대외 신인도도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2008년 말 기준, 외채는 GDP의 약 24%선인 685억 유로인데, 이 수치는 보유 외환 및 금 보유 현황을 고려할 때 전혀 무리 없는 수준이다.

(자료: 오스트리아 통계청,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ABA)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 규모

1) 소비력

오스트리아는 중부 유럽의 중심 국가로서 오랫동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 있었으며, 예술과 학문이 고도로 발달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1인당 GDP는 33,820유로(2008년 기준)로 EU 내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가 잘 완비되어 있는 관계로 노후 걱정이 없어서 저축보다는 소비 성향이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일본, 싱가포르 등이 약 30% 수준의 저축률을 보이는데 반하여 오스트리아의 저축률은 11.5%(2008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스트리아 인들은 상당한 소비력을 지니고 있지만 인구가 800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소량 주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동유럽에 대한 전초 기지로서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지정학적으로 중유럽의 교차점 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예로부터 서구와 동구를 잇는 중개교역지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동구 개혁 이후에도 오스트리아의 대 동구 교역 거점 역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는 오스트리아가 오래 전부터 구축하고 있는 대 동구 교역의 노하우 및 금융기법 등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동구 개혁 이후 오스트리아 제조업체들은 저임금 가공생산 기지로서 동구 국가를 활용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기술집약형 산업은 오스트리아 내에 구축하는 등 산업의 재배치를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

3) EU권

오스트리아는 1995년 1월부터 EU 정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관세 및 세금, 산업 표준 등은 EU권과 같다. 제품의 품질 요건과 관련, 종래 오스트리아 내부 요건과 합치해야 했으나 EU 가입을 계기로 EU 품질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나. 시장 특성

1) 거래 방식

오스트리아와 처음으로 거래하는 경우 통상 취소 불능화한 신용장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거래 회수가 늘어남에 따라 오픈 Account 혹은 연불방식의 신용거래도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진출 유망 분야

오스트리아 시장은 외국 기업 입장에서 전통적인 하이테크 산업, 예컨대 정보기술, 사무 자동화, 전자 및 전기/의료기기, 계측기기 등의 수요가 많아 이들 분야가 상대적으로 진출하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다. 화공약품 분야도 진출 전망이 비교적 밝다.

한편, 호텔 체인을 비롯한 여행 대리점, 패스트푸드 체인 등 서비스 분야도 진출 전망이 좋다. 통신 장비, 항공기 부품, 방송 장비 및 부품 등 주요 프로젝트의 입찰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분야의 입찰 참가도 검토해 볼 만하다.

오스트리아는 GATT 정부 조달 협정을 준수하고 있어서 각종 정부 조달 혹은 주정부 조달 형태로 많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건설 시장 혹은 정부 입찰 등에 참가하는 것도 오스트리아 시장 진출의 유망 분야 중 하나이지만, 입찰 관련 설명이 모두 독일어이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역시 모두 독일어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만 가능한 한국 회사의 경우 언어적 장벽이 존재한다.

3) 품질 및 가격

섬유류와 기타 일상용품 등의 저가품은 주로 중국과 동남 아시아産이 대부분이다. 승용차의 경우 독일産의 가격이 일본이나 기타 유럽 국가들의 제품보다 고가인 편이다.

다. 소비 특성

1) 개황

오스트리아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가격/품질의 정도를 잘 고려하며, 2000년대 들어 환경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에너지 및 자원 절약형, recycling 가능 여부 등이 제품 구매 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다.

일반 소비재의 경우 7~8월과 2월경의 할인 판매 기간을 많이 이용하여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외에도 특별 할인 품목 등 저렴한 제품을 선호한다.

내구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품질과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가 시간의 증가 및 건강 의식의 증대로 레저, 스포츠에 대한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분야의 대표적인 품목은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여권 신장, 나아가서는 남녀평등이 제도화되어 마케팅적 관점에서는 여성 용품의 소비 기반이 강하며, 여성의 직장 근무가 일반화됨에 따라 각종 편의용품 및 레저, 스포츠용품 등의 수요 기반도 견고하다.

2) 품질 및 가격

오스트리아 시장에서는 물량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전략은 통하지 않으며 가격과 품질의 상관 관계가 가장 중시된다. 부연하자면 가격 대비 품질의 우수성, 품질 대비 가격의 저렴성이 가장 우선적인 구매 포인트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오스트리아에 대한 수출은 반드시 A/S가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스트리아 내에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있는 외국 유명사의 경우 오스트리아 전역에 걸친 부품 교환소 및 고객 상담실 설치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구매 시즌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로서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의 종교적 명절을 전후한 기간이 특수 시즌이다. 입학 시즌은 9월이며, 이외에 학기가 시작하는 3월과 9월에 학용품 등의 수요가 많다.

라. 유통 구조

1) 유통 구조 개요

시장 규모가 비교적 작은 관계로 특정 품목의 유통 경로 및 조직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 업체의 진출이 매우 어렵다.

2) 도매상 간의 유통 단계

소매점 간에 구매 조합을 형성, 해당 구매 조합에서 공동 구매 후 체인점의 형식으로 각 소매 점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형 도매상의 경우 직접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백화점, 통신 판매점 등 취급 제품의 종류가 많은 경우 수입 에이전트나 수입 도매업자를 통하기도 한다.

3) 백화점 및 소매점 현황

백화점의 경우, 소비재 전 품목을 취급하는 대형 백화점은 많지 않으며, 가구백화점, DIY 백화점, 전자제품 백화점 등의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백화점이 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 소매점의 경우, 백화점 이외에 전문 소매점을 한 곳에 모아놓은 대형 Shopping Center들도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외에 식료품이나 일상 생활 용품의 경우에는 체인점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4) 수입품 유통 구조

전통적으로 중소 규모의 수입상이 주류를 이루어왔으나 1995년 EU 가입 이후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중소 규모의 수입업자가 몰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 특정 집단의 상권 장악 상태

1995년 1월1일 EU가입 이후 타국의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독일계 유통업체의 진출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최대의 슈퍼마켓 체인점이었던 BILLA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슈퍼마켓 체인점이 독일계 기업에 흡수되었다.

마. 한국 상품 인지도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의 결과 2009년 9월 기준 오스트리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 및 관련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TV,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와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한국 제품의 광고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후원하는 각종 스포츠 행사 또한 시청자들에게 한국 기업 및 제품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 자동차 산업

2000년대 들어 오스트리아 자동차 시장이 전반적인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차들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다. 한국산 승용차량의 오스트리아 신차 시장 점유율은 2003년 3.3%, 2004년 4.7%, 2005년 6.1%, 2006년 5.8%, 2007년 5.6%에 이어 2008년도에는 5.7%를 기록해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서유럽이나 일본산 제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소형차 및 SUV 시장에서 특히 그 성과가 두드러졌으나, 최근의 원화 강세에 따른 현지 판매 가격의 상승으로 이러한 가격 경쟁력이 조금씩 상쇄되면서 2006년에는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이 5.8%로 감소한 이래, 2007년에는 다시 5.6%로 감소하는 등 조금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008년 들어 기아차의 cee'd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SUV 위주의 대형차에서 중소형차 부문으로 한국차의 주력 제품군이 옮겨가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의 이미지가 강하나, 2008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한국산 중소형 차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IT 관련 제품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에 진입하였던 초기 단계를 벗어나 완전히 고가의 고급 제품으로서의 자리매김에 성공하였다. 한국의 S, L사의 핸드폰, TV 등의 IT 및 엔터테인먼트 가전 제품 등의 경우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가장 고품질/고가의 제품 중의 하나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대기업 제품들 이외에 무명의 중소기업 제품들의 경우 그 진출 건수도 많지 않고, 중국이나 대만 또는 독일의 무명 브랜드 제품들과 함께 치열한 가격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바. 진출 유망 상품

1) 자동차 및 오토바이용 부품 및 A/S 용품

오스트리아에는 독일 및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 바, 이들을 통한 자동차 및 오토바이용 부품 시장 진출의 전망이 밝은 편이다.

또한 오스트리아 내에서의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이에 따른 인지도 상승으로 관련 A/S 용품 및 소모품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 LCD TV

2004년을 기점으로 LCD 및 플라스마 TV 등의 평면 TV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인치 대 제품군에서는 무명 브랜드 제품들의 가격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고, 32인치 이상의 제품군에서는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유명 상표들의 시장 쟁탈전이 치열하다.

3) 엔터테인먼트용 전자 제품

젊은 층을 중심으로 MP3 플레이어, 휴대용 DVD 플레이어, MP4 플레이어 등 엔터테인먼트용 전자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4)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기

2008년 상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영 방송 ORF의 지상파 방송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DVB-T 수신기(셋톱박스),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기 등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향후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웰빙 관련 제품

인구의 고령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노르딕 워킹 폴, 마사지용 기기 등 웰빙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사. 진출 시 유의사항

1) 언어

오스트리아는 독일어 권이기 때문에 제품의 설명서나 홍보 자료 등은 기본적으로 독일어로 갖추어야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한국 상품들은 대부분 영어로만 설명서나 광고 문안이 작성되어 있어서 진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비재의 경우, 유럽산 제품들은 제품 설명서나 홍보 자료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적어도 4개 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 회사 들도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수출 대상 지역별로 대상 언어로 작성된 설명서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설명서나 홍보 자료에 4개국어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2) 지적재산권 보호

오스트리아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철저하며 대부분의 국제 협약에 가입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모조 상표나 특허권 침해 등 부정 경쟁은 엄정한 단속 대상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자료: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 Wifo 발행 Monatsberichte 2009년 7월호, Wirtschaftsblatt, Die Presse, 빈 KBC 보유 자료 종합)

2. 물가정보

(1 US\$ = 0.6937 Euro / 2009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Euro)
식품류	쌀 1kg	1.89
	계란 12개	2.63
	쇠고기 등심 1kg	14.99
	돼지고기 등심 1kg	7.99
	우유 500ml	0.65
	식용유 1L	1.69
	생수 1L	0.49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3.54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4.0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3.19
	김치찌개 1인분	11.9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총급여의 3.75%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10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38,599.00
	무연휘발유 1L	1.06
	자동차 등록비	100.0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 운전경력10년, 대인/대물커버, 1년)	3,000.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1.2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1.80
	시내버스 기본요금	1.80
	택시 기본요금	2.50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0.19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1.29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0.25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24.9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1,75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4,600.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6,200.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6,850.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99.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79.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2,034.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1,45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3,0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출산휴가일수	16주
	연간 국경일수	13일
	주5일 근무 여부	o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14.90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신문, 전문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 언론 기관

- <http://www.apa.at>
 - 오스트리아 연합통신(A.P.A.)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각종 일간 시사 정보를 볼 수 있다.
- <http://www.derstandard.at>
 - 중도 좌익계이며 권위 있는 일간지인 데어 슈탄다드(Der Standard)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일간 시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http://www.diepresse.at>
 - 보수계 일간지 중 가장 권위 있는 일간지인 디 프레세(Die Presse)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일간 시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http://www.konsument.at>
 - 오스트리아 소비자 보호부에서 운영하는 월간지 콘슈멘트(Konsument)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상품관련 유일한 소비자 보호 전문 정보지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상품 테스트 정보를 볼 수 있다.
- <http://www.krone.at>
 - 가장 대중적인 일간지. 황색 저널리즘의 대표적 기수. 스포츠, 오락, 에로틱, 가십 기사 위주로 오스트리아의 일반 대중의 삶을 파악할 수 있다.
- <http://www.austria-today.at>
 - 오스트리아 영자 일간지 웹사이트

□ 전문 잡지

- E&W(전기, 전자 제품)
 - 담당자: Mrs. Claudia Rauter
 - 전화: (3 1) 485 3149 / 팩스: (43 1) 486 9032-30
- Auto & Wirtschaft(자동차 및 관련 부품)
 - 담당자: Mrs. Auguste Bauer
 - 전화: (43 2243) 368 40-0 / 팩스: (43 2243) 368 40-593
- Die Textilzeitung(섬유, 패션)
 - 담당자: Mrs. Elke Turek
 - 전화: (43 1) 865 82 42-0
 - 팩스: (43 1) 865 82 42-10

- Metall(금속 공업)
 - 담당자: Mrs. Zwickl
 - 전화: (43 1) 795 00 57, 팩스: (43 1) 795 00 12
- Elektrojournal(전기, 전자 제품)
 - 담당자: Mr. Franz-Michael Seidl
 - 전화: (43 1) 54 664 324, 팩스: (43 1) 54 664 215
- KFZ Wirtschaft, KFZ-Perfekt(자동차 및 관련 부품)
 - 담당자: Mrs. Hentsch
 - 전화: (43 1) 795 00 57, 팩스: (43 1) 795 00 12
- Österreichische Kunststoffzeitung(플라스틱 제품)
 - 담당자: Mrs. Heide Darling
 - 전화: (43 1) 405 66 95, 팩스: (43 1) 406 86 93
- Österreichische Bauzeitung(건축 분야)
 - 담당자: Mrs. Zwickl
 - 전화: (43 1) 795 00 57, 팩스: (43 1) 795 00 12

2) 전시회 등을 이용하는 방법

전시회 등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제품의 홍보와 함께 관련 업계 동향 파악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http://www.messe.at>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오스트리아 국내 박람회 일정 및 전시회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 빈 KBC 홈페이지의 “전시 정보”항목 또는 국가 정보의 “주요 전시회 개최 일정”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전시회의 일정 및 성격 등을 검색해 볼 수 있다.

3) 관련 산업 협회 등을 이용하는 방법

직접적으로 제품과 관련이 있는 산업의 협회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각 산업별 협회의 홈페이지는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항목에 소개되어 있다.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1) 기업 검색 관련 사이트

- <http://www.compnet.at>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기업 명부 데이터뱅크이다. 각 기업별 매출액, 창립 연도, 회사 형태, 종업원 수, 취급 또는 제조 품목 등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원하는 산업 또는 품목별로 관련 회사 명단을 찾아볼 수 있다.

- <http://www.wlw.at>
 - 대표적인 독일의 기업검색 사이트인 “Wer liefert was”의 오스트리아 현지 법인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 9 개국의 기업 정보를 국가별, 품목별, 업체별로 검색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사이트이다.
- <http://www.gelbeseiten.at>
 - 오스트리아의 전화번호부(Yellow Pages) 사이트이다.
- <http://www.messe.at>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오스트리아 국내 박람회 일정 및 전시회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 <http://www.umwelttechnik.at>
 - 오스트리아 환경기술 데이터 بانک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술 정보 사이트로서 오스트리아 환경 기술 보유 기업 명단 및 기술 내용을 제공해 준다.
- <http://www.aba.gv.at>
 - 오스트리아 노사정이 공동으로 설립한 외국인 투자 유치 기관인 오스트리아 비즈니스 에이전시(A.B.A.)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연방 차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홍보 사이트이다.
- <http://www.wiiw.ac.at>
 - 빈 시정부 및 경제인 연합 그리고 노총에서 출자하여 세워진 빈 경제진흥 기금 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빈 지방 차원의 투자 유치 홍보 사이트이다.

2) 오스트리아 경제 단체 및 산업별 협회

□ 경제 단체

- <http://wko.at>
 - 오스트리아 상공인 총 연합인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는 오스트리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사용자 연합 단체이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산별로 조직된 산하 단체와 연결 가능하며 산별 단체를 통해 무역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 <http://wko.at/wien>
 - 빈 지방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빈 지역의 상공인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http://www.oegb.or.at>
 - 오스트리아 유일의 상급노조인 오스트리아 노총(Oe.G.B.)의 홈페이지로서 노동자, 사원 권익 보호 관련 정보 등 노동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http://www.iv-wien.at>
 - Industriellenvereinigung Wien/ 빈 공업인 협회
- <http://www.fafo.at>
 - Fachverband der Audiovisions- und Filmindustrie/ 음향 영상 영화

□ 산업협회

- <http://www.bauindustrie.at>
- Fachverband der Bauindustrie / 건축산업 협회
- <http://www.fashion-industry.at>
- Fachverband der Bekleidungsindustrie 의류협회
- <http://www.fcio.at>
- Fachverband der chemischen Industrie / 화학산업 협회
- <http://www.feei.at>
- Fachverband der Elektro- und Elektronikindustrie / 전기 전자산업 협회
- <http://www.oil-gas.at>
- Fachverband der Erdoelindustrie / 원유산업 협회
- <http://www.wk.or.at/fahrzeuge>
- Fachverband der Fahrzeugindustrie / 자동차 협회
- <http://www.holzindustrie.at>
- Fachverband der Holzverarbeitenden Industrie / 목재가공산업 협회
- <http://www.shoes-leather.at>
- Fachverband der ledererzeugenden Industrie / 신발 피혁산업 협회
- <http://dielebensmittel.at>
- Fachverband der lebensmittelindustrie / 식품 및 생활용품산업 협회
- <http://www.paper.at>
- Fachverband der Papierindustrie / 제지산업 협회
- <http://www.ppv.at>
- Fachverband der Papier und Pappe verarbeitenden Industrie / 제지가공산업협회
- <http://www.proholz.at>
- Fachverband der Saegeindustrie / 목재산업협회
- <http://www.baustoffindustrie.at>
- Fachverband der Stein- und keramischen Industrie / 석재 세라믹산업협회
- <http://www.textilindustrie.at>
- Fachverband der Textilindustrie / 섬유산업협회
- <http://www.fmml.at>
- Fachverband der Maschinen, Stahlbauindustrie und Metallwarenindustrie / 기계 및 철구조물, 금속가공 산업협회

(자료: ABA, 오스트리아 전시 포탈, 각 협회 및 언론사 포탈, 빈 KBC 보유 자료)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에티켓

처음 만나는 경우 자신을 먼저 소개할 필요가 있다. 악수하는 것은 인사 예절로 정착되어 있으므로 만날 때와 헤어질 때 반드시 악수를 청하는 것이 예의이다. 여성 존중 예절이 정착되어 있으므로 어떤 장소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는 언제나 여성에게 우선권이 있다. 악수를 할 때에도 여성과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흔히 영화에서 동양인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동양인과 만났을 때 은근히 그런 인사를 기대하고 있다. 동양식으로 악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는 인사법은 오스트리아인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Aperitif(식사 전 식욕을 돋구기 위해 마시는 술)를 마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사 대접을 하는 경우에 Aperitif을 권해보는 것이 좋다. 후식을 먹는 것도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식사 후 커피를 시키기 전에 후식을 권해보는 것도 예의에 속한다.

나. 접촉 시 유의 사항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오스트리아 측의 문의에 대하여 가부 간의 정확한 답변을 신속히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길이다. 거래 타진의 경우 한국 측에서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 정확한 답변을 기피하여 반축을 사는 경우가 많다. 대만이나 홍콩 등의 경쟁국에서는 신속하게 정확한 가부 의사를 전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관공서 직원들은 외국인 육체 근로자들에 대해 고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관공서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넥타이와 정장을 갖추어, 외국인 노동자로 오인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 상담 요령

상술한 대화 요령을 바탕으로 일단은 Small Talk를 진행한 뒤 시작하며, 가격 문제는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니 언제나 약간의 여분을 두고 협상을 시작하되 터무니 없이 많이 깎아 주면 의심을 하게 되므로 가능하면 현지 경쟁 가격을 고려하여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먼저 거래 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기존의 거래 가격 선에서 상담을 시작하여 기존의 거래 가격 보다 약간 저렴하게 최종 offer를 하게 되면 가격 면에서는 만족하게 된다.

대부분이 동양인에 대해서 "사귀기 힘들지만 일단 사귀고 나면 의리가 강한 사람들"이라는 막연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인사도 동양식으로 차려 자세로 머리를 굽혀 하는 등 동양적 냄새를 풍기는 것도 신뢰감을 일으키는 한 방법이다

또한 오스트리아인들은 게르만 민족 중에 북부 독일인과 비교하여 인정이 많은 편이므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상담 작전을 짜는 것이 좋다.

1) Small Talk

직접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보다는 약간의 Small talk로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 부담 없는 화제로는 가족 사항이나 취미, 스포츠 등이 알맞다. 오스트리아인들은 가족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습관이 있으므로 현지인과 대화 시 가족 사진을 보여 주는 것도 신뢰감을 일으키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2) 오스트리아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주제

대부분의 오스트리아인들은 1차 세계 대전 이후 오스트리아가 소국으로 전락한 데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콤플렉스를 해소시켜 주면서 그들로부터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스트리아를 "문화적 대국"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악, 학문 등에서의 오스트리아가 낳은 업적(항목 역사 부문 참조)을 이야기하며, 오스트리아를 "문화 대국"이라고 칭한다면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매우 기뻐할 것이다.

또한 축구, 테니스 등 운동 경기도 좋아하며, 많은 사람들이 오스트리아 황정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오스트리아 외교 관계가 1892년 조선조 고종 황제와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요셉 황제 사이에 성립되었다는 이야기도 친근감을 자아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음양 이론이나 불교의 선 등 동양 철학 및 동양 종교에 호기심이 많으므로 이러한 주제로도 친근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근자에 들어 침술, 지압, 한의학 등이 많이 소개되면서 화학적 약재가 아닌 자연산 약재를 이용한 치료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그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어나가는 것도 매우 좋다.

라.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산 선물

1) 개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간단한 선물로 족하다. 그러나 동양인들의 선물 예절은 오스트리아와 큰 차이가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많으므로 사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큰 선물을 해도 상관없다.

2) 간단한 선물

한국을 상징하는 장식이 달린 열쇠 고리가 가장 무난하며, 공산품으로서는 한국산 실크 넥타이나 여성용 실크 머플러를 좋아한다.

3) 큰 선물

전반적으로 수공예 제품은 모두 좋으며, 특히 한국 특유의 도자기 제품은 매우 큰 선물로 친다.

4) 주의

인삼주를 제외한 인삼 관련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오스트리아인에게 인삼은 그냥 보약이 아니라 단순한 정력제로만 인식되어 있어, 첫 선물인 경우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삼의 주성분의 하나인 사포닌 맛이 매우 생소하기 때문에 인삼차 등의 선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인삼 제품 중에서는 인삼주가 가장 무난하다.

마. 문화적 금기 사항

1) 식탁에서의 금기

소리를 내서 음식을 먹거나 입을 벌리고 음식물을 씹는 것은 예의에 크게 벗어난 행동이며, 수프나 국물, 국수를 후루룩 소리 내어 먹는 것은 절대 금기이다. 오스트리아 예절에는 식탁에서 트림을 하는 것도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므로, 식후에 트림이 나오는 경우 손으로 입을 막고 될 수 있는 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며, 곧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오스트리아인들은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것을 매우 싫어하므로 상담 전에 식사를 한 경우 에는 양치질을 하고 상담에 응하는 것이 좋다.

2) 흡연 시 예절

미국에 비하면 흡연에 대해 관대한 편이지만 흡연을 원할 경우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식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예의이므로 반드시 상대방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3) 음주 관련 예절

일반 식당이나 술집에서는 포도주, 위스키, 맥주 등을 잔으로 팔고 있으나, 식사 대접을 할 경우 포도주는 병으로 시키는 것이 예의이다. 식사 때나 술자리에서나 각자 주량에 따라 자신의 술만을 주문하거나 스스로 따라 마시는 것이 습관이므로, 상대방의 잔이 빈 경우 가볍게 한번 정도 권하는 정도로 족하다. 절대로 술을 강권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잔이 빈 경우에는 상대방에 구매 받지 않고 술을 주문하거나 따라 마셔도 상관없다. 대부분 포도주나 맥주를 즐겨 마시며 위스키나 꼬냑 또는 브랜디 등 독주는 식후 소화를 위해 한잔 정도 마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식사에 곁들이는 반주는 포도주나 맥주 정도로만 하는 것이 좋다.

4) 외국인으로서 반드시 피해야 할 담화 주제

19세기말 프로이센과 전쟁에 패배하여 독일 지배권을 상실한 사건을 뼈 아르게 생각하고 있으며 독일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반면 오스트리아는 1차 세계대전 후 소국으로 전락한 데 대해 약간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독일에 대한 지나친 칭찬은 금하는 것이 좋다. 같은 소국이면서 독일어 문화권인 스위스에 대해서는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스위스에 대한 지나친 칭찬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국민의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이며 영미권의 개신교에 대해서는 유사 종교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음으로 한국에 많이 퍼져 있는 개신교 관련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종교를 물어올 경우 가톨릭이 아닌 여타 기독교 신자라면 간단히 개신교 신자라고만 밝히고 주제를 바꾸는 것이 좋다.

무교라고 하면 공산주의적 무신론자를 연상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종교를 물으면 가급적 일정한 종교를 말해주는 것이 좋다. 잠재적인 종교적 갈등이 존재하는 유대교 및 유대인들에 대한 논의도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불교, 유교, 도교 등 동양 종교를 믿는다면 그대로 밝히면서 다소 설명을 곁들여도 좋다. 동양 종교라면 다른 문화권 지역의 종교로서 인정해 주면서 호기심을 갖는 반면 그리스도교는 자신들의 종교라는 문화적 우월감과 선입감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이다.

바.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1) 상담 작전

가격 문제는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니 언제나 약간의 여지를 두고 협상을 시작한다. 그러나 터무니 없이 많이 깎아 주면 오히려 좋잖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국제 경쟁 가격을 고려하여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가끔 30일 이내에 결재할 경우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2) 지불 조건

오스트리아와 처음으로 거래하는 경우, 통상적인 안전 장치로서 신용장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높은 은행 수수료 때문에 대체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보통의 경우 T/T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현지 여건에 맞게 거래 조건에 있어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3) 장기적 안목의 접근 필요

오스트리아 기업들의 속성상 한 두 번의 거래를 위해 생산업체를 물색하는 경우는 드물며,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가 가능한 생산 업체와의 접촉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은 소량 주문을 통해 제품의 시장성 테스트, 생산 업체의 약속 이행 여부, 품질 준수 여부 등 거래의 기본 요소들을 점검한 후 신뢰가 쌓이면 주문량을 늘리는 관행을 보인다. 따라서 초기 단계의 소량 주문에 탄력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신뢰가 구축되고 나면 장기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초기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한국 업체들이 접촉 방법의 미숙으로 거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 바이어 입장을 고려한 접촉 방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바이어에게 제품 검토를 요청할 경우, 회사 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각종 거래 조건, 제품 설명서, 샘플 등 제품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발송한 후, 거래 희망 여부를 팩스, 전화, e-메일 등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오래된 기업의 경우 아직 e-메일을 사용하지 않거나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회사 로고가 명기된 팩스를 더 신뢰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바이어가 선호하는 통신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 업체들은 한국 업체가 보낸 서류에 대한 검토도 자신들의 업무 계획에 맞춰 검토 하기 때문에 독촉할 경우 오히려 반감을 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는 구매 부서가 별도의 회사로 분리되어 구매 본부의 형태로 존재 하는 경우가 많고 구매 본부의 본연의 업무인 제품 소싱이 연중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회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지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독촉할 경우 오히려 반감을 낳아 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담당자를 알게 되면 관련 자료를 송부한 후 회신이 없더라도 좀 더 기다리거나 우호적인 안부 편지를 규칙적으로 보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수년 전에 KBC가 제공했던 특정 국내 업체의 카탈로그를 내내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 수요가 생기자 뒤늦게 비로소 해당 업체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꾸준하고 인내하는 장기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자료: 오스트리아 바이어 의견 및 빈 KBC 보유 자료 종합)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일반적인 애로 사항

계약 조건의 위반 또는 불성실 이행 등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들은 대부분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그 배상액 등이 확정 지어진다.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 이외에 실제로 거래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고 또 향후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통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상호 신뢰를 저버린 경우”이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현지 파트너의 도움으로 시장 진입에 성공한 경우(별도의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다른 거래선과의 접촉을 직접 시도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오스트리아가 인구 800만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시장이라는 점, 따라서 해당 분야별로 그 플레이어들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상호 신뢰 관계의 파괴 행위는 금방 관련 업계에 알려져 해당 한국 업체의 시장 진출을 막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 2005년 상반기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한 건 있었고, 해당 한국 업체는 추가로 바이어를 찾는 데 큰 애를 먹은 것은 물론, 한국 기업 전체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법적인 내용 못지 않게 상호 간의 신뢰를 중요시하는 그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작은 이익을 쫓다 큰 것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나. 분쟁 발생시 유의할 점

1) 분쟁 해결 절차

무역상의 분쟁이 발생 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이 우선적으로 시도되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을 시 계약 조항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지하여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 시 현지의 변호사나 법무 법인 등을 통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대표적 변호사 및 법무법인

- Strohal & Kretschmer
 - 주소: Opernring 10, A-1010 Wien
 - 전화: (43 1) 5131911
 - 팩스: (43 1) 5131911-24
 - e-메일: advocates@advocates.cc
 - 홈페이지: www.advocates.cc
 - 추천 사유: 대표 Dr. Theodor Strohal 은 한류 팬으로서, 한국에서 3 년간 생활하며 화염종 불도를 배운 바 있어서 한국에 관심이 많다. 동 합동 법률사무소는 경제 분야 전문이며, 독일 뮌헨과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다.
- DSC, Rechtsanwalt Partnerschaft.
 - 주소: Währinger Strasse 2-4, A-1090 Wien
 - 전화: (43 1) 3194520
 - 팩스: (43 1) 3198322
 - e-메일: dscvienna@aon.at
 - 홈페이지: www.dscvienna.at
 - 추천 사유: 중대형 법무 법인으로서, 한국 S 전자의 오스트리아 자회사 설립에 관여한 바 있다.
- WOLF THEISS & PARTNER
 - 주소: Schuberting 8, A-1010 Wien
 - 전화: (43 1) 51510
 - 팩스: (43 1) 515 1025
 - e-메일: choenig@wtp.at
 - 홈페이지: www.wtp.at
 - 추천 사유: 대형 법무법인으로서, 동유럽 지역에 여러 지사를 두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큰 회사이다. 아시아 지역 회사들과 경험도 있다고 하며, 한국 회사와 접촉을 바라고 있다.
- Braunegg, Hoffmann & Partner, Rechtsanwälte
 - 주소: Gonzagagasse 9, A-1010 Wien
 - 전화: (43 1) 53 110-0
 - 팩스: (43 1) 53 110-10
 - e-메일: office@bhp-law.at
 - 홈페이지: www.bhp-law.at
 - 추천 사유: 빈 변호사 협회가 추천한 회사이다.
- 빈 변호사 협회(Rechtsanwaltskammer Wien)
 - 주소: Ertlgasse 2/Rotemturmstrasse 13, A-1010 Wien
 - 전화: (43 1) 533-27180
 - 팩스: (43 1) 533-271844
 - 홈페이지: www.rakwien.at

(자료: 빈 KBC 자료 종합)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성공 사례

1) 지사화 사업 성공 사례를 통한 유럽 시장 진출

한국의 A사는 자동차 알루미늄 휠 전문 생산 업체로서 제품의 디자인, 품질,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다. 그러나 유럽 시장에 대한 마케팅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바이어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빈 KBC는 Marketing Research를 하면서 A사 제품이 디자인, 가격,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적극적인 마케팅만 하게 되면 오스트리아 및 유럽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오스트리아의 몇몇의 바이어가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그 중 한 바이어를 선택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로 방향을 잡고 A사에 관심 바이어를 소개한 후 즉시 A사의 카탈로그, 가격표 및 필요한 정보를 보내도록 의뢰하였다.

카탈로그가 바이어에게 전달된 뒤에도 바이어의 질문 사항이나 요구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곧바로 A사에 전달함으로써 바이어와의 신뢰감 쌓기에 노력하였다. 때마침 한국에서는 Automobile 전시회 바이어 초청 상담회가 있었고 빈 KBC는 오스트리아 D사를 한국으로 초청하게 되었으며, 전시회 후에는 A사를 방문하도록 주선하였다.

바이어는 A사를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둘러본 후 더욱 큰 신뢰감을 갖게 되었으며 유럽 수입을 위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논의한 후 약 2개월 후에 첫 오더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거래 첫 해인 2004년 상반기 17만 유로, 하반기 15만 유로의 주문이 이루어졌다.

오스트리아 D사를 통하여 유럽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한 한국의 A사는 그 이후 2004년 9월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전시회에 참가하여 유럽 각 나라의 좋은 바이어들을 만나게 되었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및 유럽 여러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2) 사이버 상담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성공의 열쇠

대전에 위치한 K사는 아로마 성분이 함유된 샤워헤드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2005년 가을 시장 개척단의 일원으로 비엔나를 방문하여 몇몇 업체들과 상담을 하였는데, 그 중 유럽 여러 나라에 판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E사가 K사의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또한 즉석에서 샘플도 구입하였다.

샘플을 테스트한 E사는 더 심도 있는 시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몇 가지 제품에 대해 더 많은 양의 샘플을 원하였으며, K사는 K사의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 스페인의 B사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에 있는 B사가 보낸 제품은 오스트리아 업체인 E사가 원했던 제품이 아니었으며 또한 배송도 오랜 시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따라서 E사는 한국의 K사에 이런 문제점들을 메일로 알렸으나 한국의 K사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

2006년 1월 초, 오스트리아 E사는 이러한 일련의 진행 상황들을 빈 KBC에 알려왔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문한 샘플들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한국의 K사에 대한 적지 않은 실망감을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빈 KBC에서는 이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오스트리아 E사가 K사의 제품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게 되었다.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사이버 상담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하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E사와 K사의 사이버 상담을 주선하게 되었다. 또한 E사와 K사와의 의사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빈 KBC에서 통역을 주선하여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빈 KBC에서 주선한 이 사이버 상담은 기대 이상의 큰 효과를 보게 되었다. 사이버 상담을 통해 보여진 K사의 진실되고 정성 어린 제품에 대한 설명과 자부심, 그리고 성실한 자세는 오스트리아 E사를 감동시켰고 K사에 가졌던 실망감을 신뢰로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 사이버 상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 E사는 즉시 K사로부터 정확한 샘플을 배송 받았으며 샘플 테스트 후 동 제품이 오스트리아 시장에서 가능성 있는 제품으로 판단되어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계약 조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한 번 더 사이버 상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몇 번에 걸친 사이버 상담으로 오스트리아 E사는 K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으며 K사는 2006년 4월 E사로부터 약 11만 유로의 첫 오더를 받게 되었다.

(자료: 빈 KBC 보유 자료 종합)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 구하기

- 임대료
 -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방미터당 10~20유로 정도이다. 입주계약 시 임대보증금으로 월 임대료의 2배 내지 3배를 지불한다. 복덕방을 통하여 소개받을 경우 소개비로 임대료의 3배까지 지불한다.
- 임주의 난이도
 - 복덕방을 통하여 주택을 구할 경우 어려운 점은 없으나 소개비가 비싸며, 개인적으로 구할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 임차계약 해지 시 빈발하는 문제
 - 임대계약 시 지불한 보증금(Kaution)에 대하여 임대물의 손상을 이유로 전액 환불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임대계약 시 계약서를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물을 입주전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돌려줄 것을 명시하는 조항도 있음).
- 임차계약 만기이전에 임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통고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계약서에 준하며, 보통의 경우 3달 이전에 통보하여야 함).
- 외국인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 1인당 최소한 10 제곱미터가 확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3인가 족의 경우 최소한 30 제곱미터 이상 되는 집을 얻어야 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나. 주거등록절차

- 집을 구하고 나면 주소지 경찰서로 가서 주거등록을 해야 한다. 주거등록을 위해서는 여권과 사진 2매 그리고 주거등록서식이 필요한데, 주거등록서식(Meldezettel, 멜데제텔)은 각 구청의 주거 등록과 (Meldeservice im Magistratischen Bezirksamt)에 비치되어있고, 웹사이트(<http://link.help.gv.at/besucher/db/formularauswahl.formular?id=819>)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다. 체제허가 연장 신청

- 체제허가 만료 1개월 전에 허가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관례이다. 제출서류는 여권, 사진 2매(최초 연장신청에만, 이후 1매), 재정증빙서류(월급명세서, 납세금 실적 등), 집계약서, 주거등록서류 등이다.

라. 구좌개설

- 구좌를 개설할 때, 전화요금, 전기/가스요금 등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좋다. 지점이 많은 오스트리아의 대형은행, Bank Austria/Creditanstalt에 개설하면 한국과의 송금에도 편하다.

마. 전화신청

- 일반전화는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지역별로 2주에서 6개월 등 신청 후 대기 기간이 천차만별이다. 핸드폰의 경우 5개 회사가 경쟁 중이며 가격도 싼 편이다.

바. 교육

1) 현지 교육 체계

오스트리아의 교육 체계

구분	나이	학년	졸업시험
Kindergarten	3~6		
Volksschule	6~10	1~4	
Hauptschule	11~14	5~8	
Gymnasium(Unterstufe)	11~14	5~8	Matura
Gymnasium(Oberstufe)	15~18	9~12	Matura
HTLS	15~19	9~12(13)	Matura
HAK	15~19	9~12(13)	Matura

- 초등학교(Volksschule)부터 중학교(Hauptschule, Gymnasium Unterstufe)까지 법적 의무 교육으로서 무상교육이고, 고등학교 과정(Gymnasium Oberstufe, HTLS, HAK)은 법적 의무 교육은 아니나 입학할 경우 등록금이 면제된다.
- 유치원(Kindergarten)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상이 아니며, 사립의 경우 월 200~300유로, 교회 및 각 자치구 병설 유치원(시립)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되나 기본적으로 식비 및 견학 등 기초 소요 비용 등으로 월 50~150유로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 대학 교육: 오스트리아에서는 Matura(우리식의 수학능력시험)를 통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원하는 대학의 원하는 학과에서 수학이 가능하다. 특정학과(의학, 심리학 등) 입학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성적이 좋아야 하는 독일과 달리 오스트리아에서는 원칙적으로 Matura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대학, 어떤 학과든 자유롭게 선택, 수학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 심리학, 법학 등 특정 인기학과의 경우 학생들이 몰리는 경향이 심해져 강의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지자 특정 학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예를 들면, 매 학기 천 명 이상의 신입생이 몰리는 심리학과 의 경우, 입학 1년 내에 특정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퇴학당하는 일명 Knock-out Test를 도입하였으며, 의대에서도 입학 시험을 치르자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연간 등록금은 700유로 (오스트리아 및 EU 국가 출신 학생) 정도이며, 그 이외 외국 학생의 경우 2배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나 OECD 국가가 아닌 경우 반액 정도 감액받을 수 있다.

2) 국제 학교

- 현재 수도 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제학교는 다음과 같다.

□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Vienna(AISV)

- 주소: Salmansdorfer Strasse 47, A-1190 Vienna
- 전화: (43 1) 40132-0
- 팩스: (43 1) 40132-5
- 홈페이지: www.ais.at

□ Vienna International School(VIS)

- 주소: Strasse der Menschenrechte 1, A-1220 Vienna
- 전화: (43 1) 203 5595
- 팩스: (43 1) 203 0366
- 홈페이지: www.vis.ac.at

□ Danube International School, Vienna(Danube)

- 주소: Josef Gall Gasse 2, A-1020 Vienna
- 전화: (43 1) 720 3110
- 팩스: (43 1) 720 3110-40
- 홈페이지: www.danubeschool.at

사. 자동차 구입

- 오스트리아의 연간 자동차 신차 시장의 규모는 30만 대 수준이며, 신차의 경우 Mercedes Benz, BMW, Volkswagen, Audi, Opel 등의 대리점을 통해서만 유통되므로, 몇 군데 대리점을 접촉해 보고 가격 및 옵션을 잘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반적인 가격은 한국에서 구입할 경우보다 비싼 편이다. 특히 한국과 비교하여 기본 옵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무척 많은 바,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중고차 구입시에는 직거래보다는 가격이 다소 높으나 1년 또는 2년의 중고차 개런티를 부여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안정 및 품질의 보장 측면에서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중고차 매장을 직접 방문하기 이전에 www.car4you.at와 같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차종 관련 사전 정보를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타 차량과 관련한 일반 정보는 www.oeamtc.at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아. 비상전화번호

- 경찰: 133
- 화재: 122
- 응급환자: 144

자. 비품 구입

-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은 대형체인점에서 구입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

차. 병원

1) 보험 가입

오스트리아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의료시설의 이용이 무료이다. 대개 공보 보험과 사보험으로 구분되며 주재원들의 경우 Uniq, Allianz 등과 같은 사보험이 유리하다.

- 공보험 : 공보험인 Wiener Gebietskrankenkasse는 가족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보험료를 산정 하는데 보통 월 250~300 유로 수준이다. 최초 보험료 불입 6개월 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 이용 시 환자의 추가 부담이 거의 없는 대신 시 운영 병원이나 공보험 취급 의사에게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일반의와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을 경우 약간의 개인 부담액을 지불하고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사보험 : 가족 수, 성별, 나이, 기존의 질병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공보험보다 비싸다. 입원 치료의 경우 병원이 직접 보험 회사에 청구하며 통원 치료는 환자가 우선 치료비를 지불, 추후 환급 받는 방식인데, 환급액은 보험료에 따라 청구액의 70~100% 수준이다. 약을 구입하였을 경우 영수증을 보험 회사에 송부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2) 의료 시설

□ 종합 병원

- AKH(대학병원)
 - 주소: Währinger Gürtel 18-20, A-1090 Wien
 - 전화: +43-1-40400-0
- Sozialmedizinisches Zentrum Ost Krankenhaus Donauspital
 - 주소: Langobardenstrasse 122, A-1220 Wien
 - 전화: +43-1-28802-0

- Wilhelminenspital
 - 주소: Montleartstrasse 37, A-1160 Wien
 - 전화: +43-1-49150-0
- Semmelweis Ignaz Frauenklinik(산부인과 병원)
 - 주소: Bastiengasse 36-38, A-1180 Wien
 - 전화: +43-1-47615-0
- St. Anna Kinderspital(어린이 병원)
 - 주소: Kinderspitalgasse 6, A-1090 Wien
 - 전화: +43-1-40170-0
- Rudolfstiftung
 - 주소: Juchgasse 25, A-1030 Wien
 - 전화: +43-1-71165-0

□ 한인 병원 및 약국

- 임상심리/심리치료/상담(Dr. 이규영)
 - 주소: Hohweggasse 1/10, A-1030 Wien
 - 전화: +43-1-712 7888
- 개업의/침술(Akupunktur) (Dr. 강유송)
 - 주소: Kaiser Strasse 10, A-1070 Wien
 - 전화: +43-1-526 8976
- 개업일반의(Dr. 서혜숙)
 - 주소: Zayagasse 9, A-2130 Mistellbach
 - 전화: +43-2572 3125
- 약국(Dr. 박부식)
 - 주소: Bahnstasse 16, A-7151 Wallern
 - 전화: +43-2174 2255

카. 비상의료대책

- 시내에서 사고 및 응급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 시내 종합병원의 응급실은 24시간 개방
 - 응급환자 관련 문의전화는 401 이며 동 전화를 통해 응급조치 방법과 사고지에서 가까운 병원을 안내 받을 수 있음.
 - 문의전화 401를 통해 구급차를 부를 수도 있는데 구급차를 사용할 경우 약 250~300유로의 구급차 사용 비용을 추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오스트리아에서 의료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구급차 사용의 적부 여부를 보험회사에서 추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보험회사에서 사용료를 책임짐.

- 시외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헬리콥터 수송이 필요한 경우
 - 내무부 소속 항공 앰불런스 전화: 1717
 - 산악 조난사고 발생시: 140
 - 항공 앰불런스 사용 비용은 약 750유로
 - 오스트리아에서 의료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항공 앰불런스 사용의 적부 여부를 보험 회사에서 추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보험회사에서 사용료를 책임진다.
- 경미한 환자의 비상 의료대책
 - 병원의 진료시간은 일반적으로 월~금: 08:00~18:00이며 반드시 예약을 요구하는 병원이 많으므로 전화로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토요일, 일요일은 대부분 휴진).
 - 일반진료시간 이외에 급히 진료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급작스러운 치통이나 급성 장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531160으로 전화하면 당일 야간(또는 휴일)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주소를 알 수 있다.
- 약국
 - 약국의 경우 평일 08:00~18:00까지 영업하며 대부분의 약국이 12:00~14:00 점심휴식 시간이 있다(토요일은 08:00~12:00, 일요일은 휴업).
 - 휴일이나 야간에는 지역별 약국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영업하는데 1550으로 전화하면 당일의 휴일/야간 영업하는 약국의 주소를 알 수 있다. 또 각 약국 입구에 그날의 야간 영업하는 약국의 주소가 게시되어 있다.

타. 연금 제도

1) 가입 의무자

- 소득이 월 333.16유로 이상인 사무직 근로자와 임금 노동자
- 직업 훈련자
-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영자
-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을 하는 자로, 연간 소득이 6,453유로(부업인 경우 3,713유로) 이상인 사람
- 용역 계약자로 월 소득이 333.16유로 이상인 사람(자유 직업자로 간주함)
- 오스트리아에 주소가 있는 가정주부, 저소득 근로자는 신청시 연금 가입 가능
- 기타 15세 이후의 학교 교육 기간, 군복무 기간, 출산, 상병, 실업수당 수급 기간 및 자녀 양육 기간(최대 48개월)도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된다.

2) 연금 급여의 종류, 지급액 등

□ 노령 연금

- 65세(여자 60세) 도달자로서 최종 30년 중 가입 기간이 180개월 이상이거나 가입 기간이 300개월 이상이거나 또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경우
- 가입 기간이 45년(여자 40년) 이상인 61.5세(여자 56.5세) 도달자로 소득이 월 333.16 유로 이하이고 일정 요건 해당자는 조기노령연금 청구 가능

- 65세 미만의 지급개시 연령은 2004년 7월 1일부터 분기당 1개월씩 증가하며, 2017년 10월부터는 65세 이후부터 지급되게 된다.

□ 장애 연금

- 교육 수준이 비슷한 가입자에 비하여 소득능력을 50% 이상 상실한 자로서, 최종 10년(50세 이후의 1개월당 2개월 추가) 중 보험료 납부 기간이 60개월 이상(50세 이후의 1개월당 1개월 추가), 가입 기간이 300개월 이상 또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경우 (57세 이상자에게는 수급 요건이 완화됨)
- 부분 연금: 소득이 월 958.3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분 연금 지급

□ 유족 연금

- 사망한 가입자가 사망 당시 장애 연금의 수급을 위한 가입 기간이나 보험료 납부 기간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연금 수급자였던 경우

3) 연금 청구 기관 : 오스트리아 연금 공단(www.pensionsversicherung.at)

파. 유용한 생활독일어

1) 발음규칙

- 일반적으로 알파벳을 영어 발음 기호식으로 읽어 주면 된다.
 - 예: Tante = 탄테(고모, 이모), Glass = 글라스(유리, 유리잔)
- 예외
 - Ae = ऐ 예: Bae = 배
 - Oe = 내에 예: Oel = 왜엘
 - Ue = ㄱ 예: Huelle = 휠레
 - Ei = 이 예: Bei = 바이
 - CH = ㄱ 흐 예: Buch = 북흐
 - EU = ㄴ이 예: Deu = 도이
 - TSCH = 취 예: Deutsch = 도이 취
 - SCH = 슈 예: Schule = 슐레
 - W = 영어의 V로 발음 예: Wolle = (volle) 볼레
 - Q = 영어의 KV로 발음 예: Quelle = (Kveller) 크벨레
 - V = 영어의 F로 발음 예: Voll = (Foll) 폴
 - R = r이 단어의 끝에 올 때 및 자음 앞에 있을 때에는 "ㄴ"로 발음. 예: Herr = 헤어

2) 인사말

- 안녕하세요?
 - Gruess Gott(그뤼스 곱)
- 좋은 아침입니다.
 - Guten Morgen(구텐모르겐)

-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 Ich komme aus Korea(이히 콤메 아우스 코레아)
- 나는 Mr./ Mrs./ Miss 김 입니다.
 - Ich bin Herr / Frau / Kim.
 - 이히 빈 헤어 / 푸라우 김
- 다음에 뵙겠습니다.
 - Wiedersehen(비더제엔)
- 또 전화합시다.
 - Wiederhören(비더회른)
- 감사합니다.
 - Danke schoen(당케 쉐엔)

3) 식품관련 독일어

쇠고기 Rindfleisch	○ 국거리용 = Suppenfleisch - 장조림용 = Rindfleisch fuer Gulasch - 튀김용 = Rinder schnitzel - 갈비찜용 = Beinfleisch - 막불고기감 = Hintere Ausgeloeste - 등심 = Roastbraten - 안심 = Beiried - 스테이크용 안심 = Lungenbraten vom Rind
돼지고기	○ 장조림용 = Schweinefleisch fuer Gulasch ○ 삼겹살 = Schweine bauchfleisch ○ 돼지갈비 = Schweine Ripperl ○ 불고기용 = Schweineschulter(지방이 적은 부위), Schopfbraten(지방이 많은 부위) ○ 돼지안심 = Lungenbraten vom Schwein
생선	○ 대구 = Dorsch ○ 가자미 = Scholle ○ 고등어 = Makrelle ○ 갈치 = Degenfisch ○ 청어 = Hering ○ 정어리 = Sardine ○ 광어 = Heilbutt ○ 연어 = Lachs ○ 바다장어 = Aal ○ 아구 = Seeteufel ○ 홍어 = Rochen ○ 참치 = Thunfisch ○ 홍합 = Mies muschel ○ 오징어 = Tintenfisch ○ 새우 = Schrimps ○ 대하 = Garnellen ○ 굴 = Austern ○ 문어 = Oktopus

4) 생활용어

- 이것은 얼마입니까?
- Was kostet das?(바스 코스테트 다스)
- 계산해 주세요!
- Bitte zahlen!(비테 짤렌)
- 영수증을 주십시오.
- Quidung bitte(크비통 비테)

하. 식품관련 무게 단위

보통 1 kg 이하의 단위에는 Deca(Deca gramm의 준말)를 많이 사용한다.

- 1 Deca(데카) = 10 g
- 예: 100 g = 10 deca, 250 g = 25 deca, 600 g = 60 deca
- 단: 500 g = Halbes kilo, 1.5 Kg = Andert Halb killo

(자료: European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http://www.ecis.org/search2.asp>), ABA, 빈 KBC 보유자료 종합)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특성

대체적으로 대서양 기후의 영향이 많으나, 동부 지역으로 갈수록 대륙성 기후 특징이 점점 두드러진다.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으며 겨울에는 구름 낀 날씨가 계속되는 것이 상례이다.

연평균 기온은 15~18도이며 강수량은 그리 많지 않으나 보슬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조심해야 한다.

- 동부: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은 덥고 겨울에는 눈이 적은 편이며 서리가 내리는 기간이 비교적 짧다.
- 서부: 편(Foehn) 현상이 자주 일어나며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온다.
- 남부: 일조량은 많은 편이나 알프스 영향으로 일교차가 크며 강수량도 많다.
- 알프스 산간 지역: 강수량은 그리 많지 않으며, 여름에는 대체적으로 건조하고 고온을 보이거나 비가 오면 급격한 온도 강하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겨울철이 길고 눈이 많다.

2) 주요 도시의 기후

오스트리아 동부 지역에 위치한 수도 빈의 경우 겨울이 길고 겨울에는 햇볕 보기가 힘들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강수량은 그리 많지 않으나 비가 오는 날이 많다.

빈시의 월평균 최고 및 최저 기온

(단위: 섭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High	19	15	18	25	31	35	37	33	25	21	15	12
Low	-8	-1	1	1	3	10	11	12	5	1	-3	-5

주: 2007년 기준(2009년 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인스부르크(서부 지역에 해당)의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며 여름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어 기온이 높더라도 불쾌 지수가 낮다.

인스부르크 시 평균 기온

(단위: 섭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High	17	15	23	28	32	33	35	32	26	24	16	10
Low	-6	-5	-3	2	5	9	9	8	4	0	-8	-9

주: 2007년 기준(2009년 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그라츠(남부 지역에 위치)시의 경우에는 비교적 일조량이 많고 강설량은 적은 편이나 알프스 영향으로 겨울이 매우 춥다.

그라츠 시 평균 기온

(단위: 섭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High	15	15	22	27	31	34	38	33	26	23	15	10
Low	-7	-5	-3	-1	5	10	9	10	4	-1	-4	-10

주: 2007년 기준(2009년 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연간 도시별 일기(2007년)

도시	강수량	우천 일수*	강설 일수	연간 일조 시간
빈	864 mm	157	9	2,203
인스부르크	841 mm	171	13	2,145
그라츠	788 mm	127	6	2,261

주: 2007년 기준(2009년 9월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우천 일수 = 0.1 mm 이상의 강우가 있었던 날수의 합계

자료: 오스트리아 통계청

3) 출장 시 추천 복장

- 초봄(3월, 4월) 및 늦가을(10월)
 - 매우 추운 날씨와 따뜻한 날씨가 반복되므로 겨울 복장 및 봄철 옷 동시 지참
- 늦봄(5월)
 - 대부분 따뜻한 편, 봄철 및 여름복장 지참. 우천 후 급격한 기온강하가 있을 수 있으니 잠바나 스웨터를 1벌 정도 지참하는 것이 좋음.
- 여름(6월, 7월, 8월)
 - 대부분 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우천 후 급격한 기온 강하가 있을 수 있으니, 잠바나 스웨터를 1벌 정도 지참하는 것이 좋음.

- 초가을(9월)
 - 한국의 10월 정도의 날씨, 온난한 기후
- 겨울(11월, 12월, 1월, 2월)
 - 겨울 옷 준비

나. 시차/근무 시간

1) 시차

□ 동계 시간

- 우리나라와의 시간 차는 KST-8시간으로 한국이 24시일 때 오스트리아는 아직 16시이다. 동계 시간은 매년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시작되어 다음해 3월 마지막 토요일에 끝난다.

□ 하계 시간(Summer Time)

- 하계에는 서머타임이 실시되어 한국과의 시간차가 7시간으로 단축된다. 즉 한국이 24시일 때 오스트리아는 17시이다. 하계 시간은 3월 마지막 일요일에 시작되어 그 해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끝난다.

2) 근무 시간

□ 일반 직장의 근무 시간

- 근무처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00~12:00, 13:00~17:00며 금요일에는 오전 근무만 하는 직장도 많다. 일반적으로 토·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법정 한도 근무시간은 40시간이다.

□ 관공서 근무 시간

- 관청의 경우, 대민 업무를 오전에만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청 관련 업무는 반드시 오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목요일에 한해 13:00~16:00에 대민 업무를 보는 관청도 있다. 토·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 일반 상점의 개폐 시간

- 2008년 1월 1일부터 개장 시간법(Opening Hour Acts)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오스트리아 소매 유통점의 영업 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주당 최대 72시간으로 확대되었다.
- 식료품 관련 상점의 개폐 시간은 08:30~18:30 또는 19:30까지이다. 상가 지역에서는 토요일 08:30~17:00까지 영업을 하나 기타 지역의 상점들은 12:30까지만 개정하는 경우도 흔하다. 일요일은 시내 중심가의 토산품 상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휴점한다.

- 이 밖에 크리스마스 시즌, Euro 2008 대회 기간 등 관광객들이 몰리는 특별 시즌에 한해 시내 중심 쇼핑가 등에 일요일 영업을 허용하는 등 한시적으로 탄력적인 영업 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 식당의 개폐 시간

- 일반 식당의 경우, 낮 12시에 개점해 15시까지 영업, 그 후 약 3시간 동안 휴점한 후 18시쯤 다시 개점하는 것이 상례이다. 현지 중국 식당은 물론, 한국 식당의 경우도 이러한 관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15~18시 사이에 식사를 원할 경우,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은행의 개폐 시간

- 월, 화, 수, 금요일은 08:30~12:30 및 13:30~15:00이며, 목요일에는 08:30~12:30 및 13:30~16:30(일부 은행의 경우 17:30)에 개점한다. 시내 중심가 은행의 경우는 점심 휴식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추세이다.

□ 개폐점 시간에 규제를 받지 않는 상점들

- 역이나 공항 내의 슈퍼마켓이나 상점들은 매일 23시까지 영업한다. 상점 개폐 시간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주유소에서 편의점으로 운영하는 편의점들은 일요일을 포함하여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종종 있다

□ 회계 연도

- 정부 및 국영 기업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민간 기업의 경우도 대부분 이 사례를 따르지만 간혹 특정한 달(예를 들어 3월 혹은 7월)을 기점으로 회계 연도를 시작하는 기업도 있다.

다. 주요 단위

1) 도량형

- 거리에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무게에는 Kg 및 Gramm을 사용하는데 10 Gramm을 1 Deca(데카)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유용한 현지어 참조). 일반적으로 1kg 이하의 물건을 사면서 무게를 표시할 경우 Dekka라는 단어를 사용한다(소시지, 치즈 등을 구매할 때).
- 폰트(Pfund)는 500Gramm을 뜻한다.

2) 전기 규격

- 50 Herz, 220 Volt
 - 한국에서 사용되는 200 Volt/60 Herz용 제품은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비자 협정에 의해 관광객(90일 이내 체류)은 비자가 면제된다. 장기 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제3국 또는 오스트리아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 주의

- 유럽 연합(EU) 쉥겐(Schengen) 조약에 가입한 회원 국가를 통해 입국한 경우에는 그 국가에 입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90일간이 비자 면제 기간이다.
- 부연하자면 쉥겐 조약 가입국인 프랑스에 1월 1일에 입국해서 1월 31일까지 체류하고 2월 1일 오스트리아로 왔다 하더라도 무비자 90일 계산의 시점은 오스트리아에 입국한 2월 1일이 아니라 프랑스에 입국한 1월 1일이다. 반대로 오스트리아에 1월 1일 입국해서 60일간 머물다가 프랑스에 갔다 하더라도 프랑스에 무비자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30일 밖에 되지 않는다. 바꿔 말해서 쉥겐 조약 가입국 전체에 무비자 90일이 적용된다는 이야기이다.

□ 쉥겐 조약 가입국

-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말타,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 무비자 입국 후 비자 수속

- 일단 무비자로 입국한 후 사정에 의하여 장기 체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체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 비자 연장: 이미 허가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늦어도 비자 만료 4주 전에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 비자 발급처(한국)

- 오스트리아 영사관/대사관
 -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1, 교보 빌딩 1913호
 - 전화: 732-9071/2
 - 휴일: 토, 일요일 및 양 국가의 공휴일
 - 대민 업무 시간: 10:00~13:00

2) 출입국 절차

출입국 시 특별한 절차는 없다.

□ 통관 절차

- 입국 시 신고 필수품이 있을 경우에 자진해서 세관 검사대를 거치며 그 이외에는 세관 검사 없이 통관한다. 단 세관원이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세관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Sample 등의 경우 이를 확실히 표시하는 것이 좋다.
- 참고: 면세품 한도
 - 담배: 200개비
 - 브랜디/위스키: 1 Liter
 - 포도주: 2 Liter
 - 선물용품: 150유로 이내

□ 출입국 시 유의 사항

- 취업 또는 파견 근무의 경우 반드시 노동 허가(Working Permit)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 예방 접종

- 일반적인 전염병에 대한 방역은 필요하지 않다. 오스트리아에 장기 체류하거나 오스트리아 내 숲 혹은 산악 지대를 장기간 여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중부 유럽에만 서식하는 켈헨(Zecken)이라는 흡혈 곤충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특히 노약자 및 어린이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 공항에서 시내까지 오는 교통편 및 요금

행선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시내까지 도착하는 데 20~40분 정도 소요됨.

- S-Bahn: 3유로
- CAT(City Airport Train): 8유로
- 공항 버스: 6.5유로
- 택시: 30~50유로(행선지에 따라 다름)

마. 환율/환전

1) 화폐 단위

- 원래 화폐 단위는 실링(Schilling)이었으나 유럽 화폐 동맹(EMU) 참가국으로서 2002년 1월 1일부터 유로화가 공식 통화이다.
 - 유럽 화폐 동맹 참가국으로서 2002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Euro화와 실링이 같이 통용되었음.
 - 약자는 Euro, 독어 발음은 유로가 아니라 "오이로"이다.
- 1 Euro는 100 Cent(센트)이다.

2) 주화 종류

- 1, 2, 5, 10, 20, 50 Cent, 1, 2 Euro

3) 지폐 종류

- 5, 10, 20, 50, 100, 200, 500 Euro

4) 최근 5년간 연평균 환율

- 2004년 평균 환율: 1달러 = 0.8045유로
- 2005년 평균 환율: 1달러 = 0.8032유로
- 2006년 평균 환율: 1달러 = 0.7962유로
- 2007년 평균 환율: 1달러 = 0.7294유로
- 2008년 평균 환율: 1달러 = 0.6798유로
- 최근 유로화 전신 환율(2009년 9월 22일, Erste 은행 발표 기준): 1달러 = 0.6810유로

5) 환전

- 외환 소유 및 환전 액수에 전혀 제한이 없다. 시내 은행에서 제3국 지폐를 환전하면 환전 금액의 1.5~3.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환전소 또는 호텔에서는 대개 5~7%의 환전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 지폐가 환전 가능한데, 한국 지폐는 Die Erste Bank 은행의 본점에서만 환전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을 매우 불리하게 적용하므로 가능한 한국 지폐는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환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Die Erste Bank 은행 주소
 - Graben 21, A-1010 Wien, Tel: (43 5) 0100-20111

6) 구화폐 실링화의 환전

- 예전 화폐인 오스트리아 실링 지폐(Austrian Shilling)는 국립 은행에서 환전 가능하다.
 -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주소
 - Wien 9, Otto-Wagner-Platz 3, Postfach 61, A-1011 Wien
 - Tel: (43 1) 404 20-0
 - 홈페이지: www.oenb.at
- 지폐별 환전 가능 기한
- 고정환율: 100실링 = 약 7.26유로

구분	지폐권 인물	환전 가능 기한	미환전 금액 (2008. 8. 27. 기준)
20실링	Ghega	2009. 9. 30.	1,490만 유로
50실링	Raimund	2008. 8. 31.(기간 만료)	960만 유로
500실링	Otto-Wagner	2018. 4. 20.	2,580만 유로
1000실링	Schrödinger	2018. 4. 20.	9,830만 유로

자료: 오스트리아 국립은행(OeNB)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교통

□ 항공편

- 2007년 3월 28일부터 대한 항공이 빈 노선 정기편(매주 수, 금, 일 주 3회)을 취항하고 있다. 그 밖에 한국 항공사의 유럽 노선이 거의 매일 한국으로 운항하며, 경유지는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 취리히 등이다.
- 기타 Swiss Air, Lufthansa, KLM, British Airway, Aeroflot 등의 항공사가 한국으로 취항하고 있으며, 항공사에 따라 경유지가 다르다.
- 요금: 항공사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같은 항공사라도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현저하다. 왕복 요금은 대개 약 800~1,200유로이다.

□ 선편

- 오스트리아는 내륙국으로서 바다를 접한 국제 항구가 없다. 도나우(Donau, 영어로는 다뉴브)강에는 독일 및 동구권과 연결되는 국제항구가 있으나 주로 화물 운송에 이용된다.
- 봄, 여름철에는 동구권으로 이어지는 유람 여객선이 운영되고 있다.
- 한국에서 선편으로 보내진 화물은 주로 독일의 함부르크 또는 네덜란드에서 육로 운송 수단으로 환적된다.

2) 국내 교통

□ 택시

- 택시의 경우 거리에 다니는 빈 택시를 잡기는 어려우므로 택시 회사에 전화하거나, 대로 주변에 있는 택시 전문 정차장(Taxi-Stand)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 대표적 비엔나 택시 회사 전화번호: 40100, 601600, 313000, 1715, 814000
- 주소는 도로를 따라 순번 체계로 나열되어 있으며 도시별로 지도가 잘 작성되어 있으므로 택시 기사에게 정확한 주소만 알려주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
- 택시 기본 요금은 2유로이며 빈 시내에는 대개 8~16유로 정도로 이용할 수 있다.
- 전화로 택시를 부른 경우, 10Kg 이상의 짐이 있는 경우 그리고 22시 이후에 탑승한 경우에는 택시 요금에 2유로의 할증료가 추가된다.

□ 대중 교통 수단

- 각 지역마다 시내 공공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인구가 많지 않아서 전차,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 수단이 러시아워에도 그리 붐비지 않는다.

□ 대중 교통 수단 승차권 사용 방법

- 개찰기기에 승차권을 삽입하면 승차권에 탑승 시간과 탑승 노선이 기재되는데 개찰은 한번만 하면 된다.
- 1회용 승차권은 편도용이지만 동 승차권으로 목적지에 당도할 때까지 전차, 지하철, 버스 등 모든 대중 교통수단을 여러 번 바꿔 탈 수 있다. 단,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는 새로운 표로 다시 개찰해야 한다.
- 가끔 검표원이 탑승하여 승차권의 개찰 여부를 조사하며 무임승차 또는 개찰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45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대중 교통 수단 승차권 구입 방법

- 전차,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 수단은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독점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철역이나 Tabak이라고 쓴 상점에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동 승차권은 구입한 도시 내에서만 유효하다.
- 1회용 승차권은 비엔나의 경우 전차, 버스 안에서도 동전 자동판매기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나 예매할 경우(Euro 1.6)보다 비싼 1.8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 1회용 승차권은 예매의 경우 4매, 8매 묶음으로 판매한다.
- 이외에 24시간용, 72시간용, 8일권, 1주일권, 1개월권 등이 있는데 가격 및 효용 면에서 1회용 승차권은 여타 승차권에 비해 가장 불리한 만큼, 여행 기간에 따라 적절한 승차권이 구입이 요구된다.

3) 국제 통신

□ 현지 공중전화 이용법

- 지하철 역과 시내 곳곳에 공중전화가 있음. 공중전화는 동전 투입식과 카드식 2가지가 있으며, 시내 중심가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화가 있다.
- 동전 투입식의 경우 Euro Cent 동전을 해당 투입구에 투입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전화카드는 시내의 Tabak이라고 쓰여진 가게나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10유로, 20유로의 카드가 있다.

□ 현지에서 한국으로의 통화 방법

- 0082 + 한국의 지역번호(제일 앞자리의 0은 제외) + 해당 전화번호
 - 현지에서 한국으로 수신자부담 통화, 0800 200 208를 선택한 후, 0번을 누르면 교환원이 나온다. 교환원에게 전화번호 및 통화할 사람을 이야기하면 된다.

□ 한국에서 현지로의 통화 방법

- 001 - 43 - 지역번호 - 해당 전화번호
- 지역 번호의 경우 국내 지역 번호의 제일 앞자리의 0은 제외함. 수도 빈으로 전화할 경우 1 만 돌리면 된다. 예) 001 - 43 - 1 - 587 38 76(빈 KBC)

□ 전화 요금

- 전화: 약 550만 회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송수신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 시내 통화료 분당 30 Cent
- 시외 통화료
 - 100 km 이내 분당 40 Cent(월-금 8시부터 18시), 30 Cent (이외 시간)
 - 100 km 이상 분당 60 cent(월-금, 8-18시), 40 Cent(이외 시간)
- 핸드폰: 2009년 9월 기준 약 900만 대

국제 전화 통화료 기준

(단위: 유로/분)

지역	월~금, 8~18시	이외 시간
1지역: 대부분의 유럽 지역	0.4	0.3
2지역: 북미 지역(알래스카 제외)	0.62	0.48
3지역: 한국, 일본, 오세아니아	1.06	0.7
4지역: 중국, 베트남, 북한 등	1.46	1.14

자료: Telekom Austria

- 개인 전화를 이용할 경우, 공중전화 요금에 20%에 부가세가 가산된 금액이 실제 전화 요금으로 청구된다.
- 호텔에서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호텔 자체의 사용료가 공중전화 사용료의 50%에서 100%까지 가산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식당이나 기타 업소에서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업소 자체의 할증료가 부가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팩스: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나 약 40만 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팩스 요금은 전화 요금과 동일하다.

4) 우편 제도

□ 일반 우편 제도

- 오스트리아는 비교적 우편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로, 예를 들어 빈 시내의 경우 빠르면 편지를 부친 다음 날 수신인이 받아볼 수 있다.
- 보통 우체국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부터 1시까지의 점심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여는데, 우체국 별로 점심 시간에도 문을 여는 지정,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지정 등이 간혹 있다. 각 지정별 우체국 개장 시간은 오스트리아 우체국 홈페이지(<http://app.post.at/postfilialen>)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빈 남부 및 서부역에 위치한 기차역의 우체국은 연중 무휴로 저녁 10시까지 문을 연다.
- 오스트리아 국내 및 EU 국가 내의 경우 기본 요금이 0.55유로고 무게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 국제 우편 요금의 경우 편지, 소포, EMS 등의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국가 및 종류별 상세 요금은 <http://www.post.at/Tarifrechner> 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 예) 한국(Korea Rep 선택)으로 1kg의 소포를 EMS로 보낼 경우 49.82유로이다.

□ 특사 우편 제도

- 오스트리아에는 Fedex, DHL 등의 국제 특사 회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 DHL Express(Austria) GmbH
 - 주소: Viaduktstrasse 20, A-2353 Guntramsdorf
 - Tel: +43 820 55 05 05 / Fax: +43 316 40 11 11-4(항공), +43 732 37 35 37(육상)
 - 홈페이지: <http://www.dhl.at/publish/at/de.high.html>
 - e-메일: dhl.at@dhl.com
- Fedex(Federal Express GmbH)
 - 주소: Cargo Nord, Geb. 7, A-1300 Wien
 - Tel: +43 1 7007 32257 / Fax: +43 1 7007 32158
 - 홈페이지: <http://www.fedex.com/at/>
 - e-메일: billat@fedex.com

사. 호텔/식당

1) 호텔

□ 호텔 등급

- 호텔의 경우 5개의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 특급 호텔의 경우 별 다섯 개로 표시. 별의 숫자가 적을수록 등급이 낮아진다.
 - 보통 별3개까지가 호텔이며 2개 이하는 펜지온(Pension)이라고 부른다.
- 예약 시 주의 사항
 - 봄/여름 성수기 철에는 호텔 찾기가 매우 힘이 든다. 적어도 1개월 전에는 호텔을 예약해 두도록 한다.
 - 아울러 국제학술대회가 개최 될 때에도 호텔 찾기가 힘드니 주의가 요망된다.

□ 호텔 요금

- 요금은 시즌별로 차이가 크다.
- 특급 호텔 싱글룸 요금은 대개 150~300유로 수준이며, 1급 호텔의 경우 100~160유로 정도, 2급 호텔의 경우 70~120유로 수준. 3~4급 호텔은 35~80유로 정도이다.

□ 호텔 선정

- 현지에서의 호텔 예약은 공항/역이나 시내의 여행 안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성수기에는 현지 한국 여행사를 통하여 방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약하는 것보다 현지 여행사를 통하는 것이 가격이 약 10% 저렴하다.

- 다뉴브 여행사
 - 사장: 김지수
 - 주소: Viktoriagasse 7, A-1150 Wien
 - 전화: (43 1) 892 3571
 - FAX: (43 1) 892 3580
- Vienna Holidays
 - 사장: 조성민
 - 주소: Neubaugurtel 4, A-1070 Wien, Austria
 - 전화: +43 (1) 522 1234-0
 - FAX: +43 (1) 522 1234-5
- 호텔 명: Hotel Marriott
 - 등급: 특급
 - 주소: Parkring12a, A-1010 Wien, AUSTRIA
 - 전화: (43 1) 515 180
 - Fax: (43 1) 515186510
 - 가격: 싱글/더블 요금에 차이가 없음. 약 Euro 260
 - 비고: 시내 중심가에 위치, 비즈니스 센터가 잘 완비되어 있고 시설이 매우 현대적이다.
- 호텔 명: Astro Suite Hotel
 - 등급: 1급
 - 주소: Mariahilferstr. 32-34, A-1060 Wien, AUSTRIA
 - 전화: (43 1) 52 1720
 - Fax: (43 1) 521 7215
 - 가격: 싱글 Euro 100, 더블 Euro 130
 - 비고: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며 더블룸의 경우 간이 부엌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 호텔 명: Hotel Anatol
 - 등급: 1급
 - 주소: Webgasse26, A-1060 Wien, AUSTRIA
 - 전화: (43 1) 59 9960
 - Fax: (43 1) 599 9655
 - 가격: 싱글 Euro 100, 더블 Euro 130
 - 비고: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며 다뉴브 여행을 통한 경우 할인 가능하다.

2) 식당

□ 개요

많은 식당이 점심 때에는 일반 차림표의 가격과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점심 식사를 판매한다. 저렴한 점심식사 차림표(Mittagsmenu)는 대개 일반 차림표의 맨 뒤 부분에 있다.

오스트리아 식당은 도처에 있으며, 대개 식당 앞에 메뉴(가격 명시)가 게시되어 있다. 중국 식당도 빈에만 약 200여 곳이 있는데, 중국 식당의 식사 가격은 대개 일 인분에 7~10유로(중급 식당 기준)이다.

□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요리

- 수프
 - 레버크노델 수페(Leberkoedel Suppe): 소 간으로 만든 완자를 넣은 쇠고기국
 - 플라이쉬 슈트루델 수페(Fleischstrudel Suppe): 오스트리아식 쇠고기 만두를 넣은 스프
- 정식
 - 굴라쉬(Gulasch): 오스트리아식 스투(찜 요리)
 - 슈텔제(Stelze): 훈제한 돼지 넓적다리
 - 타펠슈피츠(Tafelspitz): 소의 허벅지살을 백포도주로 삶은 것
 - 쾰비젤 로스트브라텐(Zwiebel-Rostbraten): 튀긴 양파를 곁들인 쇠고기 구이
 - 비너 슈니첼(Wiener Schnitzel): 송아지 고기 커튼릿
- 후식
 - 아이스 마릴렌크노들(Eis Marillenknoedel): 살구 아이스크림
 - 모온 슈트르델(Mohnstrudel): 양귀비를 넣어 만든 케이크
 - 자크토르테(Sachrtorte): 초콜릿으로 만든 케이크

□ 주요 오스트리아 식당

- Piaristenkeller
 - 특색: 중세풍의 고급식당으로 옛날 와인 저장소를 개조하여 식당으로 만든 곳이다. 오후 7시 반부터 오스트리아 전통 악기인 시터(Citer, 하프와 기타의 중간 형태 악기) 연주가 있어서 매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 가격
 - 전식: 약 Euro 5~9
 - 정식: 약 Euro 13~25
 - 후식: 약 Euro 4~9
 - 주소: Piaristen-gasse 45, A-1080 Wien
 - 전화: 405 9152 0 or 406 2474 Fax: 406 4173
- Griechenbeisl
 - 특색: 비엔나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 5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유명인들이 식사하고 벽에 사인한 방이 있다.
 - 가격
 - 전식: 약 Euro 5~8, 정식: 약 Euro 11~23, 후식: 약 Euro 4~8
 - 주소: Fleischmarkt 11, A-1010 Wien
 - 전화: 533 1941 또는 533 1977 0
- Steirereck
 - 특색: 귀족적 분위기의 고급 식당으로 각종 오스트리아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다.
 - 가격
 - 전식: 약 Euro 15~25, 정식: 약 Euro 25~50, 후식: 약 Euro 10~25
 - 주소: Rasumofsky gasse 2, A-1010 Wien
 - 전화: 713 3168 0 or 713 5168 0

- Plachutta
 - 특색: 오스트리아 전통 쇠고기 요리 전문점으로 양질의 소고기를 계약 목축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치인들이 애용하는 식당이다.
 - 가격
 - 전식: 약 Euro 6~12, 정식: 약 Euro 14~25, 후식: 약 Euro 6~12
 - 주소: Wollzeile 38, A-1010 Wien
 - 전화: 515 1577
- Strand Café
 - 특색: 강변 경치를 즐기면서 식사할 수 있다. 돼지갈비 전문 요리점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현지식 갈비 요리라고 할 수 있다. 버드와이저와 함께 더욱 운치 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
 - 가격
 - 전식: 약 Euro 4~6, 정식: 약 Euro 8~16, 후식: 약 Euro 4~6
 - 주소: Florian Berndl Gasse 20, A-1220 Wien
 - 전화: 203 6747

□ 헛포도주 전문 식당가

- 올해 나온 헛포도주와 오스트리아 전통 음식인 돼지 넓적다리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며 오스트리아의 서민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1인분 식사 가격은 대개 약 10~20 유로 정도이다.
- 그린칭(Grinzing, 19구에 위치)지역과 Neustift am Walde 지역에 다수의 헛포도주 전문 식당들이 있다. 그린칭 지역 식당들은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며, 오스트리아인들이 애용하는 고급 헛포도주 전문 식당들은 Neustift am Walde 지역에 많다.

□ 한국 식당(한식과 일식이 나옴)

한식 가격은 대개 Euro 9-18, 일식 가격은 대개 Euro 10 - 20 정도이다(가나다 순).

- 부산 Busan
 - Reinprechsdorfstr.57, A-1050 (Tel: 544-3644)
- 유 Yoo
 - Stumpfergasse 27, A-1060 (Tel: 597-2879)
- 한일 Hanil
 - Gumpendorferstrasse 14, A-1060 (Tel: 587-7941)

아. 관공서 관행

1) 대민 업무 시간

대민 업무의 경우 대개 평일(월-금) 오전 8시에서 오후 12-13시 정도까지 업무를 보며, 목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만 대민 업무를 보는 관공서도 많다. 부서마다 대민 업무 시간이 상이하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업무 시간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2) 전화 문의

전화 문의에 친절히 응하는 편이지만 영어로 대화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화를 하기 전 정확한 업무 용건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일처리 원칙 및 소요 기간

일처리는 원칙을 고집하여 다소 능동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오스트리아인들 자신들도 오스트리아 관공서의 일처리 속도는 매우 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를 방문하게 되면 대기실이 있으며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서에 가서 먼저 번호표를 받아야 한다. 번호순으로 일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은 예사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4) 관공서 방문 시 유의 사항

관공서 직원들은 외국인 육체 근로자들에 대해 고자세이므로 관공서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넥타이와 양복을 착용하여 외국인 육체 근로자와 차별화하는 것이 좋다.

자. 공휴일

1) 개요

각 주별로 정해진 공휴일은 없으며, 전국 공통으로 정해진 공휴일이 있을 뿐이다.

2) 매년 날짜 변동 휴일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로서 가톨릭의 축일은 모두 휴일로 하고 있는데, 부활절, 예수승천일, 성령강림절, 성체축일은 매년 변동된다. 그 이유는 이 휴일들의 날짜 계산이 기독교 성경 복음서에 서술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음력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3성왕절이나 크리스마스 등은 2세기 이후 로마의 태양력을 기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2009년 오스트리아의 공휴일 일정

공휴일명	날 짜 계 산	2009년 날짜	요일
신 년	매년 1월1일	1.01	목
3 성 왕 절	매년 1월6일	1.06	화
부 활 절	유대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4.12/13	일/월
노 동 절	매년 5월1일	5.01	금
예수승천일	유대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5.21	목
성령강림절	유대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5.31/6.01	일/월
성체 축일	유대인 달력(음력)에 따라 변동	6.11	목
성모승천일	매년 8월15일	8.15	토
국 경 일	매년 10월26일	10.26	월
성자의 날	매년 11월1일	11.01	일
성모수태일	매년 12월8일	12.08	화
크리스마스	(12월24일 오후부터 25일)	12.24/25	목/금
성스테판의 날	매년 12월26일	12.26	토

3) 출장 지양 시기

□ 휴가철 및 방학

오스트리아의 법정 휴가는 5주나 되기 때문에 일년간 여러 번에 걸쳐 휴가를 나누어 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휴가철에는 정상 업무를 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주요한 휴가철은 부활절 전후(대개 4월경), 여름 휴가철(7월, 8월, 9월 중순까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후(12월 20일부터 1월 초순까지)이다. 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각 주 별로 에너지 절약 방학이 있는데 이때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으므로 이 시기 역시 피하는 것이 좋다.

□ 요일별 주의 사항

오스트리아의 근무 시간은 월~금요일까지이므로 토요일은 업무 접촉이 불가능하다. 또한 금요일도 오전만 근무하는 직장도 많고 금요일 약속을 피하려는 오스트리아인들이 많으므로 금요일 역시 비즈니스 시기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샌드위치 휴일인 경우도 업무를 보지 않는 회사가 많으므로 상기한 연별 공휴일을 참고하여 출장 일정을 짜는 것이 좋다.

차. 여행시 유의 사항

1) 의복

봄, 가을로는 한국과 비슷한 날씨이므로 대개는 이에 맞추어 복장을 준비하면 된다. 드문 경우이지만 5월초에 눈이 오는 경우도 있고 10월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봄/가을 여행시에는 겨울 옷을 한 벌쯤 예비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비가 자주 오니 우산은 꼭 준비해야 한다.

여름 날씨는 한국만큼은 덥지 않으며 습도도 그리 높지 않다. 가끔 비가 오면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여름에 여행하더라도 가을 옷 한 벌쯤은 준비하는 것이 좋다. 겨울 날씨는 한국과 비슷하다(월별 자세한 내용은 기후 항목에 기술되어 있으니 참조 바람).

2) 전기 규격

220 Volt 50 MHZ, 플러그는 중부 유럽 방식(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이다. 한국 기기를 오스트리아에서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플러그 때문에 Adapter가 필요하다. Adapter는 대형 가전제품 유통점(Niedermayer, Saturn)등에서 판매하며 가격은 약 10유로 수준이다.

3) 치안

주야간 모두 매우 양호하다. 스위스와 더불어 서유럽 국가 중에 가장 안정된 편에 속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즉 시장이나 박람회에는 간혹 동유럽이나 이탈리아에서 온 소매치기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강력 사건의 발생 빈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4) 택시 및 대중교통 수단

택시 및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 방법은 교통/통신 항목 참조.

5) 비상 및 응급 대책

- 경찰: 133
- 화재: 122
- 응급 환자: 144

144에 전화하면 구급차가 오며 고속도로에서 응급사고 발생 시에는 내무부 소속 구급차-헬리콥터(전화: 1717)를 부를 수도 있으나 일반 구급차의 경우 약 250유로, 항공 앰블런스의 경우 약 700유로를 추후에 지불해야 한다.

현지 의료비는 무척 비싼 편이며 간단한 진찰의 경우에도 50~100달러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비상 의료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목 이주정책 가이드의 "비상 의료 대책" 부분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람).

6) 팁 관행

오스트리아의 음식점에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의 월급을 책정할 때 평균 매상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팁의 액수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정급을 결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음식점에서의 팁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웨이터의 서비스에 대해 손님이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관행은 오스트리아 식당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 운영되는 한국 교포들의 식당도 마찬가지이니 한국 식당에서 식사하더라도 팁을 주는 것이 좋다. 팁의 수준은 음식 가격의 약 10%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상례이다.

택시의 경우에는 대개 요금 수준과는 상관 없이 0.5~1유로 정도면 족하다. 다만 단거리를 택시로 이용한 경우, 즉 요금이 4유로 이하가 나온 경우에는 1~1.5유로 정도를 준다. 이는 오스트리아 택시들이 모두 Call 택시여서 대기 순서에 따라 손님을 배정받기 때문에 단거리 운행을 한 경우에는 또다시 장시간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는 팁이다.

호텔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준 경우 여행용 가방 1개당 약 1유로 정도의 팁을 주면 된다. 방 청소를 해주는 경우에도 1유로 정도를 머리맡 탁상과 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둔다.

7) 식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경우에는 알프스 약수가 수돗물로 공급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식수로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대부분 지역에서도 수돗물을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는 데 다만 니더외스터라이히 주와 부르겐란트 주를 여행할 경우 미네랄 워터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이곳은 알프스 지역이 아니어서 강물을 정수하여 사용하는데 석회가 많이 섞여 있다.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식당(한국 식당 포함)에서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으며 반드시 음료를 주문하는 것이 예의이다. 음료수 가격을 감안하여 음식 값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8) 이발소/미장원

이발소나 미장원의 구분 없이 남녀 공통으로 Friseur라는 곳에서 이발을 한다. 이발 후 머리 감는 데는 추가 요금이 붙는다. 팁을 주는 것이 관행인데 1~2유로 정도 지불하면 된다.

9) 구두닦이

구두닦이는 특급 호텔에서만 볼 수 있으며 요금도 비싸다. 슈퍼마켓에서 구두약과 솔을 구입하여 스스로 닦는 방법밖에 없다.

10) 물가

멜론, 파인애플, 망고 등 열대 과일은 서울보다 훨씬 싼 편이지만 대부분의 여타 물품은 서울보다 약 1.2배 정도 비싸다.

카. 유용한 연락처

1) 현지 비상 연락처 전화번호

- 경찰: 133
- 응급 환자: 144
- 화재: 122
- 내무부 소속 항공 앰불런스: 1717
- 산악 조난 사고: 140

2) 현지 한국 기관

☐ 대사관

- 주소: Gregor-Mandelstr. 25, A-1180 Wien
- 전화: (43 1) 478 1991-0
- Fax: (43 1) 478 1013

☐ 대사관 영사과

- 주소: Gregor-Mandelstr.25, A-1180 Wien
- 전화: (43 1) 478 1991-65
- Fax: (43 1) 478 1013

☐ 빈 KBC

- 주소: Mariahilferstrasse 77-79/1/3, A-1060 Wien
- 전화: (43 1) 586 3876
- Fax: (43 1) 586 3979

3) 현지 관공서

☐ 경제부

- 주소: Schuberttring 1, A-1011 Wien
- 전화: (43 1) 71100-0
- 홈페이지: www.bmwa.gv.at

☐ 법무부

- 주소: Museumstrasse 7, A-1070 Wien
- 전화: (43 1) 521520 / Fax: (43 1) 52152 2828
- 홈페이지: www.bmj.gv.at
- 내용설명: 여성 및 소비자 권익보호관련 정보

4) 경제 단체

☐ 연방상공회의소(Bundes Wirtschaftskammer)

- 오스트리아 상공인 총연합, 오스트리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사용자 연합
- 주소: Wiedner Hauptstrasse 63, A-1045 Wien
- 홈페이지: <http://portal.wko.at>
- 전화: (43 5) 90 900

☐ 소비자보호연맹(Verein fuer Konsumenteninformation)

- 소비자 계몽 및 제품의 품질 테스트 등을 주로 하며, 매월 월간지 발행
- 주소: Mariahilferstrasse 81, A-1060 Wien
- 홈페이지: <http://www.konsument.at>
- E-Mail: konsument@vki.or.at
- 전화: (43 1) 588 77-0

☐ 오스트리아 산업연맹(Vereinigung Oesterreichischer Industrieller)

- 대규모 산업체의 이익 단체로서,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며 산업 정책 입안 건의 및 대 국민 홍보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
- 주소: Schwarzenbergplatz 4, A-1030 Wien
- 홈페이지: www.voei.at
- 전화: (43 1) 711 35-0

5) 투자진흥기관

☐ Austrian Business Agency(ABA)

- 본사주소: Opernring 3, A-1010 Wien, Austria
- 전화: (43-1) 588-580
- E-Mail: office@aba.gv.at
- 홈페이지: www.aba.gv.at
- 팩스: (43-1) 586-8659

한편 ABA는 미국 뉴욕 및 일본 동경에 OFFICE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사무소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 ABA 뉴욕 사무소

- 주소: 120 West 45th Street, 9th Floor, New York, 10036
- 전화: (1-212) 398-1221 / FAX: (1-212) 398-1511

□ ABA 동경 사무소

- 주소: 3-13-3 Motoazabu, Minato-ku, Tokyo 106-8691
- 전화: (81-3) 3796-1331 / FAX: (81-3) 3796-1332

□ Vienna Business Agency (VBA)

- 주소: Ebendorferstrasse 2, A-1010 Wien
- 전화: (43 1) 4000 86187 / Fax: (43 1) 4000 86188
- 홈페이지: <http://www.wwff.gv.at/wwff>

6) 오스트리아 관련 데이터 뱅크, 인터넷 사이트

□ 주한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지부, 무역 자료

- 홈페이지: <http://www.austriantrade.org/korea/austria-in-korea/ko>
- 내용 설명: 수출입 인콰이어리 자료 제공(한글 또는 영문)

□ 오스트리아 환경기술 데이터 뱅크

- www.umwelttechnik.at
- 오스트리아 환경기술보유 기업 명단 및 기술 내용

□ 오스트리아 기업 명부

- www.compnet.at
- 오스트리아 기업별 매출액, 창립 연도, 회사 형태, 종업원 수, 취급 또는 제조 품목 등 각종 정보

□ 오스트리아 박람회 일정

- www.messe.at
- 오스트리아 박람회 일정

□ 오스트리아 법률

- <http://www.ris.bka.gv.at/auswahl/>
- 오스트리아의 각종 법률 데이터 뱅크

□ 오스트리아 일반 정보

- <http://www.austriantrade.org/korea/austria-in-korea/ko>
- 간략한 역사, 경제, 정치, 기후 등 일반 정보

□ 오스트리아 연합통신(A.P.A.)

- <http://www.apa.at>
- 각종 일간시사 정보

□ 오스트리아의 옐로우페이지(Yellow Pages)

- www.herold.at
- 오스트리아 전국 전자전화번호부(electro Telephone-book)

타. 특산품

1) 광학 제품

- 오스트리아 광학 기술은 세계 최첨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인공위성용 카메라 렌즈는 미국이나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에 위탁,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 유명 안경 브랜드: ZEISS
- 망원경 및 현미경 브랜드: SWAROVSKI

2) 크리스털

- 오스트리아는 황정 당시부터 크리스털 생산지로 유명했으며, 특히 SWAROVSKI(스와로브스키)의 제품은 세계 최고의 브랜드 중 하나로 간주된다.

3) 특산 의류

- 양모를 특수 가공 처리한 'LODEN'(직물의 이름) 제품은 보온성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 이 제품은 특히 'GEIGER(가이거)'라는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

4) 여성용 장신구

-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는 특이하게 칠보공예가 발달했다. 특히 MICHAELA FRAY의 여성용 장신구(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는 전통적인 문양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조화시킨 제품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5) 전통 도자기 제품

- 오스트리아 전통 도자기 공예품, 도자기 인형 등이 유명한데 특히 황정 당시 황궁에 납품하던 AU PORZELLAN의 제품이 최상으로 인정된다.

파. 관광 명소

1) 비엔나 시의 주요 관광지

□ 쾨브룬 궁전(Schloss Schoenbrunn)

-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이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황제의 명으로 1744~1949년에 건축되었으며, 현관 건물, 중앙 건물, 글로리에떼(대 프러시아 전쟁 승리 기념탑), 아름다운 정원과 숲(총 18km²)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궁전 내에는 로코코 양식으로 장식된 1,441개의 방이 있는데, 41개만이 일반 공개되고 있다. '백만금의 방'은 붉은 장미 목재와 금세공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대무도 회장'은 국빈 접대 시 사용한다. '거울의 방'은 모차르트가 6세 때 마리아 테레지아 여황제 앞에서 연주하였던 곳으로 유명하며, 후에 모차르트가 마리 앙투아네트 공주에게 청혼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 벨베데레 궁전(Schloss Belved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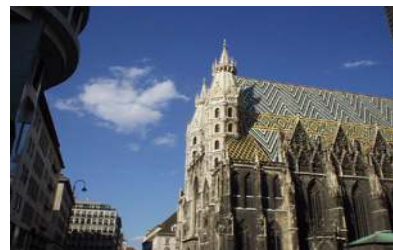
- 오스만 터키와의 전쟁에서 빈을 구한 영웅, 오이겐 왕공의 여름 별궁이다. 上宮(Oberes Belvedere)과 下宮(Unteres Belvedere)으로 나뉘어 있고, 그 사이에는 분수와 바로크풍의 정원이 펼쳐져 있다. 상궁은 현대 미술관으로, 하궁은 고대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 오이겐공이 죽은 후 이 궁전은 합스부르크가의 소유가 되었으며 사라예보에서 암살 당함으로서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미가 된 페르디난드 황태자가 거주했다.

□ 슈테판 성당(Stephanskirche)

- 오스트리아 최고의 고딕 양식 건축물로 '빈의 상징', '빈의 혼'으로 불린다.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137m의 첨탑이 솟아있고, 사원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안톤 필그림이 조각한 국보급의 설교단, 그 오른쪽 뒤에는 프리드리히 3세의 무덤이 있다.



- 북탑 입구 옆에 있는 지하 묘지 카타콤베에는 오스트리아 역대 황제의 화장한 유골과 내장이 분리되어 수납된 향아리와 흑사병으로 죽은 2,000여 구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
- 남탑은 343개의 계단을 통해 70m 높이의 테라스까지 올라갈 수 있다. 또 북탑의 종루가 있는 60.6m 높이의 테라스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다.

□ 국립 오페라극장(Staatsoper)

- 1869년 궁정 오페라극장으로 세워진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로 내부는 로코코 양식이다. 파리, 밀라노 극장과 더불어 유럽 3대 오페라극장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공연일수가 많다(7, 8월 휴관).



□ 케른트너 거리(Kaerntnerstrasse)

- 국립 오페라극장에서 슈테판 광장에 이르는 보행자 거리이다. 빈시(市)의 중심가이며 양쪽에 고급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쇼핑가로서 한국의 명동거리에 해당된다.

□ 왕궁(Hofburg)

-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성은 16~18세기에 세워진 Alteburg와 19~20세기에 세워진 Neuburg로 이루어져 있는데 Alteburg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 Neuburg(새 왕궁)에는 민속박물관 및 왕가의 무기와 악성들의 피아노를 전시한 박물관이 있다.
- 또한 왕궁에서는 스페인식 승마 학교, 주일 미사 때마다 빈 소년 합창단이 성가를 부르는 왕궁 예배당, 신성 로마 제국의 보물을 전시하고 있는 보석 박물관(Schatz kammer)도 볼 수 있다(월요일 휴관).



□ 미술사 박물관(Kunsthistorisches Museum)

- 유럽 굴지의 미술관으로, 역대 합스부르크 왕가의 방대한 수집품인 미술품 약 7,000점을 전시하고 있다.

□ 자연사 박물관(Naturhistorisches Museum)

-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로 선사 시대부터의 동, 식, 광물 및 인류학에 관한 많은史料 및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 국회의사당(Parliament)

- 고대 그리스 신전 양식을 본떠 지은 장려한 건물로 1883년에 건축, 1918년에 국회의가 개원되었다.

□ 시립공원(Startpark)

- 1862년에 개원한 빈 시민의 휴식처로서 영국의 풍경을 본뜬 연못과 분수, 바이올린을 켜는 요한스트라우스 동상, 슈베르트, 부르크너 등 12명의 기념 동상이 있다. 인접한 쿠어살롱(Kursalon)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빈 왈츠무도회'가 개최된다.

□ 시청사(Rathaus)

- 네오고딕 양식의 건물로 1883년에 건축되었다. 98m 높이의 탑 위에 '시청사의 사나이(Rathausman)'가 있고, 하절기에는 앞뜰에서 야외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한다.

□ 도나우강(Donau, 영어로는 다뉴브)

-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곡 중 가장 유명한 '아름다운 도나우강'의 배경이 된 빈을 관통하며 흐르는 강으로, 강 가운데 있는 섬(Donauinsel)에는 수영 시설과 식당가, 술집 등이 집결해 있으며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도나우강의 원줄기인 알테도나우(Alte Donau)에서는 여름철에 뱃놀이를 즐길 수 있다.

□ 비인 숲(Wienerwald)

- 비인 숲은 위치상으로 알프스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약 80km²의 광대한 숲으로서 크게 북부의 숲과 남서부의 숲으로 나뉜다.
- 북부의 숲에는 베토벤과 인연이 깊은 하일리겐 슈타트와 도나우강이 내려다보이는 경승지 칼렌베르그, 포도밭이 많은 그린징 등이 있으며, 특히 그린징에는 소위 '호이리게'(금년산 새 포도주)를 즐길 수 있는 선술집이 많이 있다. 남서부의 숲에는 슈베르트와 인연이 있는 뢰들링, 온천지 바덴, 수도원으로 유명한 하일리겐크로이츠, 영화 '덧없는 사랑'의 무대인 마이어링 등이 있다.

2) 기타 지역

□ 인스부르크(Innsbruck)

- 도시 전체가 알프스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세풍의 오래된 건물이 많아 동화의 나라를 연상시키는 서부 오스트리아의 도시이다.

□ 잘츠부르크(Salzburg)

- 한국에서도 유명한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의 배경으로 유명한 중부 오스트리아의 도시로, 매년 부활절 및 여름 시즌(7~8월)에 개최되는 음악 축제로도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

□ 키츠뷔엘(Kitzbuehel)

- 덴마크, 영국 등 유럽 왕실을 비롯하여 유럽의 명사들이 즐겨 찾는 스키 관광지이다.

□ 볼프강제에(Wofgangsee)

- 볼프강 호수를 중심으로 한 휴양지로 코올 전(前) 독일 총리가 30여 년째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 닥슈타인(Dachstein)

- 알프스 산맥의 줄기로 산악관광지로 유명하며 유럽 최대의 얼음 동굴이 있다.

(자료: 오스트리아 기상청, 내무부, 국립은행, Telekom Austria, 오스트리아 우체국, ABA, 연방상공회의소(WKÖ), 오스트리아 관광 소개 및 빈 KBC 보유 자료 종합)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일정들은 각 주별 전시회 주관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지역별 대표적인 전시회 주관 기관들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 www.messe.at : 오스트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전시회 홈페이지로 빈, 잘쯔부르크, 린쯔, 그라쯔 시 등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 www.acv.at : 수도 빈에서 개최되는 컨벤션 및 학술 회의
- www.kaerntnermessen.at/messe/ : 케른텐주 개최 전시회
- www.innsbrucker-messen.at : 인스부르크주 개최 전시회
- www.welser-messe.at : Wels시 개최 전시회
- www.messe-graz.at/de/messe : 그라쯔시 개최 전시회
- www.messe-tulln.at : Tulln시 개최 전시회
- www.messedornbirn.at : Dornbirn시 개최 전시회

2009/2010 오스트리아 주요 전시회 일정

전시회 명	개최 시기	분야	개최 도시
SMART	2009. 10. 7 ~ 9	공정 자동화	린쯔
Alles für den Gast- Herbst	2009. 11. 7 ~ 11	여행/관광	잘쯔부르크
Buch Wien	2009. 11. 12 ~ 15	서적/출판	빈
Vienna Autoshow	2010. 1. 14 ~ 17	자동차 쇼	빈
Creativ Salzburg Frühjahr	2010. 1. 29 ~ 31	선물/액세서리/생활용품	잘쯔부르크
Bauen & Energie Wien	2010. 2. 18 ~ 20	건물, 에너지, 인테리어	빈
Vin Austria	2010. 4. 11 ~ 14	와인	잘쯔부르크
Austropharm	2010. 4. 23 ~ 25	의약품	잘쯔부르크
VIENNEFAIR	2010. 5. 6 ~ 9	예술/문화	빈
Real Vienna	2010. 5. 18 ~ 20	부동산	빈
Vienna-Tec	2010. 10. 12 ~ 15	산업 기계 및 공구	빈
Internationale AIDS Konferenz 2010	2010. 7. 17 ~ 23	의료학회(AIDS)	빈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가. 무역 진흥 기관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
 - <http://portal.wko.at>: 오스트리아 상공인 총 연합인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는 오스트리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사용자 연합 단체이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산업별로 조직된 산하 단체와 연결 가능하며 산별 단체를 통해 무역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 빈 지방 상공회의소
 - <http://wko.at/wien>: 빈 지방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빈 지역의 상공인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오스트리아 노총 홈페이지
 - www.oegb.or.at: 오스트리아 유일의 상급노조인 오스트리아 노총(Oe.G.B.)의 홈페이지로서 노동자, 사원 권익 보호 관련 정보 등 노동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빈 공업인 협회
 - www.iv-wien.at : Industriellenvereinigung Wien
- 음향 영상 영화 협회
 - www.fafv.at : Fachverband der Audiovisions- und Filmindustrie
- 건축산업 협회
 - www.bauindustrie.at : Fachverband der Bauindustrie
- 의류협회
 - www.fashion-industry.at : Fachverband der Bekleidungsindustrie
- 화학산업 협회
 - www.fcio.at : Fachverband der chemischen Industrie
- 전기 전자산업 협회
 - www.feei.at : Fachverband der Elektro- und Elektronikindustrie
- 원유산업 협회
 - www.oil-gas.at : Fachverband der Erdoelindustrie
- 자동차 협회
 - www.wk.or.at/fahrzeuge : Fachverband der Fahrzeugindustrie
- 목재 가공산업 협회
 - www.holzindustrie.at : Fachverband der Holzverarbeitenden Industrie
- 신발 피혁산업 협회
 - www.shoes-leather.at : Fachverband der ledererzeugenden Industrie

- 식품 및 생활용품 산업 협회
 - www.dielebensmittel.at : Fachverband der Lebensmittelindustrie
- 제지산업 협회
 - www.paper.at : Fachverband der Papierindustrie
- 제지가공산업 협회
 - www.ppv.at : Fachverband der Papier und Pappe verarbeitenden Industrie
- 목재산업 협회
 - www.proholz.at : Fachverband der Saegeindustrie
- 석재세라믹산업 협회
 - www.baustoffindustrie.at : Fachverband der Stein- und keramischen Industrie
- 섬유산업 협회
 - www.textilindustrie.at : Fachverband der Textilindustrie
- 기계 및 철 구조물, 금속가공 산업협회
 - www.fmmi.at : Fachverband der Maschinen, Stahlbauindustrie und Metallwarenindustrie

나. 투자 진흥 기관

- 투자 유치 진흥 기관
 - www.aba.gv.at
- 빈 투자 유치 진흥 기관
 - www.wliw.ac.at
- 주한 오스트리아 상공 회의소 지부
 - <http://www.austriantrade.org/korea/austria-in-korea/ko>